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2일)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雨中 더 활짝 핀 10만 연등 물결

2018 연등회 우천 우려 씻어내고 성료

사부대중, 부처 탄생 찬탄
한반도 평화 다함께 기원
독특한 아이디어의 행렬燈
남녀노소 · 외국인 눈길 끌어
문화마당 130개 부스 참여
각종 공연 등 종일 펼쳐져

특별취재팀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빗속에서도 전국 밤하늘을 밝게 장엄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비가 내려 원만한 행사가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해진 빗줄기와 함께 연등불빛이 시민들의 마음을 적셨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2~13일 전국 각지에서 2018 연등회를 거행했다. 중앙행사인 서울지역은 12일 오후 5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다만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인해 연희단의 율동발표는 취소됐으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10여 분간 자율적인 율동 시간이 주어졌다.

雨中 연등회… 환희심 그대로

법요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해외불교지도자 등의 관불의식으로 시작됐다.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우산과 우비를 갖춘 채 비를 맞으면서도 삼귀의 · 반야심경 독송을 하며 지극한 불심을 다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인 설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45년 동안 중생에게 펼쳐 보이신 설법의 요지는 뭇생명들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무량한 대광명 아래선 못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다"면서 "반야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값지고 눈부신 생명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를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감사히 여기는 자리이타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네가 아프면 나 역시 아프게 되고, 내가 양보한 자리만큼 보다 많은 중생들이 거기서 쉴 수 있다는 불이(不二) 정신을 깨우치면 참된 자비심이 일어난다"며 "인생은 고해이고 미망의 여정이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를 강인하게 하고 자비가 우리를 따사롭게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불자이고,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불자"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부처로 살 수 있다면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다. 이 환한 봄날에 부처님오신날을 한껏 누리며 기쁘게 정진하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밝은 연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자"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붓다차리타〉를 봉독했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가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또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무드가 점차 확산되는 데 맞춰 평화기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토 장엄한 감동의 연등행렬

이후 흥인지문부터 종로1가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불자들의 식을 줄 모르는 환희심과 함께 부처님 탄생을 찬탄했다. 이례적인 우중(雨中) 연등회로 인해 예년보다 관람객은 다소 줄었으나 맺힌 빗방울이 행렬등을 더욱 빛나게 했다.

올해 연등행렬은 외국불교의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다. 5등단에 참여한 외국불교계에는 태국불교, 베트남불교(원오도량), 대만 불광산사,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미얀마, 네팔불교 등 남방권불교의 참여가 대폭 늘었다. 이들은 부처님 형상등을 비롯해 사리탑등, 원형평안등의 장엄등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대만 불교의 경우 천진불들과 함께 행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국내등 중에서는 '아이좋아V캠페인'을 최근 선포한 조계사가 유모차 부대와 함께 행렬에 나서 주목받았다. 또한 매년 행렬등 공모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한마음선원은 해수공용등 · 연꽃수레등의 장엄등과 관하는 부엉이등 · 가난한 여인의 등을 통해 등 제작 실력을 뽐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상징한 수국사의 스노보드등과 총지종의 평화통일한반도등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으로 올해 새로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도로 바깥쪽으로 옮겨져 관람석으로 활용됐다. 특히 정류소 지붕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 관람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주최 측은 연등행렬 참여인원을 20만 명으로 추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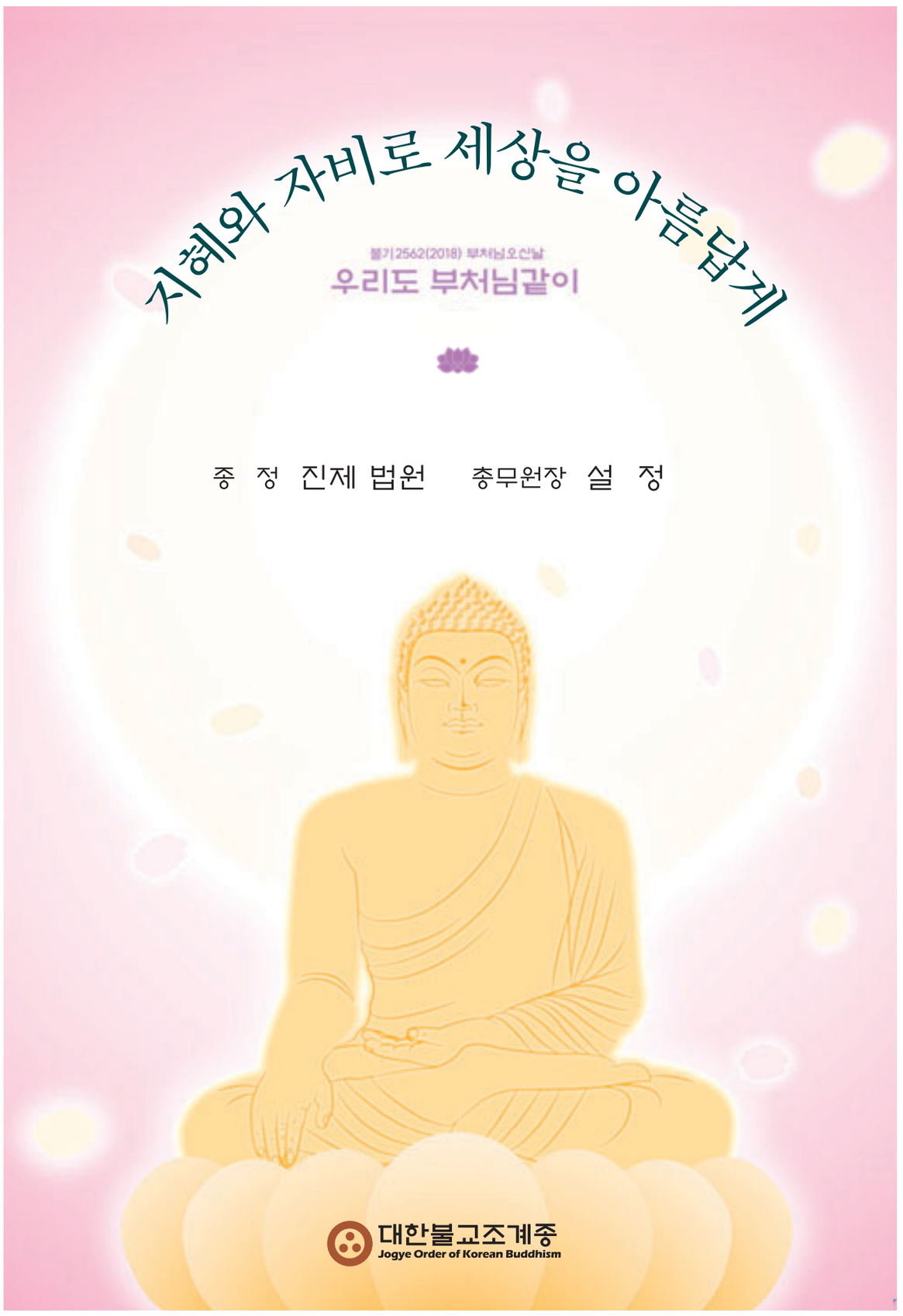
연등회의 열기와 감동은 13일 조계사 앞 전통문화마당으로 이어졌다. 사부대중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화창한 날씨에 휴일을 맞아 우정국로를 가득 메웠다.

전통문화마당에는 △먹거리 △청춘 △전통 △국제불교 △나눔 △NGO 등 6개 마당에 130여 개 부스가 들어섰다.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와 명상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연등 만들기는 어린 아이들과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다.

국제불교마당에서는 일본, 태국, 스리랑카, 대만, 미얀마, 네팔, 몽골, 베트남, 티베트 등 다양한 국가의 불교가 소개됐다. NGO마당에서는 아름다운동행, 생명나눔실천본부, 승가원, 자비명상 등이 기관홍보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평동과 안국동에 설치된 특설무대서는 플래시 몹과 선무도, 북청사자놀이, 승무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후 조계사 앞 공평 사거리에서 연등놀이를 끝으로 연등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빈녀 난타'의 마음으로 燈 밝히다 부처님께서 오시자 왕과 귀족들은 법회자리를 밝히기 위해 화려하게 잘 타는 기름등불을 켰다. 가난한 난타는 등을 밝히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작은 등불을 밝혔다.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홀로 타오른 등, 바로 '빈자일등(貧者一燈)' 일화다. 5월 12일 서울 종로 일대서 진행된 연등회는 우천 속에 진행됐다. 한해 동안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해 준비한 연희단에게 남은 것은 날씨에 굴하지 않고 환희롭게 이를 장엄하는 것 뿐이었다. 홀로 밝게 탄 빈자일등처럼, 행여 비에 젖을까 정성스럽게 비닐로 감싼 연등은 빗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사진=박재완 기자



2018년 봉축특집호
A · B · C섹션 72면 발행

선지식에게 듣는다 A5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명선 스님



도반의 향기 C1~2
영화감독 김행수 · 배우 전무송



봉축법어 · 봉축사 A7~9
봉축화보 A18~19



봉축특집
한반도 평화, 불교에 답있다 A11 · 12 · 13 · 15 · 16
이제 다시 수행이다 B1 · 2 · 3 · 5 · 6 · 7
청춘 불교 B14 · 15 · 17
내 인생의 부처님오신날 C9

다음주 휴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대책위 구성해 PD수첩 의혹 해명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교시로 현안 해결 당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5월 1일 MBC PD수첩 방영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종정 진제 스님이 교시를 내려 해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5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 앞서 “총무원장스님께서는 조속히 범종단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교시를 내렸다. 교시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과 불자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절망, 그리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종단을 대표하는 출가자로서 깊이 참회드린다”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정 스님은 MBC의 사과가 없을 시 이를 법난으로 규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설정 스님은 “MBC는 부처님오신날을 목전에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제3자의 일방적 폭로성 증언을 근거로 방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2천만 불자와 승가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조계종단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MBC의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법난으로 규정하고, 전 불교도의 결집된 교권수호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교권수호위원회 구성 결의
의혹 해명 위한 전권 위임
원로회의부터 위원 추천해
위원회 규명 부적절 의견도


5월 8일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월주 스님 등 원로 4인 추천

비공개로 진행된 본사주지회의서는 진제 스님이 당부한 대책위 성격의 ‘교권자주수호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으며, 설정 스님은 의혹 규명문제를 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원은 원로회의와 중앙종회, 본사주지, 전국비구니회, 각급 단체 추천을 받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인원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와 중앙종회는 위원회 구성에 힘을 보태며,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한 것은 원로회의.

원로회의는 11일 15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월주 · 월탄 · 종하 · 원경 스님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원로회의는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전 불자들이 합심해 교권자주를 수호하고, 연등회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여법하게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하루 앞선 10일 비공개 간담회서 입장문을 발표, “조계종단의 교권과 자주적 종교활동이 종단폄훼 세력과 외부세력,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현실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부처님오신날을 목전에 두고 제3자의 일방적 폭로성 증언을 근거로 방송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는 종정예하 교시에 따라 ‘교권자주수호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며, 동시에 적극 참여해 종단 자주성을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부실장 일괄사표도

하지만 종단 안팎에서 쏟아진 비판에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 스님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면서 종단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종무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무원 내 부실장 스님들은 9일 사표를 모아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의 질책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서는 지난해 10월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설정 스님이 6개월 넘도록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점과 함께 대책회의를 함에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부 · 실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본말사들이 MBC PD수첩 방영으로 인한 불자 및 보시금 감소, 불교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총무원 차원의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부 · 실장들의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지만 2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이후 설정 스님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앙종회 의장단 간담회에 부 · 실장들을 제외하고 설정 스님 혼자 참석하면서 어느 정도 사의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계종은 ‘교권자주수호위원회’를 통해 범종단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의혹 해명 등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南北 공동발원문, 3년 만에 채택 ‘눈길’

부처님오신날 동시법회서 낭독
민추본 · 조불련, 교류 물꼬 터
6.15 이후 민간교류 재개 기대

부처님오신날 한반도 전역 사찰서 울려 퍼질 남북불교 공동발원문이 3년 만에 채택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 민간교류의 진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5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발원문의 채택 경과와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합의해 작성된 이번 발원문은 5월 22일 전국 본 · 말사와 북한의 모든 사찰 동시법회에서 낭독된다. 공동발원문이 채택된 것은 2015년 이후 3년 만으로, 그간 경색됐던 민간교류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민추본과 조불련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대결과 분열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 땅에 평화의 새봄, 통일의 새 시대를 갈망해온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며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주인은 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들은 판문점 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자주통일의 법등으로 높이 들고 그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와 통일의 법음이 높이 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넘치게 하겠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민추본은 공동발원문 채택과 함께 남북불교도들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조불련 측에 제의했다. 민추본은 6.15민족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공동위원장 회의가 이달 23~26일 평양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후 민간차원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은 “남북 불교관계의 기반을 잡는 초파일이 될 것이다. 이후 언젠가 조불련과 마주앉아 남북불교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ICOMOS, 통도사 · 부석사 등 4곳 등재 권고해

다른 3곳은 제외할 것을 제안
6월 24일 세계유산위서 결정
“보완해 7곳 선정토록 할 것”

불교계와 문화재청, 지자체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전통산사 7곳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괄등재가 어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에서 7곳이 아닌 4곳만 등재할 것으로 권고했기 때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최종 심사평가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통지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이 받은 심사평가서에서는 등재신청한 7곳 산사 중 통도사 · 부석사 · 법주사 · 대흥사 4곳만을 등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등재 신청을 올린 봉정사 · 마곡사 · 선암사에 대해서는 “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봉정사 경우에는 “ ‘종합승원’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찰에 비해 규모가 작다”며 제외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도사 · 부석사 · 법주사 · 대흥사 4곳에 산사에 대해서는 “7세기 이후 한국 불교의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살아있는 종합 승원”이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또한,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 보존관리계획 등도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전통산사 4곳의 등재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코모스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사의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 받은 양산 통도사 전경. 이코모스는 7곳 중 4곳만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전통산사 3곳의 등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열린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이 난 일본의 ‘무나카타 · 오키노시마 유산군’도 이코모스가 8곳 중 4곳만을 등재할 것으로 권고했으나, 일본 측이 위원국들을 설득해 8곳 모두 등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수정된 바 있다.

현재 불교계와 문화재청 등은 보완 자료를 작성해 7곳 사찰이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코모스가 세계유산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3곳 사찰을 포함해 원래 신청한 7곳 사찰이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국 교섭 등의 활동을 통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2562(2018)년 부처님 오신 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함께 가자! 우리~

● 지금 우리 사회는 남과 북의 평화공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주, 성 평등, 다문화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우리 모두 차별이 없는 한 몸임을 깨닫고 함께 갑시다! 좀 더디더라도 너와 나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길은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 함께 가자! 우리~

“가피 · 신앙, 학술연구 · 조명 필요”

인터뷰 – 신행 장려 위해 학술상 제정한 성운 스님

한국불교학회 퇴임 앞두고
사재 출연해 학술상 제정
1회 수상자 황상준 등 선정

“가피는 신앙 증명 중요 사례
이를 통해 수행 정진 이어져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행 가피 사례를 밝히면 현실에서는 터부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적 연구 주제로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사진〉은 5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운학술상(불교학술진흥상) 제정 취지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학회장 퇴임을 앞두고 사재를 출연해 학술상을 제정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성운 스님이 학술상을 제정한 이유는 오롯이 ‘신행 장려’라는 원력 때문이다.

일반 신자들은 염불과 기도 등의 신행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불교는 자력종교’라는 미명 아래 부정돼 왔다.

“종교에서 신심은 중요합니다. 기복적인 요소가 있어서도 기도와 염불은 중요한 신행이죠. 중요한 것은 기복에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자기 변화를 체험하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이는 스님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고민해야 할 연구 주제입니다.”

성운 스님은 새로 제정된 학술상을 통해 학계와 일선 신도 간의 간극이 좁아지길 기대했다.

“한국불교와 불교학계가 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신행과 실천으로서의 불교입니다. 학술상은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촉진 ·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학회장의 소임은 내려놓지만, 이 같은 현실을 한국불교학회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학자들이 늘 화두에서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교 연구와 현실이 서로 반응하고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퇴임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신행과 실천에 대한 불교학자들의 적극적인 해석과 관심을 제안한 2년이었다”고 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 중 하나가 학술상 제정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불교와 4차산업’ 국제 학술세미나였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불교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불교가 돼야 합니다. 학자들은 늘 이에 답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와 4차산업’ 국제 학술세미나를 기획한 동기입니다. 앞으로도 사회 현실에 부응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신앙분야 관련 연구가 이뤄져 한국불교와 전법 포교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1회 성운학술상 수상자로는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의 ‘염불신앙을 통한 현대재가불자의 가피사례 연구’와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교육과정 텍스트로서의 정토삼부경의 재조명’ 등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없다.

시상식은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우수상 수상자 2명에는 200만원, 장려상 수상자 3명에는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불교와 불교학, 현재의 반성과 미래의 지향-인간을 고민하는 불교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연구의 한계와 전망(강형철/ 동국대) △불교사상사 연구, 개념과 현실 사이의 잃어버린 접점(석길암/ 동국대 경주) △불교사 쓰기의 오류와 방법론적 극복(한지연/ 금강대)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새 랜드마크 ‘로터스관’ 첫 삽

4일 기공식 · 개교 112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총장 보광)의 새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의 첫 삽이 올랐다. 동국대는 5월 4일 이해랑예술극장 앞에서 로터스관 기공식 및 개교 1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기공식과 개교기념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 교직원, 학생,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광 스님은 식사에서 “개교 1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로터스관의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오늘 기공식이 캠퍼스의 경계를 뛰어넘어 교사와 교지를 동시에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순간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평화불사를 특별히 제안했다. “로터스관 공사의 시작과 과정 전체가 평화로운 불사가 되도록 종단, 동문, 학생, 교수, 불자 등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동국대 중문(혜화문) 일대에 건축되는 로터스관은 지하 6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연면적 약 7,700평 규모이다. 로터스관은 △대형 컨벤션 시설 △각종 복지 · 편의시설 △박물관 및 전시시설 △불교 교육 및 연구 공간 △동창회 및 사무공간 등 교육연구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그동안 동국대는 공간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 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2년 서울시로부터 중문(혜화문)일대 국유지 남산공원 구역해제를 인가받으며 2016년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세부시설조성 기본계획’을 인가받았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중강당서 개교 1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공로상, 근속상, 동국학술상, 우수연구자상, 대학원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등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학술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원들에게 수여하는 ‘동국 학술상’ 논문부문에는 유병승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안선신 수학교육과 교수와 한용수 중어중문학과 교수, 산학협력부문에서는 이강우 컴퓨터공학전공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성민 기자



어버이날 배식봉사 나선 설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5월 8일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에 나섰다.

설정 스님은 5월 8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봉사를 했다. 설정 스님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총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갈비탕 등을 배식하며 인사를 건넸다. 배식 직후 설정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배식 봉사 후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의 센터 소개와 사업내용 보고가 이어졌다. 봉사에는 설정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 등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올해 불자대상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등 5명

김영임 · 엄홍길 · 김춘순 · 이상호, 5월 22일 봉축법요서 시상


엄현성


김영임


엄홍길


김춘순


이상호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에 엄현성(해군참모총장) · 김영임(국악인) · 엄홍길(산악인) ·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 이상호(스노보더) 등 5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설정)는 “5월 10일 불기2562년도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엄현성 불자는 1981년 임관 이후 불교에 대한 신앙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군불자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37년간 주요 지휘관 및 참모직을 역임하면서 해군사관학교 군법당(진해 호국사)과 제3함대사령부 군법당(해광사) 등 많은 군두배 법당시설 불사를 원만회향 했다.

김영임 불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으로 50여 년 동안 음성을 통한 대중포교에 매진했다. 1972년 부모은중경의 효정신을 담아낸 불교가사인 회심곡 완창음반을 발매해 국악계 최초 100만장을 돌파했으며, 불교음악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찬불가 대중화에도 이바지했다.

엄홍길 불자는 세계 최초 8000m 16좌를 완등한 산악인으로 등반할 때는 텐트에 법당을 만들고 기도하는 독실한 불자다. 2008년에는 엄홍길휴먼재단을 창립,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 신도증 홍보대사와 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춘순 불자는 국가예산정책 업무 등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준 불자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국회 직원불자회 고문 등을 지내면서 종단 발전 및 국회 내 불자모임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상호 불자는 2017년 동계아시안게임 및 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체육인이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 평창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첫 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했다. 또한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에 출전해 유능한 불자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동국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참사람을 키워내겠습니다



로터스(LOTUS)관
건립 예정인 지하 6층, 지상 3층, 연면적 7,700평 규모의
동국대학교 랜드마크 건물


서울캠퍼스 – 인류애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경주캠퍼스 – 파라미타 칼리지를 통한 참사람 양성


의료원 – 자비인술의 실천을 통한 악사여래의 원력 실현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전산원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전화 : 031-234-0040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叢林大衆一同



사회복지법인 修德

•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 예산군 시니어클럽
•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 수덕사 노인요양원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041)330-7700

• 선수행템플스테이
sudeoksa@hanmail.net
041)330-7789

• 수덕사노인요양원
041)338-7711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회 주 혜 창
주 지 웅 산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종무소 054)429-1700-4 팩스 054)436-3174
재무실 054)429-1713-4 팩스 054)433-860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海寺

회 주 중화 법타
관 장 송천 돈명

주 지 운곡 돈관
종무특보 법성
기획국장 정화
교무국장 용혜
재무국장 진인
사회국장 혜석
호법국장 선선
포교국장 우
연수국장 안성
도원 주 오능원국

사부대중일동

www.eunhae-sa.org

◆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방 장 지유 큰스님
주 지 경선
총무국장 보운

범어사 신도회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화엄천일기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중봉 성파
주 지 향전 영배

유나 보장 영일
율주 중산 혜남
강주 영은 현진
박물관장 지준
총무국장 혜철
도감 도문
연수국장 만초
기획국장 선본
교무국장 인경
재무국장 무문
사업국장 석운
사회국장 송정
포교국장 선림
호법국장 자인
원주 선원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포용·용서로 화합해야 만사 형통”

명선 스님(조계종 명예원로의원 · 여수 흥국사 주지)



1936년 전남 담양서 태어난 스님은 1952년 담양 보광사서 도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5년 목포 정혜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1958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또한 1959년 해인사 강원을 마쳤으며, 이후에는 해인사, 상원사, 보광사, 범어사, 통도사, 묘관음사, 도리사 등 전국 제방선원서 정진했다. 1975년 화엄사 주지를 맡아 교구본사의 위상을 세웠고, 1985년부터 현재까지 폐사 직전의 여수 흥국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에 진력했다. 특히 명선 스님은 일제 때 중단된 수륙대재를 복원해 매년 진남 거북선축제서 봉행하며 의승 수군의 향훈을 기리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3~9대)과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으로 있다.

여수 흥국사=김주일 기자

▲스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백년대계를 키우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위기에 빠진 종단의 백년대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수행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 놓으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시시비비가 없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조계종에 대해 너무 시비가 많아요. 이제까지 내가 조계종 승려가 된지 65년 됐는데, 계절병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시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보니 또 그렇습디다. 왜 다른 종파가 우리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에 대해 신상관계에 간섭을 하고 시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을 막아버리고 사부대중이 더불어 항상 생활불교를 통해 고락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종회의원을 30여 년간 했고, 원로의원도 10년간 하면서 느낀것은 불교가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판사판을 구분해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융통성 있게 사람을 키우고 수행하다보면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죠. 이판사판에 대해서 위원회를 두고, 각 교구별로 심의를 통해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자의 범계행위가 요즘 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계가 끊어지려 한다든지 하면 대중에 고하고 나갔다가 오고 또 나갔다가 올 수 있는 등 세 번을 허락 했어요. 우리 불교 집안에는 참회와 포용, 용서라는 좋은 미덕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단죄부터 할 생각보다 대책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종단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종단이나 어느 사회든 화합이 최고이죠. 뜻이 맞아야 형통하는데, 너무 죄를 벌하는 쪽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공사를 해서 참회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버리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삼중 검사가 바로 대중공사지요. 조그만 약점만 있어도 그것을 갖고 몇 십년간의 공적을 무너뜨리고 긁어내려 버립니다. 중생계는 상대성인데 자꾸 긁어내리려 한다면 옳지 않죠. 지난번 조계종단이 제적된 사람들을 모두 투표 해서 결정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면 복권 문제는 회의를 중단하더라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투표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법문때나 교구의 화엄사 행사때나 주로 ‘화합’을 강조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부처님 공부는 ‘베풀고, 화합하자’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였죠. 담양 시골 마을에도 전쟁은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아픈 것은 사람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살던 마을사람들이 이념으로 갈라졌죠.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 죽이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방황하던 저는 세속을 떠나 출가를 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며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부처님 말씀은 ‘더불어 함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살이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화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으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없이 항상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항상 비우고 내 의견과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됐을 때 대립되면 내가 양보하고 조정해서 화합해야 하는데 이때 내 주장은 좀 비워버리면 됩니다.

▲30여년 전 흥국사 주지를 맡으시면서 중창주라 할 만큼 번듯하게 도량을 일구었지만 스님이 가장 힘써 펼친 불사는 ‘인연 맺어주기’라고 들었는데요.

돈이 생기면 지금도 염주를 사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인연만 닿으면 무조건 나눠줍니다. 손에 있는 염주를 건네주면 모두 어찌나 좋아하는지 제가 다 기뻤습니다. 초창기에는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염주를 건넸죠. 특히 택시기사들이 제가 나눠주는 염주를 좋아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응이 찾아 왔습니다. 직접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건넨 염주로 기도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도 있고, 교통사고를 피했다는 이도 있습니다. 염주를 부적처럼 여긴다며 기복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염주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최고의 불구(佛具)입니다. 염주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구슬 입니다. 따라서 염주를 지닌 것만으로도 화두가 됩니다. 화가 치밀다가도 염주가 손에 잡히면 수그러지게 됩니다. 평상시 염주를 돌리며 염불을 하다보면 나쁜 습관이 줄어들죠. 그동안 건넨 염주만도 족히 100만개는 넘을 것입니다.



이판사판에 대해서 위원회를 두고, 각 교구별로 심의를 통해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명선 스님이 흥국사 경내를 걷고있다.

40여 년간 염주나눠주기 운동 펼쳐
몽골 청년 초청해 한국서 출가교육
“문제 생기면 단죄보다 해결책부터”

▲요즘 출가자수가 현격히 줄어서 큰 문제인데 스님은 이에 대한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산아 제한 정책에 의문을 품었죠.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구감소는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불교계에도 불어올거란 생각을 했어요. 출가자의 감소로 이어질 거란 생각 말이죠. 역시나 종단에서도 큰 문제로 생각할 정도로 출가자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20여 년 전만해도 해마다 행자가 되겠다며 절에 들어오는 이가 수십 명씩 되었는데 말이죠. 저는 불법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출가를 권유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국경이나 인종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몽골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과 외모가 비슷한 몽골 젊은 스님을 초청해 사미, 비구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몽골불교를 대표하는 간단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몽골의 젊은 스님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20대 초반의 몽골 스님들이 한국서 사미부터 시작해 비구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을 한국서 출가시키신다는 말씀이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몇 명을 출가시키셨나요?

2년 전부터 7명을 데려다가 1년 반 교육을 시켰습니다. 3~4개월 교육 시켜서 승가 대학을 보내고, 또한 11명을 더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몽골서 바로 데려와 교육 시키려니까 힘도 들고 식생활도 달라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개월동안 울란바트로서 11명을 한국문화에 대해 미리 교육을 시킨 후 화엄사서 습의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몽골 스님들이 비구계를 받을 때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몽골뿐 아니라 한국의 정식 스님이 되어 두 나라 어디에서든 포교와 수행을 겸하겠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는 불교뿐 아니라 한국과 몽골 양국의 우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구계를 받은 몽골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이주민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고, 몽골에 가서는 한국불교와 문화를 전하는 민간 외교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불자들이 화합하라 베풀고 살라 마음도 비우고 살라 하지만 많이 혼란스러운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것처럼 참선하는 사람은 하고 염불하던 사람들은 하고 주력하던 사람은 하고 그렇게 신심껏 해오던 그대로 흔들림 없이 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자이고 수행자이지요. 외부에서 무슨 말 한 마디 한다고 해서, 호수에 돌 많이 던지면 물결은 금방 퍼지지만 호수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남의 허물은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부처님이 오신 뜻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등불을 켜게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거에요,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잘못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구렁에 빠지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을 밝히세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각자 원찰을 찾아가 정성을 다하고 자기 마음의 등불을 정성껏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근일
회 주 송암혜승
동 당 원조각성
주 지 남전호성
부 주 지 등운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성공
교무국장 명인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재무국장 두현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선
사찰음식체험관 관장 원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걸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정명관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
프로그램형, 상시형, 휴식형 템플스테이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金山寺

조 실 태공 월주
회 주 금산 도영
주 지 자산 성우
총 무 원혜
기획무 화평
교무 응묵
재무 여찬
사회법 덕림
호 법 원성
포 교 구담
신도회장 적연 이근재 외 사부대중 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부설 전북불교회관
서원노인복지관
룸비니 어린이집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이 메 일 :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방 장 학봉 지선
주 지 토진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kr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종무소 061)392-7502
전 송 061)392-2081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조 실 혜광 종산 대종사
문 장 금성 명선 대종사
주 지 덕문
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무소 061)783-7600 / 템플스테이사무국 061)782-7600
홈페이지 www.hwaeomsa.com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 흥 사

회 주 상월 보선
주 지 무생 월우

사부대중일동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전화 061-534-5502~3 | 템플스테이 사무국 061-535-5775
팩스 061-535-5357 | 홈페이지 www.daeheungsa.co.kr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 선운사 성보박물관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 선운사 기초 푸드뱅크
- 고창군 노인복지관
- 고창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 백파사상연구소
- 고창군 푸드마켓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중생구제 나서자

평화와 행복은 내면서부터 시작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나투신 경이(驚異)와 찬탄(讚嘆)과 환희(歡喜)의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일곱 걸음을 걸으신 후, 한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일성(一聲)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만천하(滿天下)에 본래부처를 선언(宣言)하심이요, 생명의 존엄(尊嚴)과 천부적(天賦的) 자유를 내보이시어 일체의 중생들을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에서 구제(救濟)하고, 본래의 성품인 참나를 밝혀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현(示現)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佛子)들이 연등(燃燈)을 밝혀 부처님을 맞이하는 이 수승(殊勝)한 인연(因緣)이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대신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가 국민통합으로 회향(回向)하는 공덕(功德)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70년의 분단(分斷)과 대치(對峙)가 대화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到來)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佛敎)는 1,700년간 우리 민족정신문화의 근간(根幹)이었기에 우리 남북한 민족의 유전자에는 불교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참선수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시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眞理)를 알고자 할진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話頭)를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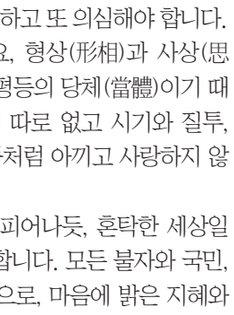
참나는 모든 생명(生命)의 근원이요, 형상(形相)과 사상(思想)의 갈등을 넘어선 상호이해와 자유평등의 당체(當體)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시기와 질투, 갈등과 대립이 없으니, 어찌 남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혼탁한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 그리고 온 인류가 참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마음에 밝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만인(萬人)에게 진리(眞理)의 한 마디를 선사(膳賜)하겠습니다.

장안만리천만호 (長安萬里千萬戶)에
고문처처진석가(鼓門處處眞釋迦)라
마음의 고향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
이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저집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나오시도다.
이러한 좋은 부처님의 진리를 다 같이 잘 받들어 행합시다.

착한 인연 부지런히 짓자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밖을 보면 법신(法身)부처님이요, 안을 보면 자성(自性)부처님이라 했습니다. 맑고 밝은 눈과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심인(心印)을 깨칩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삼밀(三密)을 실천합시다.

오고가는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일상의 진리를 일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서남북이 본래부터 구분 없으며 안팎과 위아래는 분별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강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강에서 바다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자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이니 심인을 밝히고 삼밀을 실천함으로써 평상심을 회복해 불법을 바로 세우면 세간법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오고가는 눈앞의 현상에 집착 말고 이날을 봉축(奉祝)합시다. 본성(本性)을 찾아 자성(自性)을 회복합시다. 철마다 피었다 지고 다시 피는 꽃이라도 꽃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세세생생 돌려나는 것이니 바르고 착한 인연을 부지런히 지어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우리는 본래 마음속에 참 생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평화롭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무한 가능의 존재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참 생명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해탈의 삶이며 열반의 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이런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날이며, 지혜와 자비가 구족한 청정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서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순수 무구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자신을 바로 보며 아낌없이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세계일화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간절한 다짐으로 불자들은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불교를 접하지 않은 국민 여러분들도 하루 한번 소박하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를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만유일체(萬有一體)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보듬어 감싸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는 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면 사회적 동체대비의 실천은 정의로운 분배에 있습니다.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의 인권, 여성과 다문화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강인하게 하고 자비가 우리를 따사롭게 할 것입니다.

세계평화 판문점선언서 시작되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세계평화는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민족에게 이렇게 감격적일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오신날을 그 어느 때 보다 더 의의 있게 봉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희망의 새 소식이 전해져서, 세계평화는 한반도의 한민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판문점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고종의 4천 사암의 주지 교임 전법사와 1만 종도(승니)와 3백만 교도들은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궈낸 '판문점 선언'을 환영지지합니다. 조국강산과 한 겨레가 두 동강이 난 비극의 시대가 끝나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민족화합과 발전을 이룩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민족사의 역사적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우리 태고종도는 일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판문점 선언의 실현'에 특별 기도를 올려서 필히 성취되기를 발원합시다.

태고종도는 지극정성을 다하여 판문점선언의 실현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세계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민족의 위대한 역량과 기량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일류국민이 되도록 부처님께 기도하고 발원합시다.

자타일시 성불도의 길로 나아가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셨으니, 보이는 모든 것이 청정법신이요, 들리는 모든 소리는 가릉빈가의 묘음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곳곳이 연화정토여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 울려 퍼지니 육근이 정토이고 칠정이 보리임을 찬탄합시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 이 땅은 평화의 기운이 넘실거리고 화해와 공존 번영의 서광이 높게 비치고 있습니다. 대립과 반목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조금씩 풀어내며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하나로 돌아가는 오랜 염원의 성취가 싹터 오르니 이야말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무량가피입니다. 산하대지를 무성하게 뒤덮는 푸른 녹음처럼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금수강산을 두루 덮어서 집집마다 웃음소리 나고 마을마다 풍악소리 드높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억겁 번뇌를 녹여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니, 우리가 바로 극락의 주인이요 정토의 백성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생사가 열반의 자리요 번뇌가 곧 보리의 자리임을 사무쳐 깨달아 자타일시 성불도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정진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에서 자비가 움트고 자비로움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자비로운 마음씨, 말씨, 맵시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본심을 좇아서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한반도에도 '평화, 새로운 시작'의 막이 올랐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감동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주변국 정상들의 연쇄 대화국면으로 이어지면서 평화협력의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번영과 상생의 새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굳게 하고 정진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지혜광명으로 국가와 사회, 인류에 평화가 깃들도록 우리도 부처님같이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합시다.

큰 가르침으로 지혜 찾아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괴로움, 세상의 고통을 없애 능히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성(一聲)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吾當安之)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평생을 설법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 평생하신 설법의 핵심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괴로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 모두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일깨워주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황면금선(黃面金仙)께서 하강하신 날입니다. 삼천리금수강산(三千里錦繡江山)에 평화의 소식이 오니, 판문(板門) 도량에서 방광하는 빛은 온 우주를 감싸고 남습니다.

세존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 두루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시며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론 땅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나만이 홀로존귀하도다."

이에 백운병(白雲昺)이 송하기를 "무수(無憂樹) 밑에 거룩한 몸 나시어 일곱 걸음 걸으시니 일이 아주 새로웠네. 서로 만나 제각기 새벽길을 나섰다 하나 간밤부터 나선 사람 있는 줄 모르는가?"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좋은 소식이 오고, 우리 불교에도 밝은 빛이 도래해서 남과 북이 본래 하나 되고 한민족이 세계불교를 견인해 가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하루아침에 근심을 해결하여 금강보좌에 앉으셔서 일체중생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러러 성인의 탄신을 축하하는 등불을 밝힙시다.

한마음 즐거우면 그곳이 천상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찬란한 빛이 누리에 가득하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지혜로써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바른 몸가짐으로 세상을 장엄하라.

한마음 즐거우면 그 자리가 천상이요 성내는 한 순간에 지옥이 전개되네. 한 생각 청정하니 참다운 불제자요 바르게 깨달으면 성불세계 이어지네.

시련과 고통은 진정한 나의 스승이니 진리를 존중하고 진실을 따르라. 게으르지 말고 성실히 일할 것이며 재보를 축적하기보다 가진 복을 나누어라.

행복은 위대한 버림 속에 있느니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도 근심을 더하지 않으며 다툼이 없는 가운데 진정한 평온을 누리라. 부처님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으며 지극한 정성에 무량한 복이 함께 하리라.

한 가르침이라도 열심히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오늘은 참으로 거룩하고 기쁜 날입니다. 고통과 어리석음에 허덕이는 무명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 땅, 사바세계에 사람의 몸으로 나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고통과 어리석음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팔만 사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불자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고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지며, 자리(自利)를 넘어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신심과 끊임없는 용맹정진으로 실천해나갑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법문을 다 안다고 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심이라 할 수 없고 바른 정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따르는 신심과 정진이 있어야 바른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정도(正道)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일심으로 정진토록 합시다. 일체의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진리의 등불을 밝히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명에 덮여 있는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진리의 등불을 밝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등은 지나간 삶 속에서 지었던 자기의 허물에 대한 참회의 등불, 생명의 길을 밝게 열어 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을 켰으면 합니다.

자비광명 온누리에 가득하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성스럽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원력의 실천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과 연민이 곧 자비이며, 부처님은 연민과 자애를 마음의 바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쁨을 나눠 줄 수 있는 자비희사의 삶을 끊임없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심으로 복밭 일구자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되고 남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하면 大福田 곧 복밭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등 밝혀 삼독 토하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어느것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가. 선(善)과 악(惡)은 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가? 춘색은 세상을 덮었는데 지난해 낙엽은 아직도 뒹구는구나. 감추어진 것은 허물이 아니며 드러난 것만 죄로구나 오호라 실상무상(實相無相)이요.

불립문자(不立文字)가 열반묘심(涅槃妙心)이거늘. 봄비에 춘초(春草)가 뇌성(雷聲)을 토하니 불탄일(佛誕日) 등촉(燈燭) 밝혀 삼독(三毒)을 토(吐)하세. 나무아미타불

나부터 닦아 세상을 이롭게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雨寶益生滿虛空(우보익생만허공)
衆生隨器得利益(중생수기득이익)

신라시대 의상 스님 지은 '법성게'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의 비가 가득 내리지만 중생은 자신의 그릇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품을 먼저 닦아야 이로움도 더욱 잘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 자신을 닦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라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우리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는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행복도 내가 만든 내 것이요, 나의 불행도 내가 만든 내 것임을 알고, 자신이 자신의 유일한 안내자라는 진리를 깨우쳐야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허물이 없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훈계하고 제어하여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여 스스로 맑아지면 이 세상은 더불어 맑아져 행복해진다는 솟아오르는 샘물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합시다.

중도와 불이로 세상 맑혀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불교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스스로 깨우쳐서 성불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공부하는 교학과 마음을 깨우치는 선학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철학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이며, 또 하나는 둘이 다르지 않다는 불이(不二)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할때 우리는 보살행을 행하고 성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집과 반목의 옷 벗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부처님은 무명의 중생을 가엽게 여겨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가여운 중생들 곁에 언제나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몸을 나투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존귀함을 잊고 천하고 잊고 천하고 박하게 살아가는 중생이 가여워서 오늘도 부처님은 마음아파 하십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다함께 다시 태어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등불 밝힘, 마음뿐이로다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남과 북, 군사 대립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세상에서 얼싸안고 춤추며 살아보세. 타인에게 널리 베풀고 인격적인 살며 어떠한 고뇌도 견디어 내고 참 삶을 더해 가는 정진(精進). 살면 마음을 비우는 그리고 생각의 실천으로 평화의 등불을 밝힙시다. 등불을 밝힘은! 무엇을 따로 어찌 구하겠는가? 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처님은 온 법계에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佛身充滿於法界(불신충만어법계)
普現一切衆生前(보현일체중생전)
隨緣赴感靡不周(수연부감미불주)
而恒處此菩提座(이항처차보리좌)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 찼으며 항상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 따라 다다라서 두루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여기 보리좌에 계시네.

남북평화 불국정토 발원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 위에 불국정토를 실현코자 지혜의 밝은 등불과 자비의 큰 원력으로 오신 전 인류 정신문화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신 뜻 받들어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배달의 민족인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 속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산가족이 수시로 상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물처럼 중생 환히 비추리

(사)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佛法傳燈大禪宗(불법전등대선종)
宗僧秉燭禪宗風(종승병촉선종풍)
燈傳相續世不滅(등전상속세불멸)
代代流通振祖宗(대대류통진조종)

부처님이 대선종에게 전한 등불 승려들이 불 밝혀 선종의 바람 일으키고, 이어받은 등불이 세세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흐르는 물처럼 중생들에게 환희 비추어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

나 자신을 바로 봅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는 본래 순금인데 욕심이 심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심안이 열려 자기를 바로 보게 됩니다.

본래 갖춘 불성 깨닫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人前爲過(인전위과) 後止不犯(후지불범) 시조시간(是照時間) 여월운소(如月雲消)

이전에 잘못이 있는 사람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사랑과 자비는 과거에 붙들리게 되면 실현하기 힘듭니다. 현재를 직시하는 사람만이 여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깨닫자.

평화 정착 기여하는 불자로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인류의 대광명(大光明)이시며 사생(四生)의 자부(慈父)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지금 우리 한반도는 영원히 풀리지 않던 분단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주창하신 마음이며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편화의 밭을 일구는 역군이 되어서 참다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따라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불자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석가모니불!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뜻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에서 '나'는 석가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개개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방 불자여러분! 우리 모두 석가세존님의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다 함께 부처님으로 새로 태어납시다.

진실한 말이 주는 감동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진실한 말은 첫째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다. 진실한 말은 적은 것이라도 큰 것과 같지만 거짓말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경률이상〉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짓됨 없는 진실한 말을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뱉는 나의 말이 상대방 가슴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한 마디 한 마디에 진심을 담아봅시다.

진리교법 일심 귀의하길

원융교단 대한불교조계산문 무문총림 대법주 보당 스님



부처님 설법의 핵심은 다름 아닌 고통 없고 걸림 없어 자재롭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지 3천여 년이 지나도 인간 중생은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부처님의 교법에 귀 기울이고 부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진리교법에 향하고 가르침에 일심 귀의하여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교법을 봉체하는 길이다.

해탈의 진리에 눈을 뜨자

(사)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물속의 달을 건지려 하지 말고 성성하게 자기의 마음을 굳게 지킨다면 스스로 해탈의 진리에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여인 허공은 높고도 텅 비었으니 지혜의 밝은 달이 휘영청 밝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기 마음의 경지를 통달하기만 한다면 푸른 하늘에 붉은 해가 만리의 허공을 훤하게 비춤과 같고 서늘한 맑은 바람이 온 천지에 가득함과도 같을 것이다.

참회하는 부처님오신날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블 스님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모두가 기쁨과 환희로 이를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모두가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것은 부처님의 삶 자체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행복을 전합시다. 또 그 가르침을 되새겨 반성하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주인공이 됩시다.

참된 진리는 밝고 영영하다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원장 무산 스님



참된 진리란 밝고 소소영영한 것이다. 법신은 상이 없어 텅 비고 비었으므로 망령된 생각과 모든 잡된 견해가 없어서 아주 고요한 경지인 것이므로 이것을 이르기를 부처의 성품이 휘영청 밝아 끝도 가도 없이 하늘에 통한다. 증득해도 증득한 것이 없고 잃어도 잃은 것이 없음이 참된 진리란 밝고 밝으며 항상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비등불 밝혀 탐진치 소멸을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지면, 만물이 살아진다. 만약 부처님의 법을 전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하여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하여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가 가득하여 세상 일이 다 풍요로워 자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광반조하는 삶을 살자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오르고 내림의 두레박 끈을 한 칼로써 끊고 끊는다면 참된 진리의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힐 것이며, 마치 푸른 하늘에 무심히 밝은 달빛이 교교할 때 그 속에서는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어떠한 분별도 없고 사사로움도 없으니, 이런 경지를 이름하야 자기의 성찰을 바로 찾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합시다.

중생 구제 원력 다시 세우자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지금 사회는 그 어는 때보다 갈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이러한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사바세계의 중생 구제를 위한 원력을 다시 세워 부처님오신날을 새롭게 맞이합시다.

법은 뗏목과 같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부처님오신날 경축합시다. 누구도 평화를 침해할 수 없다. 남산 소나무 푸르고 한강 물 유유히 흐른다.

不應取法(불응취법)이며 不應取非法(불응취비법)이니 法尙應捨(법상응사)어든 何況非法(하황비법)이랴.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내가 말한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라. 싯달타 태자가 왕의 자리를 티끌처럼 내려놓으시니 일체 우주가 평화롭고 천지가 태평하도다.

대광명 부처로 거듭나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태어날 때는 무명의 업식으로 태어나지만 부처의 근본 종지는 누구나 그대로 여여하여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깨달으면 법신의 기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부처의 종자가 있습니다. 이를 덮고 있는 무명을 걷어내면 대광명의 부처로 다시금 나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계에도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보다 밝은 미래가 열리길 바랍니다.

매일이 부처님오신날처럼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구제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지극한 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삶은 유한하기에 삶이라 부릅니다. 삶이 무한하다면 죽음도 없기에 우리는 이를 삶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가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부처님오신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 친지, 도반…. 내 주변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여기며 매일 진리를 향해 정진합시다.

함께 사회 아픔 치유하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스님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어루만지시고 모두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지혜로 어둠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을 때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진정으로 나툴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사회 아픔이 치유되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합시다.

佛緣을 감사히 여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得生人道難(득생인도난) 生壽亦難得(생수역난득) 世間有佛難(세간유불난) 佛法難得聞(불법난득문)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도 생명을 유지하기 또한 어렵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기 어렵고 부처님이 계셔도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다.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중에서도 불자가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 참 불자로 거듭납시다.

지혜와 자비의 봉축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입니다. 이는 불교정신을 짧게 요약한 '상구보리 하화중생' 으로 해석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 자비 없는 지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로 지혜를 증득하고, 내 주위 삶에 지쳐버린 이웃을 위해 손길을 내밉시다.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선근공덕을 쌓는 인연이야말로 값진 삶이 됩니다.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환희의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올해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62년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중년신사가 주문할 때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하고, 자신이 만나야 하는 손님에게 존대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분별심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외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아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제자 아난존자는 후일을 걱정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을 설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많은 불자들이 사찰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무언가를 성취하게끔 부처님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은 아닌지 '자등명 법등명' 으로 다시 살펴봅시다.

국민 희망 키우는 불교로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국민들에게 불교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교가 이제는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가풍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행가풍 회복에 있어서는 승단의 각 구성원 각자가 치열한 자기반성과 비판세력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수행정신을 다시 세워 한국불교가 새롭게 미래를 여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연꽃 묻기 전에 연꽃 되라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깨달은 사람은 바람소리 물소리가 모두 부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없고 수행인은 자기의 팔식(八識)이 청정해야 하며 인간은 본래 무일물(本來無一物)인데 팔식의 무명에 걸려 여래지(如來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으며 연꽃을 묻기 전에 연꽃이 되고 연잎을 묻기 전에 연 잎이 되라 연꽃이란 건강한 정신이요 연잎이란 건강한 육체가 될 것이다.

참된 마음 근원 찾아가자

(사)대불교조계종 이사장 월성 스님



무심으로써 정신을 수양하고 무념으로써 안정을 얻어 한가롭고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서 본래의 참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모름지기 마음의 밭에다 알음알이인 식의 종자를 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이치란? 평등하고 또 평등하여 아무런 분별도 나지 않는 것이 곧 부처의 마음인 것이므로 마음은 지극히 맑고 맑기 때문에 이 자리를 청정법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평등 성품에 대소분별 없다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불교의 진리는 생사해탈을 말합니다. 한가득한 깨달음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커다란 진리 앞에는 대소분별이 없습니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참 공부이니, 이 마음의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미혹한 중생도 깨달은 선지식도, 진리의 앞에는 구분이 없는 도반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민국이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혜 등불로 무명 밝히세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무명을 밝힌 지혜의 등불, 부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타올랐으니, 이제 우리는 부처님 삶과 말씀을 의지해 다시 이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무명으로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분별이 만든 것입니다.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짐하는 서원 속에 부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수행자 본분 실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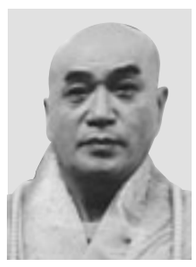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이사장 산수 스님



수행자의 도리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일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도리에 어긋난 행으로 인하여 중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수행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으리오. 우리는 입으로 진리의 참뜻을 전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하는 이들이 진실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만듭시다

(사)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



본래(本來) 시법평등(是法平等) 무유고하(無有高下)라.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것은 '나' 라는 아만(我慢)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相)을 떠난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세상이 열리니 이것을 놓치지 말고 늘 깨어있음으로 정진하여 차별 없는 평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생 점검의 계기로 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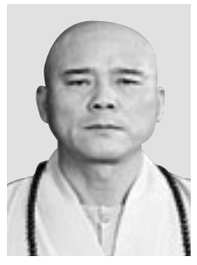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스님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삶에서 얼마만큼 진실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 있어서는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법신은 은현하여 오고감이 없이 온 누리의 광명이요 언제나 본체의 대기대용을 원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부처님오신날 해 봅시다.

중생구제 참뜻 깨닫자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아기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당안지 일체개고' 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귀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주인공으로 존재해야한다는 최고의 선언입니다. 2천만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구제의 참뜻을 오신 의미를 깨달아 본래부터 갖추어진 우리 안의 지혜와 자비가 꽃처럼 피어나 나와 이웃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서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가치관 확립을

(사)대한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성종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갖가지 병폐를 극복하고,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의 훈풍과 함께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뢰의 사회 구축하자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우리 모두는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똑같은 존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우주공간속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부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주셨는데 우리는 불신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부터 찾아야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해 가야할 것이다.

평화의 한반도로 만들자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2만여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 정진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이 이어지고 있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봉행하며 새롭게 거듭나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정견의 수행과 정진으로써 몸소 자비행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됩시다.

평화정토 위한 마음등불 밝혀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사회 전반에 평화의 분위기가 만연한 반면,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종교와 세대를 넘어 오늘날 이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불보살의 가피로 남북이 통일되고, 남북통일이 세계평화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극락정토가 실현되기를 등불을 밝히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의 생일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위해 원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부처님만 이런 사명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로서 이 세상에 왔으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사실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의 존귀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너와 내 마음이 부처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이사장 윤기순



너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나의 마음 또한 부처이니 부처와 부처가 서로 상대하였으니 다시 어떤 마음이 따로 있겠는가?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물에 잠겨도 옷은 젖지 않는 것과 같고 대나무 그림자가 집 뜰을 쓸어도 티끌은 쓸어지지 않는 것과도 같고 그러므로 도(道)란?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현묘(玄妙)한 도리인 것이다.

불교 진리는 인과 법칙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중앙신도회장 윤을암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인과의 이치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요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말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라.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초대임원
이 사 장 동헌 완규
이 사 고암 상언. 자운 성우. 동암 성수.
의탁 소천. 퇴옹 성철. 회암.
서산 보경. 신암 도원
감 사 금하 광덕. 활산 성수
사무국장 불심 도문

현재임원
이 사 불심 도문. 봉안 효경. 서해 흥교.
선효 성학. 장산 도업. 서주 태원.
금아 혜국. 장산 성춘. 무심 보광.
벽암 지홍. 월천 혜총
감 사 월암 덕상.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 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 장 지암
법안정사 종무실장 지선 안향호
대 각 회 사무국장 보관 김형문.
간 사 정안성 장유경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혜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 765-2701 | Fax. (02) 741-1385 | daegakhoe@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조 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 전화 : 02)419-6806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주지 이월장



총 무 정자운
재 무 박대거
부 전 김탄성
거사부전 황기환
신도회장 김수웅

사부대중 일동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 (우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TEL 3460-5300. FAX 3460-5200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 철 야 용맹정진	·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 재가불자 참선결제	· 동안거 결제 음.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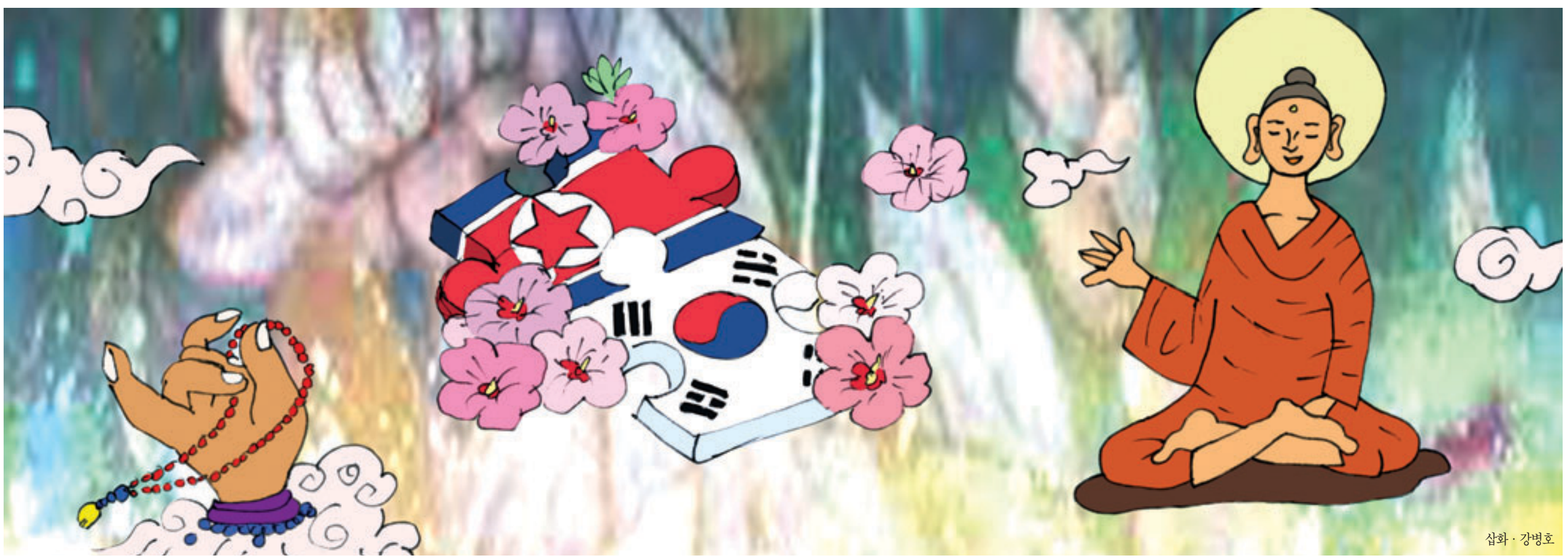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참불선원
WORLD MEDITATION CENTER CHAMBULSEONWON

사부대중 일동

"세계명상대전 개최 도량"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수안빌딩 2층 ~ 4층





삽화 · 강병호

‘민족苦’ 해소하는 ‘불교’ 되자

한반도 평화 불교에 답 있다

프롤로그

한반도에 평화의 서광이 비추고 있다. 저 멀리 제주도와 마라도 남쪽 끝에서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끝자락까지 평화의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다. 우리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기대는 바로 ‘한반도 평화’다. 한국전쟁이 휴전이나 정전이 아닌 종전을 통해 전쟁을 끝내고 서로 상생하는 평화 체제가 이뤄지기를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평화 불사, 통일 불사를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보자. 〈편집자 주〉

한국사회 병폐, ‘민족고’서 비롯돼

우리 사회와 국가의 고통을 면밀히 보면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이는 바로 ‘민족 苦’인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부처이고 졸리운 사람에게는 잠재워 주는 것이 부처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부처다. 우리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부처님 법은 ‘평화’와 ‘통일’이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맺듯, 북한 또한 미국, 일본과 국교를 맺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제 한반도의 눈과 귀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몰려있다. 가장 큰 기대는 비핵화와 미사일 감축일 것이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비는 43조 가량이 된다고 한다. 북한이 1조 가량이다. 이 자원을 ‘민족고’ 해결에서 ‘민생고’ 해결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도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 불교계가 앞서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그동안 우리 민족사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불교의 활약이 기대된다. 불교는 서기 392년 고구려 소수림왕 당시 공인이 됐지만, 남방전래설에 따르면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민간에 많이 퍼져 있었다. 한마디로 2000년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불교는 이후 1000년을 국교로 지정돼 융성한 한국종교 중 종가라 할 수 있다.

불교는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형성했다. 민족의 가치관이자 관습, 전통, 생활이 바로 불교였다. 현재도 문화유산 중 많은 부분을 불교문화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 사찰은 70여개로 조계종에서 신계사 복원을 했으며, 개성 영통사 등도 복원됐다. 북한 정부도 안변 서광사를 복원했다.

불교는 남북 공히 가장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인 것이다. 북한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남북분단이 사회 고통 양산

부처님 법 ‘통일’ · ‘평화’ 돼야

불교는 신앙이자 민족사상

구현 위해 불자 힘 모아야

나선 종교이자, 고락을 함께한 종교로 남아있다. 우리 민족이 무궁화처럼 인욕하는 힘이 바로 불교에서 나왔다.

특히 북한에서는 대중불교를 펼친 원효 스님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이웃종교 중 기독교는 선교사들을 앞세워 들어 온 제국주의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계가 세계적인 구호기구를 앞세워 북한과의 민간교류에 물량공세 퍼붓고는 있지만, 불교에 보다 큰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남북불교계는 현재 같은 법회의식을 띄고 있다. 교리 또한 같다. 이는 조금만 교류가 된다면 함께 융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교계가 먼저 화합과 소통에 앞장선다면 민족 화합과 통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내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다.

동질성 회복이 아닌 동질성 확인

그런 면에서 남북 불교교류는 북한과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만 보였던 북핵 문제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결 될 수 있게 된 것은 스포츠 고유의 탈 정치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는 종교교류 또한 마찬가지다.

정치이념 및 사회제도의 차이를 떠나 함께 땀 흘리고, 상호 교감하다 보면, 서로를 포용하고 불신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된다. 인연과 연기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나와 우리가 아니면 적이라는 유일신 사상에 대응해 호혜평등으로 상호 행복을 추구하는 기반이 된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민간교류 협력에 최일선에서 앞장서야 할 당위성과 책무가 있다.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한국종교 중 역사가 짧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경우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특히 그러하다.

기독교계는 현재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지원, 조중 접경지역에서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통일사역자 양성 등에 나서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또한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또 다른 통일 세력으로 나설 것이다.

불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이 크다. 지금도 부족하다.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현시대에 안살림에만 전전긍긍한다면 민족고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서 출발

한반도 평화체제의 물꼬가 터졌다면 이제 불교로 남북교류의 틀을 확대해보면 어떨까. 조선불교도연맹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연등회에 참여하고, 평양에서 남북공동기원법회가 열리는 그림 말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남북 불자들이 소통하는 모습은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가 지니고 있는 북한지역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북한지역 사찰 복원, 각종 인도적 지원과 교육 등 과제를 차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통일은 역사에서 찾아보면 외부 어느 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민족,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이 의기투합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이제 통일불사에는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할 때이다.

‘아름드리 큰 나무도 터럭 끝만한 씨앗에서 싹이 튼다’는 말이 있다.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가 건설의 원대한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의 실천에 달려있다. 1000만 불자가 자각을 통해 동참했을 때 한반도 평화의 큰 힘이, 그리고 새로운 빛이 보일 것이다.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1998년 평불협의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개원식.



2006년 민추본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2008년 묘향산 보현사서 열린 남북합동법회.

남북 불교교류 동질성 회복 아닌 '확인'

한반도 평화 불교에 답 있다

남북불교교류 역사와 발전 방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이른바 평화의 시대 도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남북민간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불교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 불교교류는 남북 문제에 있어 민족의 동질성 확인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새로운 남북불교교류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북불교교류, 1988년부터 시작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 분야에서 불교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로 동질성 회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

불교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가 처음 가시화된 것은 1988년부터다. 1988년 7월 미국 시민권자인 대원 스님과 1989년 6월 법타 스님, 도안 스님 등이 한국 국적으로 처음 평양을 방문한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 속에 종교계의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차츰 교류 폭이 넓어진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창립 이후 대북지원이 진행됐다.

1995년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지역 수해복구를 위한 불교계의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북한수재민돕기 범종단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JTS,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불교운동본부('좋은 벗들'로 개명),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민족화합불교추진위로 개명)가 창립돼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신계사 · 영통사 복원 등 성과 남겨

불교 NGO단체들의 교류 외에 불교 각 종단의 직접적인 교류도 이어졌다. 종단 차원으로는 1999년 진각종 대표단의 방북이 큰 기점이 됐다. 2000년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친본부가 설립돼 본격적인 종단 차원의 교류가 진행된다.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 등 큰 규모의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됐다. 2002년 이후 남북불교 간의 교류는 기존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더해 신계사, 영통사 복원불사, 불교문화재 공동 조사 · 발굴 및 복원, 59개 사찰에 대한 단청불사 지원이 진행된다.

2003년과 2004년에 시작된 북한사찰의 복원불사는 2005년 10월에 개성 영통사, 2007년 10월에 금강산 신계사의 낙성식을 각각 가졌다.

정치관계 종속 한계 못 벗어나

문제는 남북불교교류가 정치관계에 종속된 한계를 못벗어 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1997년부터 이뤄진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발원문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현재 남북불교계가 공동발원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1995년 북한 홍수피해 당시 진행된 인도적 지원으로 쌓아올린 상호 신뢰가 있었다.

사찰 복원 · 의식 통일 등
북한 불교 복원에 중점 둬
먹거리 등 인도적 자원 중심

북한 사회 개방 변화 맞춰
문화 · 의료 · 교육 진출 과제
"근대화 과오 반복 말아야"

이후에도 남북공동발원문은 지속 발표됐다. 2008년 금강산에서의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관광중단과 대화 단절 속에서도 발표됐을 정도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이어진 남북 경색국면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가 중단됐다.

2015년 공동발원문 채택 후 다시 중단된 공동발원문 채택은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 2018년 다시 발표된다. 이밖에 다양한 교류 활동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중단되고 있다.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합동법회도 복원 1주년인 2008년 행사는 금강산 관광 중단 여파로 무산됐으며, 2016년 복원 9주년 행사 또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에 이은 대북제재 등으로 무산됐다. 남북합동법회가 성사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8~50명 수준의 대표단이 신계사를 찾았다.

박재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은 "남북불교교류가 급물살을 타더라도 갑작스런 외부 요인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계사 복원 또한 완공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지만 그동안 교류가 중단되며 사실상 방치됐다"고 말했다.

정기 교류 거점 마련 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남북불교교류는 2010년 1월 남측 불교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며 조금씩 남북불교교류의 물꼬가 트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전문가들은 정세에 영향받지 않는 불교계만의 교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정기 교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등에 정기적인 교류거점을 확보하는 등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남북불교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 세계불교도우호대회(WFB)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불교계는 2011년 여수엑스포 기간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당시 북한 스님들의 참석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다르다. 북한 조불련은 최근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2018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에 조불련 청년위원회 명의의 연대사를 보냈다. WFB 등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이를 정기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은 "양국이 오가기 힘들다면 중국 등지에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며 "남북 정치 국면과 별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인도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교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 문화 분야로 교류 확대

2014년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1단계 금강산 관광 재개시 신계사 운영 정상화, 2단계 2015년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 3단계 2016년 개성지역 사찰 불사 등이 있다.

이중 평양불교문화회관 건립은 불교가 단순히 문화재 복원 등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포교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최근 교수불자연합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조불련 전국신도회는 연대사와 축사를 두차례 보냈다. 여기에는 문화포교협력과 함께 공동 연구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분 협력사례로는 2005년 북관대첩비 환수가 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방치됐던 함경도 의병 전승 기념비인 북관대첩비 반환에 남북이 함께 노력한 사례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세워진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탈된 것이었다. 당시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초산 스님을 중심으로 북관대첩비 환국 범민족운동본부를 구성, 조불련 측과도 긴밀한 연대를 통해 환수가 진행됐다. 이후 문화재청과 통일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논의와 전시 후 북한에 전달됐다.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남북 불교문화재 및 불교사 연구 등 공동학술대회를 비롯해 신앙 및 풍습 조사 등 학술적으로도 소통할 부분이 많다.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이뤄질 수 잇는 부분"이라며 "조불련 측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남북불교교류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교류 위한 기금 조성 필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남북 불교교류를 위한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 현재 조계종은 민추본을 단일 창구로 남북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 · 회주 성타
관장 종상 / 원장 덕민 / 총무 종천 / 재무 성심 / 호법 성담 / 신도회장 이영숙
주지 종우 / 부주지 정문 / 교무 현학 / 포교 성요 / 사서 정빈
부설기관
• 불국사 템플스테이 ☎ 054)746-0983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 (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중일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부처님오신날





2010년 인천항 북한 수해 JTS긴급구호 선적식.



2014년 북한아동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2017년 민추본 DMZ 통일열차 순례.

교류효과 배가 위한 범종단 협력 필요

예산 편성과 구미 도리사 인근 경작지에 통일쌀을 심어 쌀 수매 이익 일부분을 대북 인도지원과 자원으로 활용해 왔다. 천태종 등 불교 각 종단도 각각의 기관 예산 편성을 통해 남북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원을 적립하고 있다. 현재 약 14조원이 조성된 상태다. 불교계의 경우 기금 조성이 전무하다. 당장의 통일 종책을 추진해 갈 재원 마련부터 과제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계가 북한과의 교류에서 주력하고 있는 단청 등 문화재 복원, 사찰 조사 및 복원 등의 사업은 크게 보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외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교와 전법과 의식 통일과 같은 불교 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불교계 통일기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불교계 과제는?

이외에도 불교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그동안 남북불교교류와 협력의 전개과정을 보면 먼저 '금강산'과 평양 일대로 한정된 교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남북 교류협력이 진행되며 개성교구, 평양교구 등 주요 거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대부분의 교류협력 사업이 서울 중심으로 진행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민추본은 2014년 12월 부산지역본부를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남북불교계의 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이어진 결과물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과 범종단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은 "종단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하더라도 범불교적인 동참의 분위기를 조성해갈 필요가 있다"며 "가장 먼저 홍보사업을 통해 불자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웃종교계는?

실리 추구 북한 변화에 진출 '잰걸음'

기독교 과기대 이은 교육협력
순복음교회 평양에 병원 건립
원불교 태양광 · 숲조성 사업

4 · 2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종교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북한사회에서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 북한사회가 실리 추구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 추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체제의 변동없이 경제체제만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실리 추구의 경제 협상이 사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른다.

남북교류에서 상호 실리를 모색한 경우는 이웃종교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통일교의 경우 평화자동차 합영사업을 진행했다. 통일교 평화자동차와 북한 기계공업전문회사인 조선련봉총회사가 1999년 4월 북한 남포에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출자해 만든 평화자동차총회사가 그것이다. 평화자동차는 2002년 2월 연 1만대 조립생산 가능한 공장을 준공한 뒤 생산라인을 가동했지만, 2013년 3월 북한에 정밀 기계를 철수했다. 하지만 교류 재개시 재진입이 유력하다.

기독교계는 연변과기대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평양에도 과학기술대 설립을 논의 중으로 교육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17년 추진한 '8.15 광복절 기념 남북 공동 기도회'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의회'의 평양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 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남북공동준비위원회 조직도 논의 중이다.


기독교계가 설립한 연변과학기술대학.

개신교계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조용기심장전문병원은 순복음교회가 2007년부터 평양 건립을 추진 중인 곳으로 260병상 규모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공사 부도에 이어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상태다. 순복음교회는 4월 경 북측과 병원 건립 재개를 합의한 상태로 병원 외 의과대 기숙사, 강의실 등도 함께 건립하는 것을 모색 중이다.

가톨릭계는 북한 장충성당 복원을 진행한다. 2015년 천주교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 소속의 대표단이 방북해 복원을 논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남측 사제가 장충성당에 파견돼 미사를 봉헌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원불교는 교리 상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미 평양교구가 설립된 상태다. 올해 2005년부터 추진된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을 재개하며 교정원 산하 '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류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통일교가 합작투자한 평화자동차.

원불교는 원불교 유적지 발굴 및 개성교당 복원,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숲 조성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평불협의 금강국수공장과 JTS 영양식 가공공장 등 생산 지원도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었다"며 "조불련과 북한의 변화에 맞춰 남북한 합영법, 합작법 등 법적 보상 아래 불교계가 교류 기업을 세워 상호 실리를 함께 모색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때 자연스러운 교세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불교교류사

1989년 법타 스님 분단 후 첫 방북
1997년 천태종 개성 영통사 발굴사업
1998년 평화통일불교협회, 황해도 금강국수공장 완공
1999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금강산 성지순례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진각종, 불교계 종단 원장급으로 첫 방북
2000년 천태종, 방북 후 개성 영통사 복원 논의
북한, 남한불교계와 의식 통일 실시
2001년 평양 광법사서 남북공동법회
부처님오신날 동시법회 개최 및 공동발원문 채택, 신계사 복원불사 논의
2002년 서울에서 열린 8 · 15 기념행사에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 참석
2003년 북한 59개 사찰 단청 보수 시작, 불교계에서 지원
서울 봉은사 남북합동법회에 조불련 대표 참석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본격 추진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 추진
2004년 인천에서 열린 8 · 15 기념행사에 조불련 대표 참석,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
2005년 개성 영통사 낙성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과 회담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례사 첫 합동법회
2006년 광주에서 열린 6 · 15 기념행사에 조불련 대표 참석
2007년 조계종 금강산 순례
2010년 천안암 피습 사건으로 남북 경색 속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비롯한 대표단 평양 방문
2014년 민추본 등 조불련 측과 불교경협 논의
임진각에서 도담도담 선포식
2015년 불교통일담론 개발사업, 불교통일선언 준비
2016년 민추본, 국제적십자 통해 북한 홍수피해 기금 지원
2018년 판문점 선언 후 남북공동발원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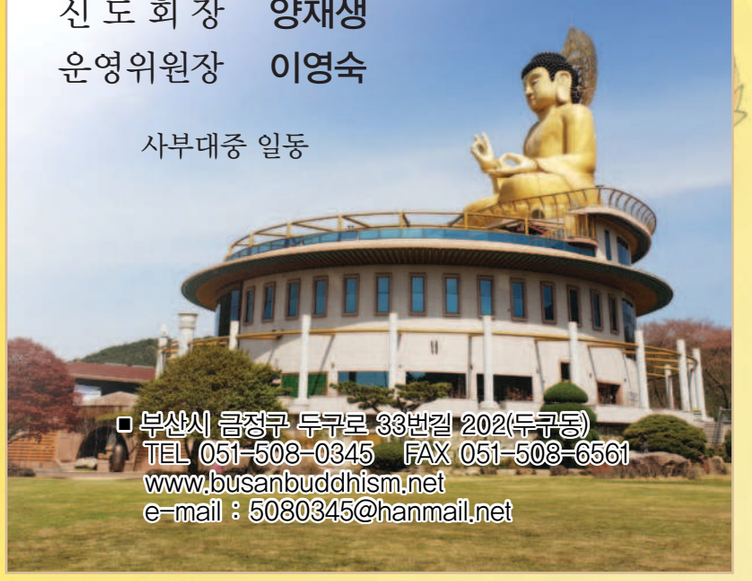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사)한나래교육재단
(사)한나래문화재단
HAN NARAE CULTURE CONSORTIUM
한나래 평생교육원
HANNARAE CULTURAL EDUCATION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사)한나래문화재단

수행과 교육 문화의
전법도량

주 지 深 山
신도회장 양재생
운영위원장 이영숙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두구동)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net
e-mail : 5080345@hanmail.net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경호(법성사)
성비(영수암) 법공(칠보정사)
회 장 성문(선광사)
수석부회장 성림(관음사)
부 회 장 지관(약수암) 대둔(용운사) 성도(옥천사)
총무국장 법경(광명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사회국장 향공(견강암)
감 사 진각(홍덕암) 혜산(봉덕사)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원일동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이상갑 회장 외 회원일동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 (선광사)
TEL 051)303-4848

울산유일의
영구봉안 납 골 당

정토사 극락원

도심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의장등록 제0362069 정토사 유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17번길 15 (옥동)
TEL 052)258-9944, 212-7000

2018 복합문화공간
KUmuda



쿠무다가
달라집니다

2018년 쿠무다 vision

총 8층 규모 연면적 600평
– 부지 확보 완료
– 건축설계 완료
– 후원 접수 중
(2017년 12월 현재)

8층 휴휴정
7층 스님들이 참가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6층 복합문화학교 (교육원)
5층 법당 / 기도와 수행을 할 수 있는 신행 공간 (대운사 법당 · 명상센터 · 공연장)
F층 스님들을 위한 치과치료 센터 운영
3층 레스토랑 /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정통 레스토랑 쉐프, 음식아카데미 운영
2층 쿠무다 /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 바리스타 파띠쉐 아카데미 운영
1층 주차장
지하 주차장

cafe KUmuda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62
t. 051-701-7559

◀ 새롭게 건립될 쿠무다 신축 조감도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백옥 관음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고촌 고불사

▶ 매월 33 관음성지순례 봉행
▶ 탑돌이 걷기명상 힐링도량

회 주 산 해
주 지 해 륜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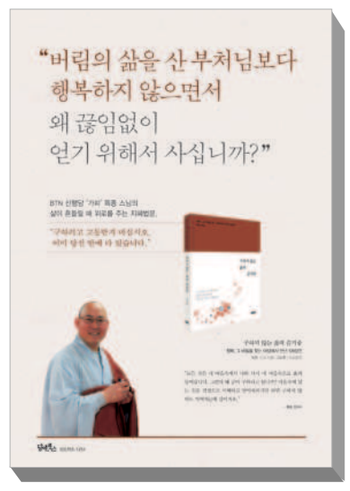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안평역 3번 출구 700m
TEL 051)721-2927
법당문의 010-3891-2137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 광 명 불 교 대 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대한불교조계종 지금선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길 20, 서주빌딩 5층
TEL 02)522-7772 FAX 02)522-3666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약 수 사

주 지 혜 우

사부대중 일동

■ 부산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
TEL 051)291-9681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황령산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TEL 051)635-3744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TEL 055)342-6639 / 345-9900 FAX 055)346-2179

한반도 평화, 불교에 답 있다

미리 가 본 남북불교통일… 가상시나리오

남북정상이 두 손을 맞잡는 순간 통일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꿈이 아니었다. 많은 국민들은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겠구나' 를 생각하게 됐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날의 감동을 되살리고 중단된 통일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라면서 가상으로 '통일시대' 를 열어봤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는 그날,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노덕현 기자

1

1080명 불자 금강산 성지순례

108기도회, 신계사에 평화의불 봉안
각 종단 성지순례로 통행 자유 물꼬

2020년 5월 108산사순례기도회를 비롯해 불자 1080명이 금강산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2010년에도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를 추진한 바 있다.

금강산 신계사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실된 사찰로 조계종과 조불련이 지난 2001년 공동 학술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낙성법회를 봉행한 남북불교교류의 상징이다.

회주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이들은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해 온 평화의불을 신계사에 봉안한다.

이런 움직임을 시작으로 조계종 등 각 종단 차원에서도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평양에 위치한 광법사와 금강산 신계사, 묘향산 보현사, 개성 영통사 등에서도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전국 불자들이 동참함에 따라 본격적인 3통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금강산 성지순례 봉행

2

평양에 불교문화회관 낙성



평양 문화회관 및 불교병원

개성 · 평양에 불교병원도 건립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 제공

2022년 5월, 평양 대동강변에는 불교문화회관이 낙성된다. 총 100억여원의 재원이 소요된 회관 불사에는 전국불자들이 모두 동참했다.

2014년부터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계획에 따르면 불교문화회관이 자리한 곳은 평양 신도심이 되는 곳이다. 평양불교문화회관은 단순한 회관이 아니라, 총 4000여 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다양한 콘서트, 뮤지컬, 전시전 등이 진행되고 지하 교육관에서는 불교 교리 교육을 비롯해 각종 신행 상담,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관련 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개성과 평양에는 불교병원도 건립된다. 불교병원은 북한 주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유일한 병원으로 평가 받는다.

5

남과 북이 하나된 WFB

사회통합과 화합 메시지 전달



WFB에서 화합하는 남북불교계

2037년 6월 서울. 20년 만에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불련 대표스님들이 함께한다. 그동안 종교계 여성인권, 사회 소수자 대변 등 굵직한 주제로 진행됐던 포럼도 대회 취지에 맞게 '갈등해소와 화합에 대한 종교계 기여' 로 정해진다.

남북 화합의 상징이 된 한국불교계의 활동에 다양한 불교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삽화 · 박구원

3

남북이 힘모아 문화재 환수

남북 · 일본의 친선 우호 증진
문화재 보호 의식 높아져



불법반출된 북한지역 불교문화재 환수에 남측 스님, 문화재 전문가와 북측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환수를 이뤄내는 모습.

2025년 4월, 일본의 한 경매에는 한 사찰 탱화가 매물로 올라온다. 이는 북한지역 유명 사찰에 있었던 탱화로 밝혀진 상태. 반출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수에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 환수한 북관대첩비가 반환된지 20년이 되는 해, 이런 상황을 접한 불자들이 힘을 모은다.

경매에서 구입을 하기 위한 기금 모연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현재 소유자인 일본사찰을 설득하는 남북불교계의 노력도 이어진다. 몇 달간의 설득 끝에, 일본사찰 측은 무상 기증을 결정한다. 남북불교계는 일본사찰에 친선우호의 상징으로 남북불자들이 함께 만든 다른 탱화를 선물한다.

이어 서울 조계사에서는 이 탱화를 건 법회가 열리고,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1달간 이 탱화와 북한의 문화재를 함께 소개하는 전시전이 진행된다. 1달 후 이 탱화는 본래 소장처인 북한사찰로 보내져 봉안된다.

4

임진각서 연등회 개회식

남북 마음의 철조망 없앤
남북 종단 제등행렬 눈길



개성과 서울을 잇는 2030년 연등회 축제가 열리고,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제등행렬이 이뤄지는 모습.

마침내 그날이 왔다. 2030년 5월 반세기가 지나도록 한반도를 옭아 맸던 남북 분단의 현장, DMZ에서 진정한 마음의 철조망이 걷히는 날이다. 아직 통일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양국 정부의 이동과 교류의 자유 방침에 따라 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분단 종식을 알리는 철조망이 사라진 상태, 때마침 다가온 부처님오신날이다. 여기에 맞춰 임진각 평화공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에 기여해 온 민족 전통문화축제인 연등회가 열린 것이다.

평화공원에서의 어울림마당봉축위원장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요식이 진행됐다. 1년동안 함께 준비해온 남북연희단은 평화를 기원하는 율동을 선보인다.

이어 불자들은 판문점으로 이동,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장엄등을 앞세우고, 북측 북한평화박물관까지 행진한다. 길 양편에는 북한주민들이 나와 한반도기와 불기를 흔들며 남측 불자들의 행진을 반긴다.



전문가 제언

한반도 평화에 불교에 답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북한 비핵화 등 아직 남은 과제는 많지만 서로를 적대시했던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 긍정적인 태도로 서로 다가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남은 4자 회담 등 과정이 있지만 제2개성공단,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짧게는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해지며 길게는 북한사회 전반의 개방까지도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는 어떤 방향으로 남북불교교류를 진행하며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불교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동질성 향상, 불교계 나서야”

무원 스님 前개성 영통사 복원단장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과 단청 복원사업에서 단장을 맡았던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은 남북 불교계의 동질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원 스님은 먼저 장기적으로 청소년과 아동 교육 분야에서 불교계가 동질성 향상을 위한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원 스님은 “실리적인 혜택 외에도 결국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불교에 대한 인식 등이 미래세대에 높아져야 불교의 미래도, 민족의 미래도 밝아진다”며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교류가 기성세대간 교류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남북한 불자 청소년 연합캠프를 시작으로 북한이 더욱 개방된다면 북한 사찰 템플스테이, 북한 청소년 심성 교육 등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 질 수 있는 자리를 불교계가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 전반에 동질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또 “남북 불교의식의 공동정리와 함께 남북 불교대사전 등 불교 내적인 정비 작업도 필요하다”며 “먼저 한국불교 내에 범불교적인 포럼을 통해 이러한 정리 작업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사찰들이 기본적인 법회의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 복원 당시 사물, 법구 등이 굉장히 낡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방 기조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의 종교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기에 북한 사찰에서 법회와 행사를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인프라 구축을 남한 사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성공하기를 국민과함께 기원한다”면서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원력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北내 조불련 위상 강화 중요”

이금순 통일교육원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통일교육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민간차원의 남북 간 교류협력은 당국 간 정치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교계를 포함하여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국 차원에서의 화해와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위원은 이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내부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불교계가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선임위원은 불교계가 그동안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추진한 교류 협력 사업에 주목하며 북한 내에서 조불련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는데 한국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위원은 “조불련과의 사업은 남북불교계가 신뢰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여 왔다. 이제는 북한의 변화를 감안하여 불교계가 북한과의 새로운 협력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불교계 협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도 조불련과 함께 남북 불교계가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무엇이 있을까.

이 선임위원은 먼저 각 종단의 대북창구를 담당해온 기구들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선임위원은 일반 불자대중들의 동참을 위해 매일 모든 사찰에서 예불 때마다 올리는 ‘통일’에 대한 서원을 진행하는 등 생활 속 실천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기금 조성에 종단 나서야”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우선 남북관계의 정황 변화에 주목했다. 고 교수는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대화 국면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65년간 유지돼 온 정전협정질서에서 새로운 평화의 체계로 역사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패러다임의 교체기”라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나선 것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문화복지’ 분야에 주목했다. 고 교수는 “북한 지역도 도심사찰보다 산중 사찰이 많은 상황이다. 사찰에서 포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교문화원과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불교계가 더 긴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종교활동을 내세우기보다는 문화활동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특히 불교계의 의료와 교육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고 교수는 “의료분야는 동국대 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다. 평양에 불교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추진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교수는 “사실 매년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종단 내에서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없는 데 기인한다. 지금까지도 그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며 “종단이 지금이라도 확고한 의지로 기금 조성 등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평화 정착은 남과 북이 하나의 시장,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한반도 생활공동체가 됨을 의미한다. 불자 대중들의 작은 관심 하나 하나가 이 땅에 평화를 정착하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힘이 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사찰별 北포교 비전 세우자”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그동안 남북간의 이념대결 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비적대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진단하며 “이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변한 만큼 협력 교류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정세변화가 급격히 이뤄지면 통일 한국까지 염두에 둔 계획 하에 불교계가 움직여야 한다. 평화체제가 공고해지고 서로 자치를 인정하는 체계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의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도움이었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들을 불교신자로 끌어 올 수 있어야 한다. 북한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북한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다양한 협력 관계를 다져야 이뤄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원력이 있는 스님들부터 먼저 뭉치고, 이를 불자대중에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사찰별로 ‘개성 포교당 건립’ ‘마하연 복원’ 등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신도대중과 공유해 재정 확보부터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계가 기독교계에 밀려 ‘실기(失期)’한 역사를 들며, 북한 개방 국면에서 이웃종교계에 비해 더딘 접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교수는 “이웃종교에 비해 미약한 도심포교, 청년층에 대한 뒤늦은 접근 등 한국근대화 과정에서 불교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력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은 생활 속 마음공부를 통해
나와 가족, 사회와 세계가 공생하는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 가는 생활 참선 수행도량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팩스 (051)403-1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부산불교교육대학

37년 전통의 전국 최초, 최고의 명품교육

하반기 합동입학식 : 2018년 9월 6일(목) 오후7시

- 기초교리학과 (52기, 6개월) 불교기초 핵심교리 중심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강의
- 불교문화포교사 자격증 (3기, 6개월) 사찰 문화재 중심으로 시청각 강의
- 불교풍수학과 (6개월) 이론과 현장체험 병행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정사 주지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 졸업생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 O/T 5층(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전화 (051) 711-0700 팩스 (051) 711-0703

관음기도염불소리 끊이지 않는

관음기도 영험도량 천태종 삼광사

게으른 자여 성불을 바라는가? - 상월원각 대조사

주지 **세운 스님** 총무 성해 스님 교무 도각 스님 재무 무성 스님 노전 덕련 스님
사부대중 일동 합장

민족화합 · 북자유평화통일 기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5월 22일(화) 오전 11시

정기법회
매월 1일, 2일 오전 11시

연등축제
4월 29일 ~ 5월 22일

일요정기법회
매월 **세번째 일요일** 오전 11시

어울림콘서트
5월 19일 ~ 21일 매일 저녁 7시 30분
마하연실내악 / 비보이 / 백제가야금연주단 / 재즈트리오J.J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 051)808-7111~6 FAX. 051)803-1332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향기로운 인연 향기로운 세상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
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외
회원스님 일동

기장군불교연합신도회
이재순 회장 외 회원일동 합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 051)727-2392~3 Fax 051)727-2394

대한불교조계종

佛母山 聖住寺

회주 흥교 스님
주지 원종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성주사 템플스테이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 (천선동 102)
TEL 055) 262-0108

봄비도 장엄등 되어 세상 비추네

불기 2562년 연등회

특별취재팀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동국대와 종로 일원에서 열렸다. 12일 열린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회향한마당은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됐다. 온 세상이 비에 젖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기다리는 불자들의 불심은 비에 젖지 않았다. 오히려 빗방울은 등이 되어 함께 빛났다. 장엄등은 더욱 장엄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었고, 십만 연등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밝게 비추며 부처님오신날을 기다리는 불자들의 마음을 더욱 밝게 했다.

연등회의 열기와 감동은 5월 13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우정국로 일대에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으로 이어졌다. 사부대중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화창한 휴일을 맞아 우정국로를 가득 메웠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가 5월 12일 빗속에서 개막됐다. 법요식 이후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사진은 삼각산 도선사 장엄등. 사진=박재완 기자








한마음선원의 봉축장엄등 '해수공용등'



“봄비 · 꽃비,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을 마친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오후 9시30분부터 이어진 회향한마당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함께 춤추며 연등회를 회향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우중에도 연등행렬에 열광하는 외국인들.

연등회, 세계인의 축제

5월 12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이제 한국불교만의 축제가 아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연등회에 참가해 연등행렬을 관람했다. 세계 어느 나라 불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연등회에 외국인들은 연신 ‘원더풀’을 외쳤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맥심(남 · 31)과 루시엘(여 · 31) 씨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다가 연등회에 대해 알게 됐고, 축제에 참여하게 됐다. 맥심 씨는 “인터넷에서 연등회를 알게 되고 꼭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약 10일 간의 한국 여행 일정 중 가장 기대되는 볼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루시엘 씨도 “비가 오지만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오후 6시부터 나와서 가장 앞에 자리를 잡았다”면서 “모든 등이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신기했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분홍색 기본 연꽃등이 가장 아름답다”고 밝혔다.

부모님과 함께 나온 아네사(8)는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 있는 코스타리카에서 왔다. 한국에 2년 거주했지만 연등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네사 양은 “연등회에 처음 참여했는데 너무 신기하다. 사람들이 들고 가는 분홍 연등이 너무 예쁘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준 연등 머리핀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지역	사찰명	날짜	프로그램명
서울특별시	경국사	5.19~5.23	2018 경국사 부처님 오신날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5.11~5.12	국제선센터 스님과의 차담, 연등행렬 참가
	금선사	5.22	부처님 오신날 특별 데일리 템플스테이
부산광역시	내원정사	5.15~5.22	동자승체험
	흥법사	5.18~5.22 5.22	위대한 탄생 부처님 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휴식형 위대한 탄생 부처님 오신날 특별 템플라이프
세종특별자치시	영평사	5.19~5.22	지금 부처님 만나러갑니다.
경기도	법룬사	5.21~5.22	부처님 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신륵사	5.21~5.22	휴식형 템플스테이
	용주사	5.22	부처님 오신날 특별 만다라 체험
	흥국사(고양)	5.21~5.23	2018 흥국사(고양) 부처님 오신날 템플스테이
강원도	백담사	5.21~5.22	제11회 연화장 템플스테이(부처님오신날)
	낙산사	5.22~5.23	2018년 부처님 오신날~ 특별 프로그램
충청도	구인사	5.21~5.22	부처님 탄신일
	법주사	5.21~5.23	2018 부처님 오신날 - 희망등선 띄우기 템플스테이
	무량사	5.21~5.22	부처님 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나도 부처님 처럼'
	서광사(서산)	5.21~5.22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수덕사	**5.21~5.22**	**부처님과 함께**
전라도	**내소사**	**5.18~5.20 5.19~5.21**	부처님 오신날- 혼자만의 쉼터를 찾아서
	선운사	5.21~5.22	부처님 오신날 석씨원류 경판이운식
	대원사(보성)	5.21~5.23	어서와 차승은 처음이지
	도갑사	5.19~5.20 5.21~5.22	오늘은 부처님처럼~
	미황사	5.21~5.23	부처님 오신날 미황사 특별 템플스테이
	불갑사	5.21~5.22	我 안에 부처님을 찾아
	신흥사(완도)	5.22~5.23	부처님 오신날 특별 템플스테이
	연곡사	5.21~5.22	부처님 품에 안겨 休 템플스테이
경상도	고운사	5.19~5.22	너와 내가 함께하는 날
	골굴사	5.21~5.23	2018 골굴사 부처님 오신날 템플스테이
	자비선사	5.21~5.22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기부처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 만들기
	장육사	5.22	행복한 템플스테이(당일형)
	직지사	5.22	직지사 템플스테이 부처님 오신날 당일체험
	축서사	5.21~5.22	Happy birthday ~ 부처님
	대원사(산청)	5.22~5.23	대원사에서 부처님과 만나요
	용화사(통영)	**5.21~5.22**	**부처님 생일 축하해요!!**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장기도도량 천불정사

주 지 선묵 고담
총무국장 심 일
주 지 조정자

신도회 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 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 총무 김영애
거사림 회장 이경철
홍련회 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83-9233
FAX 051)583-6362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TEL 051)294-9300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 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장상목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 오 사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정관
신도회장 한승협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79, 545-7949

地藏佛教 根本道場 대한불교조계종 대연정사

주 지 능 후

신도회. 지장회. 청년회.
어린이회. 남구청 법우회

사부대중 일동

WWW.dytemple.net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TEL 051)625-3886

부산진구불교연합회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회장 세운
회원 스님 합장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심산,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성림, 문연주
기획이사 마나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이 사 일 동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3번길 1,2층 (수정동, 은정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회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총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지원하는 복지기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재가노인복지센터
꿈나무아동발달센터
용 호 어 린 이 집

무료급식 (매일 200여명)
노인대학 (매일 200여명)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7
TEL 051)628-6737-9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www.hjsa.or.kr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최주덕
상임고문 박영근
고 문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박민식 정홍섭
부 회 장 김수현 김종백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김선오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총무이사 이현수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정종원
기획이사 허장욱
섭외이사 김춘식
사업이사 허성하

이사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마음 편한 절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종 호
사부대중 합장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복공감 평생교육원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www.mitazen.net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Since 1999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

대표이사 정 여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범산. 정현. 명현. 성문. 세운.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박대성
감 사 이륭우. 이혜정 사무총장 류강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홈페이지 http://www.bswia.org/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회 원 일 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 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이의자 백명숙 김순례 박신자

회 장 왕선자
후원회장 정관희
부 회 장 김도연 정정자 유영남 김정화 정순천

총 무 박정림 김선미
재 무 서정례 손하영
감 사 이은선 이명희
봉 사 김미경 엄경희
운영위원 전위미 한순점 권정미 박화자 이석순 김희숙 최연화 신명희 김무련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13 (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전화 051) 817-3166, 3168

금정구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스님(범어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사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기획국장 석산스님(안국선원)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상임부회장 혜창스님(원효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암)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개문스님 (광명사)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사업국장 박분순(달오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지공스님(불이중도선원)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금강로230-9 천불정사內
전화 (051) 583-9233

동래구불교연합회

회 장 자관
부 회 장 효문. 법관
감 사 법천. 문수
사무총장 안국
총무국장 자운
교육국장 도화
사업국장 일공
재무국장 성화
총무부국장 도법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 일동
동래구불교연합 신도회장 박종원외 회원일동

■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가길 46(자비암)
전화 051)552-3320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지 청암 자관

신도 일동

■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부산 연제구

송 광 정 사

주 지 진 각 (교육학박사)

⊙ 서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서울 동국대학교 부산동창회 홍보국장
⊙ 무료 어린이한자교실 토요스쿨11년째 운영
⊙ 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 외래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생사문화학과 외래강사

■ 부산 연제구 연수로225번길 15
전화 051) 867-8438

김해 신어산

천 불 사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 지 권 무 애

신도회 합장

■ 경남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20-122(안동)
전화 055-8323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 지 자 인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5224, 3076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경 선
부총재 목 종
사무총장 효 산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박명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27, 1206호
전화 051)513-4306
팩스 051)513-4307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설정 (조계종총무원장)
부 회 장 원행 (조계종종회의장) 편백운 (태고종총무원장) 문덕 (천태종총무원장) 회성 (진각종통리원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이 사 장 홍파 (관음종총무원장)
부이사장 인구 (보문종총무원장)
사무총장 향운 (원효종총무원장)

- 여성부 -

회 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 무 방정자
재 무 조원숙
감 사 남영희
운영위원 김경수. 김동희. 김명애. 김예영. 옥영숙. 정지연. 우정해
국제협력부장 김민경

청정기도도량 (부산시청 뒤)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前범어사 주지)

영 도 대 흥 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 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
양 정 바라밀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 산 여 여 선 원 주지 효암
동 래 효 심 사 주지 효문
금 정 보현선원 주지 효범
기 장 여여힐링선원 주지 효운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94 7층(인재빌딩)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 용 암

주 지 무 관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TEL 051)501-6300 Fax (051)502-6304

(사)향기로운 문화동행

백의관음대불 청량사

주 지 보혜
청량禪문화원 원장 홍성숙
청량선다회 회장 장옥순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운영위원장 김순애
신도회장 장외숙
청량합창회 단장 이미경

정기법회
· 매월(음) 1일 초하루법회
· 매월(음) 15일 보름법회

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금요일 저녁7시)
· 다도 다화 선차반 모집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TEL : 051)723-1851

황령산 옥 천 암
(소원성취 기도도량)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보현회. 지장회
산사순례기도회

■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90번나길 23
TEL 051)634-6589

홍코치한의원

◆ 전문진료과목 ◆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비염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45(동삼동)
TEL 051)413-1155

박해일 내과의원

"일체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직원일동 합장

■ 부산 영도구 동삼로 25
TEL 051)405-4200

한국국제품질학교(KIQUS)
(심사원 및조선해양 Inspector 전문교육기관)

- ISO 9001/14001/45001/27001국제선임심사원교육
- PRINCE2 (국제공인 프로젝트매니저)교육
- Insulation(국제공인 보온자격증)교육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
(중앙동 100-4 서광오피스텔 1001-1호)
TEL 82-55-267-2702 FAX 055-285-0655
E-Mail : kiqus_info@naver.com

KIQUS-ATTS
(국제규격 방폭자격 전문교육기관)

- CompEx 유럽규격 방폭자격 교육 · 한국 최초, 유일
- Mechanical CompEx 방폭자격 교육 · 아시아 최초, 유일
- IECEx Copc 국제전기협회 방폭자격 교육
- EEHA 호주규격 방폭자격 교육
- High Voltage 호주규격 고전압자격교육

■ 창원교육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
(중앙동 100-4 서광오피스텔 1001-1호)
거제교육장 : 경남 거제시 진목1길 95 혜창빌딩 4층
울산교육장 :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로 36 찬우원빌 101
TEL 82-55-261-7750 FAX 82 55 261 7751
E-Mail : info@kiqus-atts.com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조 실 고산 혜원
주 지 원허 효명
사부대중 일동

재단법인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원
영도구노인복지관
부산영도시니어클럽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재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68번길 47(연산4동)
종무소 051)866-7771~3 Fax 051)866-7777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 明 佛 院

주 지 화 랑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TEL 051)626-4337, 624-7667
FAX 051)626-4330

가야불교 중흥 발원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주 지 도 명

불교대학 경전반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김해시 가야로 30번길1
TEL 055)311-2911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주 지 호 법

신 도 회 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권인락
순 례 단 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 관음도량

계 명 암

감 원 선 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TEL 051)508-4345

불교여성개발원
부 산 지 원

고 문 이영숙. 천양자. 심조숙
이 사 장 지홍 스님
지 도 법 사 심산 스님
지 원 장 김수현
부 원 장 김순례. 여예진. 김옥지
종무부원장 김종숙
교 무 부 장 강미화
감 사 민고분. 김종희
재 무 부 장 이선덕
홍 보 부 장 박봉희
법 회 부 장 김복선
복 지 부 장 김노겸
다 도 부 장 임현정
포 교 부 장 정정철
봉 사 부 장 김미희
문 화 부 장 이춘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TEL 051)868-8518

잘못된 스승과의 인연이 불러온 참변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⑱ 앙굴리마라경1

우리들 인생 속에서 나를 바꾸게 했던 이들과 만났을 때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대부분이 모른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만나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지고 빛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존경의 마음이 드는 분, 바로 스승이다. 불자에게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이라 불리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앙굴리마라,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살아있는 악마의 화신인 그를 제도한 부처님의 이야기는 〈한글대장경〉12권인 〈불반니원경〉에 있는 〈불설앙굴계경〉 pp297~305와 〈앙굴마라경〉 pp323~465에 등장한다. 아함부에 속한 경전들을 소책자로 만들어 불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했던 편집자의 의도가 보이는 경전 중에 하나다.

사위성 북쪽 살나마을에 살던 발타라는 남편을 잃고 홀로 일체세간현(一切世間現)이란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다. 세간현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응용력이 뛰어나 수십, 수백 개를 깨달아 알며 다른 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일어주는 능력이 뛰어났다.

12살에 바라문 마니발타라에게 출가하여 그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스승의 젊은 아내가 이 총명한 제자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가 스승이 왕의 초청을 받아 떠나며 세간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갔다. 스승의 부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며 예절을 잊어버리고 세간현을 유혹했다. 놀란 세간현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옷을 뿌리치며 그 곳을 떠났다.

수치심과 모욕을 느낀 것은 세간현이었지만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스승의 아내는 거절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여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목을 매는 시늉을 했다. 마침 도착한 스승은 아내에게서 세간현이 자신을 성추행하였고 그 부끄러움에 죽으려 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불같은 분노가 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총명하고 착한 제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증오심으로 복수를 결심한다. 스승의 아내를 욕보인 죄를 사면받으려면 사람 천 명을 죽여 그들을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가져오면 너도 하늘에 태어나게 해준다고 한다. 세간현은 그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스승을 거역할 수 없어 그렇게 허무하게도 살생악귀로 변하게 된다. 그 길로 거리에 나가 예리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치광이 살인마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순수하게 잘생긴 얼굴과 친절한 말솜씨에 홀려 다가갔다가 여지없이 살해를 당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사위성 전역에 퍼졌지만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나갔다. 이제 드디어 999명의 손가락을 모았을 때, 마침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이 미쳐서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찾아오고 있었다.

마침 탁발 나갔던 제자에게 사위성이 발칵 뒤집힌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이 사위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시면 앙굴리마라(사람을 죽이고 손가락 자르는 악마)를 만나니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그 앙굴리마라와 어머니가 딱 마주쳤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 손가락이라는 생각에 극도의 흥분을 한 상태였다. 일촉즉발, 부처님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걸어도 다가올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 버렸다.

'거기 그만 멈추시오, 나는 앙굴리마라다. 너의 손가락을 내게 다오, 누구든 내 이름만 들어도 놀라서 죽는데 하물며 나의 얼굴을 보고도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보시오, 이제 멈추시오. 그대는 하늘사람인가, 바람인가 어찌 이리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오. 제발 그만 가시오, 이제 더 이상 나는 못가니 손가락을 주시오.'

부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부처님 앞으로 나갔다.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업보해탈로 세 가지 소원 이루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⑰ 인생의 원동력

선지식으로부터 "누구나 시시각각 소원성취한다"는 말씀을 들은 후, 나의 세 가지 소원, 즉 학교 공부, 대인관계, 마음 안정 등 세 가지의 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참이 아님을 알았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난제라고 판단한 것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난제가 정말 난제가 아닌 내 분별이요 착각이라고 깨친다면, 그것은 이미 난제가 아니고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난제가 실은 난제가 아니요 내 분별일 뿐이며, 그 분별이 실은 착각이라 여기는 수행을 어떻게 하여야 쉽게 할 수 있을까?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수행을 쉽게 하여 내 숙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여러 사람을 만난다.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늘 산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 관계를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자연 어떤 느낌 또는 어떤 인상을 심게 된다. 그런 인상들 중 강력한 쇼크가 동반되어 심어진 인상(전생이든 금생이든)을 업보(業報)라 한다. 이런 업보가 모이면 장애를 이루게 되는데 업보가 모여 장애를 나타내는 당체를 업장(業障)이라 한다. 그런데 업보 중에, 살도음망(殺盜淫妄)의 관계로 맺어진 업보는 나쁜 업보도 있는 모양이다. 계정혜(戒定慧)의 관계로 맺어진 업보는 좋은 업보도 있는 모양이다. 선지식께서는 언제인가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와 함께하지 않는 것, 또 공부에 도움을 주는 업보와 함께하는 것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 말씀이 생각났다.

"아들과 남편을 가능하면 한 집안에서 살게 하지 마시오."

"어째서 아들과 아버지를 떼어놓고 살아야 하는가요?"

"아들과 남편은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을 맺어 부자지간이 된 것이요. 이런 나쁜 업보가 한 집안에서 살게 되면, 서로에게 나쁜 정신적 파장을 보내게 되므로 두 사람 다 일이 잘 아니 풀리게 되어 있소."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는 부자지간도 원수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까운 가족에 오히려 좋은 업보보다 나쁜 업보가 더 많은 것이요."

이렇게 선지식께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부부, 부자, 형제 등 사람들은 이런 가족을 가장 친한 관계로 생각하는데 마음 닦아 밝아진 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친하다는 부부 부자 형제 등 가족은 겉으로는 서로 돕는 것 같이 보여도 속마음은 서로 돕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상당한 방해를 하는 존재라고 한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결정적 방해까지 한다는 것이다.

효과적 수행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면 업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는 하는 것이 아니던가? 달마대사는 이를 외식제연(外息諸緣)하라 하시지 않았던가? 선지식의 말씀대로 가족과 떨어져 있으며 선지식과 함께 지낼 때 놀랄 정도로 부처님께 바치는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선지식께서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잘 아니 바쳐지는 경우, 아버지를 향해 금강경 사구게(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여래)를 수지독송하여라.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부처님께 신심발심하여 복많이 짓기를 발원하여라"고 하셨다. 출가와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싫은 생각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버지에 대한 싫은 생각이 사라짐과 동시에 학교 공부가 지겹게 싫다는 생각, 싫은 친구에 대한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망연을 '이 뭣고'로 여의자

〈忘緣〉

백장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신찬 선사는 계현 대사에게 동진 출가 한 후 경학(經學)에만 몰두했다. 참선에는 뜻이 없어 백장 선사를 찾아가 참선 정진 끝에 견성오도(見性悟道)한 후 은사인 계현 스님을 다시 찾아가자, 스승은 "너는 나를 버리고서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더니 그동안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찬 선사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인데 얻을 것이 무었이 있겠습니까?" 하니 스승은 그 뜻을 알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스승은 신찬 대사에게 목욕물을 데피게 하고 등을 밀어 달라고 하였다.

신찬 대사는 스승의 등을 밀다가 호호법당(好好法堂) 불무영험(佛無靈驗)이라, 즉 "법당(法堂)은 훌륭한데 영험(靈驗)치 못하군"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스승이 뒤를 돌아 보았다. 그러자 불무영험(佛無靈驗) 유방광(有放光)이라, 즉 부처는 영험치 못하나 방광(放光)은 할줄 아는군"하며 거리낌 없이 또 중얼 거리니, 스승은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 들며 신찬 대사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케 되었다.

한날 스승이 경서를 열심히 보는데, 벌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 창문으로만 나가려고 탕탕 몸을 부딪히며 애를 쓰니, 공문불긍출(空門不肯出) 투창야대치(投窓也大痴) 백년찬고지(百年鑽古紙) 하일출두기(何日出頭期) 이라. 즉 "아, 어리석은 벌이여! 활짝 열어놓은 저 문은 어이 마다하고 굳게 닫힌 창문만 안타까이 두드리고 있는고. 백년을 경서만 뚫어지게 본들, 어느날 깨치기를 기약하겠는가"하고 읊으니, 보든 경서를 덮어놓고 "나는 네가 나가서 허송세월을 하고 돌아온 줄 알았더니 그 동안 누구에게서 어떤 법을 배웠느냐?"고 되물었다.

"한 생각 망념 올라오는 즉시 알아차리고 '이 뭣고' 하면 육진(六塵)을 벗어나니 이것이 참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
중생은 착각의 아상 때문에 집착의 업 속에서 헤매는 것

"백장선사 법좌에서 참선 수행으로 깨닫고 왔습니다" 하니 스승께서 "오, 기특한 일이로다. 네가 비록 내 상좌이나 공부로는 나의 스승이니 백장 선사를 대신해서 나에게 불법을 설해다오"라고 했다고 한다.

신찬 대사가 법상에 올라 영광독로(靈光獨露) 형탈근진(逈脫根塵) 체로진상(體露眞相) 불구문자(不拘文字) 진성무념(眞性無染) 본자원성(本自圓成) 단리망연(但離妄緣) 즉여여불(卽如如佛)라고 설했다.

"신령스런 빛이 홀로 들어나 육근육진을 벗어나 본체가 참모습을 드러내니, 문자에 의지하지 않네. 참마음 성품은 본래 오염되지 않아 원만하게 구족돼 있으니, 단지 망연(妄緣)만 여의면 그대로 여여불이라네"라는 의미이다. 즉 한 생각 망념이 올라오는 즉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이 뭣고' 하면 육진(六塵)을 벗어나게 되니 이것이 참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망상을 쉬어 한 생각도 생기지 않는 곳에 도달해야 망정(妄情)의 티끌에 떨어지지 않고 의상(意想)(알음알이)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대상과 합(合)이 않되면 무아(無我)인 것이다.

중생은 착각(錯覺)의 내가(我相)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執着)의 업(業) 속에 생노병사를 집어놓고 윤회를 하는 것이다. 단지 부처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니,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라, 즉 선가에서는 보살의 수행단계인 57단계를 건너뛰어 곧바로 묘각(妙覺)인 구경각에 이르는 것이니, 일체처 일체시에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이뭣고'가 이어지면 바로 여래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社團法人 大韓佛教 禪教宗

宗正 眞性 法雲

元老議長 龍岩　理事長 華嚴
總務院長 三柱　教育院長 覺明　布教院長 知賢
監察院長 宰性　中央宗會副議長 普覺
組織委員長 導鏡　慈悲實踐會長 光明心
總務部長 光恩　教務部長 法光　財務部長 智雲
教育部長 正圓　布教部長 東海　社會部長 一覺

全 宗徒 一同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입종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고 초대법왕 일붕존자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본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대덕스님들을 환영합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입종문의 : 총무원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총무원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전관 / 전화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 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단월회 · 지장회 · 참선반
주 지 만 제 혜 수
사부대중 일동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참회기도도량 **문 수 사**
회주 법흥 주지 지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호(용당동)
TEL 051)624-3754, 7848 / FAX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3-4층
TEL 051)338-1008. 337-1080

마음챙김 MBSR명상교육도량
시 선 원
지도법사 우현 조원경
MBSR은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복명상 프로그램입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308 11층
TEL 051)746-7611
cafe.daum.net/sisunwon

언제나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 일번지
사단법인 미소원
대중일동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지도위원장 권승열 직전회장 김태훈
회 장 유진상 수석부회장 류영철
감 사 김성필 서재원
사무처장 조중호
청년회원 일동
청년포교 / 외국인 근로자 지원후원 모집
계좌번호 : 부산은행 030-01-055266-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4층
전화 051)806-4717 팩스 051)806-4766

HW (주)한마음 윈스피아
영림 PVC창호, 도어 제작 및
통합인테리어 시공서비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19 (청학동)
전화 051)412-4287 팩스 051)412-4286

(주) 엘티유이엘씨
대표이사 하만두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 4, 102호
전화 051-728-5562 팩스 051-557-5587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 지 진 공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암
주 지 지 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번지
TEL 054)372-1433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 지 법 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 지 부 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무 학 사
주 지 법 등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511-1
TEL 054)243-1751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 지 지 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주 지 현 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효' 종찰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 지 보 현
「길따라…
土樂 토락」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 / H·P 010-5506-9448
포항 자 명 선 원
■ 경북 포항시 중앙로 131번길 46-2
TEL 054)281-7712, 7719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 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 화엄경 –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뜨고 양택명당은 꿈에
무지개가 떳습니다
010-4413-3377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불면증 해소

잠은 신체 뿐만
아니라 마음도
쉬게 합니다
010-4912-3544
무료 상담 예약

재가불자 선원 개원

서울 **삼각산** 정기 아래 수행공간인 **보덕선원**은
하안거 동안거 **재가불자 결제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 기 간 : 불기2562년 (음)4월 15일~(음)7월 15일
- 접 수 : 상시접수
- 문 의 : 보덕선원 010-9486-5910

대한불교조계종 재)보덕선원

도깨비를 내 맘대로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자연을 입을 수 있게 자연섬유.
인견제품생산전문업체

풍기인견은나무에서추출한 순수자연섬유로써 나무와 과학이 만난 환경친화적인 자연소재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통풍력이 뛰어나며 정전기 또한 없는 자연 그대로를 느껴 입어 보시고시원함을 피부로 느껴 보세요.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46번길 12-5 (성내3리106) / 전화 054-636-2362,636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東國大學校 佛敎大學院 出家共同體 總東林 同門會

고 문 성웅 자용 시몽 지암 혜자 종후 왕산 법만 무문
명예고문 백운
명예회장 혜정
자문위원 경봉 법농 일지 덕인
지도위원 현도 진산 현법 법성 도암

회 장 법경
상임부회장 동호
수석부회장 도원 무구 동희
부 회 장 혜인 하담 지선
수 석 감 사 송묵
교육위원장 세준

사 무 총 장 지담
총 무 부 장 설봉
재 무 부 장 진여
예술문화위원장 원행
기획분과위원장 지홍
사회분과위원장 지련
문화분과위원장 성담
학술분과위원장 진우

회 원 일 동

■ 주소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종로오피스텔 1114호
전화 02)735-1053 / 사무총장 010-2313-567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없으며
칭찬만을 받는 사람도 없다.

– 법구경 –



논산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서울중량사찰(급)안내
- 지대 높은산 기도 사찰
- 토지120㎡.2층법당.1층요사채
- 시내전망좋은사찰. 산책로 입구
- 깨끗하고 30년된 사찰
- 양도가액 : 5억 5천만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위치 : 서울북한산,
◎ 대지 : 140평 ◎ 부지 : 100평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30평.4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12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개천면
- 청정지역 지정, 옛 불당골
- 총부지 980평
- 건물(미등기): 법당, 삼존불
- 창건50년, 산신각, 지장전, 요사채
- 가액:1억 6천 5백만원

010-3560-85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 법당 50평, 방 3개, 공양실, 화장실 2개
- 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보증금 3,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가액: 12억
- 확인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위치 : 서울북한산,
◎ 대지 : 140평 ◎ 부지 : 100평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30평.4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12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3억

010-5421-1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 2층 (법당), 4층 (거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전세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

010-6473-1569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평수 : 50평
- 삼존불 및소불
- 전세:1000만원,월세50만원
- 비품 보시고 결정 몸만 오시면됨
- 불사이전 관계상 급매

010-7734-94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학산동 175번지 증원빌디 6층
- 70평. 법당
- 가액: 보증금 무, 월세50만원 시설비500만원
- 몸 만 오시면 법회 가능함

010-2003-0658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연지암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80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채슬라브 공양간 판넬 – 대지 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경북신도청 7.5㎞, 예천군청 9㎞
- 법당 : 실평수 30평, 요사채 30평, 40평
- 사찰도량 1,20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526-7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 뉴타운지역
- 4층건물의 4층 70평, 옥상사용
- 법당 40평, 욕실 갖춘 방2개 원목 불단, 리프트 설치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30만원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0-9805-0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리베이터)
- 시설:A급(시설비 약 1억 소요)
- 구조: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2필지 208평)
- 삼존불, 임법당, 산신각, 용왕당
- 실내욕실, 화장실 내외 2칸
- 스님! 외국 이민수속중 급 매물
- 인수하실분 직접 만나서 가격 절충요

010-2763-54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 평수 265㎡ (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아랫채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1억 5천만원 (대출 4천안고 1억1천만원)
- 비구니스님 수행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010-6222-5835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일주문,산신각등
- 가액 : 3억2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되어있는 도심번화가의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경주시 천북면소재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닷집,단청)
- 기타 : 석탑,석등
- 가액 : 10억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대가람의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참 좋습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속의 계곡과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에 대지 328평 1층 60평 중 30평은 명상홀 다음 30평은
- 요사채 2층 법당 25평 삼성각 4.5평
-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농지에는 사과나무와 호두나무
- 석물 수월관음, 연화탑, 원통문 포대화상 • 가액 : 6억

010-4895-205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역에서 5분
- 대지 20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몽땅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5-10
- 법당 : 30평 3층 건물 중 2층
- 방 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7257-4242

탈종공고

- 주 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 법 명 : 선 혜
- 속 명 : 김태영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청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교구청장 진 광
종무국장 원 영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 동구 구청로 18-1
TEL 051)464-0668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선사의
창립정신 받들어 미래가 아름다운
동국발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전 영 화 外 30만 동문 일동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301호
TEL 02)733-0303

‘혜암 선사’의 철저한 수행 돌아보다

혜암문도회,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 앞서 회고록 봉정

합천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쉼 없는 정진과 서릿발 같은 가르침으로 불제자들을 이끈 혜암 스님의 삶을 생생한 증언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혜암대종사문도회(회장 성법)는 5월 7일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2020년)에 앞서 회고록 〈스승 혜암〉을 출간하고 봉정식을 합천 해인사 원당암에서 개최했다. 봉정식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과 여연 스님, 대오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혜암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회고했다.

봉정식에서는 탄신일을 축하하며 육법공양에 이어 책 〈스승 혜암〉이 봉정됐으며, 대중은 혜암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담긴 법문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방장 원각 스님과 문도회장 성법 스님, 책 대담을 진행한 유철주 작가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혜암 스님은 종단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을 돌보지 않고 호법신장 역할을 담당한 큰 어른이셨다”며 “또한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씀으로 불제자에게 공부를 당부하고 앞서 몸소 실천하며 평생 장좌불와와 일종식으로 용맹 정진해 모범을 보여주신 선지식”이라고 회고했다. 아울러 “복잡한 종단 현실과 해인사를 돌아보고 지금 더욱 정진을 당부한 스님 말씀을 지켜 화합하고 난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회장 성법 스님은 “불굴의 의지 가지고 물러섬 없이 정진을 당부하신 혜암 스님이셨다”며 “공부는 철저하며 자신에겐 엄격하셨지만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대자비의 모습으로 불자들을 대하셨다”고 말했다.

유철주 작가는 “혜암 스님은 우리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누구보다 간절한 수행자였고 세상 앞에선 누구보다 당당한 선지식이었다”며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대불교사에서 혜암 스님처럼 간절함과 당당함을 가진 수행자를 찾기가 어렵다. 기회가 된다면 큰 스님의 법어를 정리하며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혜암대종사문도회는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사회에 알려 공덕을 기리고자 사단법인 혜암선사문화진흥회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가올 2020년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혜암대종사문집 정본화 사업, 평전간행 등 출판사업을 비롯해 수행처 순례사업, 학술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이다. 책 〈스승 혜암〉은 사업의 일환으로 혜암 스님을 가까이 보좌하고 직접 목격한 출가 및 재가자 25명을 선별해 대담을 진행, 정리한 책이다.

대담형식 〈스승 혜암〉 출간
출·재가 25인의 회고 담아
탄신 100주년 선양사업 박차
수행처 순례·학술대회 계획


혜암대종사문도회가 혜암 스님 탄신 100주년(2020년)에 앞서 5월 7일 회고록 〈스승 혜암〉을 출간하고 봉정식을 해인사 원당암에서 개최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책을 봉정하고 있는 모습.

유철주 작가는 “선방에서, 부엌 혹은 마당에서, 또는 깊숙한 숲속 암자부터 대중이 모인 강당까지, 혜암 스님 발자취를 따라 조각조각 기억을 모았다”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혜암 스님의 큰 가르침의 본래면목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혜암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에서 탄생, 1946년 27세에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 입산 출가했으며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청담, 우봉, 자운, 보문, 도우, 법전,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동화사 금당선원, 통도사 극락암 선원, 묘관음사 선원, 천축사 무문관, 지리산 칠불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93년 해인총림 제6대 방장에 추대됐으며 1일1식과 장좌불와 수행으로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철저한 두타행으로 정진했다. 1999년 4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因果)가 역연(歷然)하니 참선 잘하라”며 당부하고 원적에 들었다.

“화쟁·일심무애로 불국정토 이루자”

원효종, 원효보살 추모 제1332주기 열반대재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5월 4일 원효보살 추모 제1332주기 열반대재를 경주 원효종 총무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재에는 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스님과 총무원장 우석 스님, 종회의장 운오 스님, 선관위원장 석불 스님 및 지역 각 교구원장, 종도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인간의 근본은 하나인 한마음인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일심으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원효보살의 화쟁사상과 무애정신을 되새겨 더불어 잘 살아가는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자”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원효보살의 화쟁사상은 일심무애의 가르침이니 미혹에 허덕이는 지금의 시대에 무명을 밝혀주시어 모든 이의 마음을 부처님과 원효보살의 법력으로 자비광명이 충만토록 하고, 미혹과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고 불국정토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효종은 추모대재에 이어 제14대 종정 설제 정광 대종사 재 추대식도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재난 전화위복, 불사로 회향”

울산 정토사, 감실 8대 불상 봉불 개원법회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해 축대가 무너지며 도량 훼손의 아픔을 겪은 울산 정토사.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재난이 다녀간 자리에 8대 불상을 조성해 회향하며 아픔을 극복해 눈길을 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5월 9일 ‘정토사 감실 8불상’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감실 8대 불상은 2016년 태풍 차바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축대를 다시 쌓으며 생긴 옹벽에 조성됐다. 정토사는 축대 복원작업 중 옹벽에 석굴모양의 감실을 만들었다. 석굴은 길이 35m, 높이 24m 규모로 산사태 복구용 옹벽에 자리 잡았다.



석굴에 봉안된 8대 불상은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과거불인 연등불, 미래불인 미륵불로 과거·현재·미래 삼세불과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불로 구성됐다. 오방불은 중앙 비로자나불, 동방 약사여래불, 남방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 불공성취여래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재난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옹벽을 튼튼히 시공했고,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모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과 번영을 염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족들 함께 즐기는 부처님오신날

전북 봉축위, 전주 덕진공원서 어린이 큰잔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북지역 어린이들의 문화마당인 어린이 큰잔치가 열렸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5월 7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다.

전주지역의 어린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고, 자연친화적인 사고력을 개발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숨겨진 장기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큰잔치는 전북불교회관과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주관으로 진행됐다.

4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뉘어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 △부처님 그리기 △사경 △연꽃등 만들기 △108염주 꿰기 등의 불교문화 체험활동과 △투호 △줄넘기 △단체줄넘기 △그네타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잊혀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떡볶이 스님’으로 유명한 진안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은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치즈 떡볶이를 제공했으며, 송광사 청년회는 각종 부침개를 간식으로 제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장병도 평화 염원’ 35사단 연등제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의 부처님오신날 연등법회가 열렸다.

35사단 호국 충경사(김태현 법사)는 5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충경부대원의 안전과 남북 평화협정을 기원하는 연등제를 개최했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해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대원사 석문 스님, 보문사 혜원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김경수 35사단장, 불자장병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소이풀’의 난타공연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독송, 무사고 기원 기도, 설법, 발원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수 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 신앙으로 국난 극복의 기둥으로 어려움을 헤쳐왔다”며 “연등제를 통해 모두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부대원들의 안녕과 평화를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북이 갈등 속에서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군인이다 평화협정으로 함께 잘 살고 전쟁 없이 희망의 삶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9) 해, 달, 별 ~ 수명이 깎인다. : 해, 달, 별은 天地萬物을 養育하는 根源이어서 太古以來 神聖視하였다. 서쪽은 佛敎의 西方極樂淨土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고 북쪽은 陰寒의 근원지로 妖鬼, 邪鬼, 陰鬼가 사는 곳이라고 易學에서는 說한다.

10) 옷을 하체는 ~ 입어야 한다. : 인체의 理想的인 건강상태는 水昇火降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火降하면 水昇하므로 그 중 한 방법으로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하체를 상체보다 따뜻하게 해야 한다.

11) 곽란(霍亂) : 發熱, 嘔吐, 頭痛, 身疼痛하며 泄瀉하는 증상. 음식을 잘못 먹어서 腸胃의 淸氣와 濁氣가 相亂하여 발생한다.

12) 많은 땀을 ~ 역시 좋다. : 옷에 젖은 땀이 마르는 과정에서 체온을 빼앗으니 땀 흘린 후에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小兒의 盜汗症은 만성감기, 百日咳의 원인이다.

13) 많은 땀이 ~ 마비된다. : 땀이 나면 피부의 氣門이 열리는데 이때 차가운 自然風, 선풍기바람, 에어컨바람을 쐬면 冷氣가 腠理에 著着하여 감기, 중풍을 일으킨다. 목욕, 洗髮, 싸우나 후에도 이에 해당되니 머리를 말리려고 드라이를 머리에 쐬어도 해롭다. 해롭다.

14) 각기(脚氣) : 다리에 風·寒·濕의 三氣가 침투하여 생기는 병. 痲痺, 冷痛, 萎弱, 攣急, 腫或不腫의 증상이 있다. 飮酒, 房勞에 의한 예도 있다.

21 피해야할 기상(氣象). 天時避忌。

○內經曰, 陽出則出, 陽入則入。無擾筋骨。無見雰露。違此三時, 形乃困薄。

《내경(內經)》①)에 이르기를, 해 뜨면 밖으로 일하러 나가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 자라. 근육과 뼈를 지나치게 사용치 말라. 안개와 이슬을 대하지 말라. 이 셋을 어기면 몸이 곤고하고 허약해지리라.

○經云, 大寒, 大熱, 大風, 大霧, 勿冒之。天之邪氣, 感則害人五臟。水?寒熱, 感則害人六腑。地之濕氣, 感則害人皮肉筋脈。先賢曰, 人以一握元氣, 豈可與大造化敵。康節有四不出之訓。

큰 추위, 큰 더위, 큰 바람, 큰 안개를 무릅쓰고 행동하지 말라. 하늘의 사기(邪氣)에 사람이 감응하면 5장(五臟)이 해롭고, 강과 골짜기의 한열(寒熱)에 감응하면 6부(六腑)에 해롭다. 땅의 습기에 감응하면 피부, 근육, 경맥(經脈)에 해롭다.
선현(先賢)이 말하기를, “사람은 한 움큼의 원기(元氣)를 지님이 마땅한데 어찌 대조화(大造化)와 적대적으로 행동하려 하는가?” 소강절(邵康節)②)은 기상(氣象)이 나쁜 네 종류의 날에는 집밖에 나가지 말도록 가르쳤다.

○書云, 犯大寒而寒至骨髓, 主腦逆, 頭痛, 齒亦痛。又云, 不遠熱而熱至則頭痛, 身熱, 肉痛生矣。

큰 추위를 범하여 한기(寒氣)가 골수(骨髓)에 침입하면 기(氣)가 뇌로 치솟아 두통이 생기며 치통까지 따라 생긴다. 또한 이르기를, 열을 멀리하면 안 좋다하여 열을 가까이 하면 두통과 근육통이 생기고 몸에서 열이 나게 된다.

○眞人曰, 在家在外, 忽逢大風, 暴雨, 震雷, 昏霧, 皆是諸龍鬼神經過。宜入室燒香靜坐以避之, 過後方出吉, 不爾殺人。

진인(眞人)이 말하기를, “집안에 있거나 집밖에 있거나 큰 바람, 폭우, 우레, 짙은 안개가 있는 때는 여러 귀신, 용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시점이다. 의당히 방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 정좌한 채 피하였다가 사라진 후 밖으로 나오면 길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수도 있다.③)”

○書忌云, 朔不可哭, 晦不可歌, 招凶。

초하룻날에는 울면 안 되고 그믐에는 노래를 부르지 말라. 흉한 일을 부르게 된다.

22 사계절의 몸가짐. 四時調攝。

○內經曰, 春三月, 此謂發陳。夜臥早起, 生而勿殺。逆之則傷肝, 夏爲寒變, 奉長者少。又曰, 春傷於風, 夏必飧泄。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봄의 석달은 발진(發陳)④)이라고 이른다.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남이 좋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 어기면 간(肝)을 상하여 여름에 추위를 타게 되는데도 지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자는 적다. 또한 이르기를, 봄에 바람에 상하면 여름이 되면 반드시 손설(飧泄)이 생긴다.

○書云, 春夏之交, 陰雨卑濕, 或引飮過多, 令患風濕, 自汗, 體重, 轉側難, 小便不利。作他治, 必不救, 惟五苓散最佳。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비가 지루하게 내려 기후가 습한데 이러한 때 음주가 지나치면 풍습(風濕)에 이환(罹患)되어 낮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몸이 무거워 몸을 돌리기가 어려우며 소변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소변불리(小便不利)에 대해서 다른 치료법은 반드시 효과가 없고 오직 오령산(五苓散)⑤)만이 제일 신묘(神妙)하다.

○內經曰, 夏三月, 此謂蕃秀。夜臥早起, 使志無怒, 使氣得泄。逆之則傷心, 秋爲痎瘧, 奉收者少。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여름의 석 달은 번수(蕃秀)⑥)라고 이른다.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남이 좋고 뜻을 씀에 노(怒)함이 없어야 하지 노하면 기(氣)가 빠져나가 버린다. 어기면 심(心)을 상하여 가을에 해학(痎瘧)⑦)이 생기는데도 지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적다.

○陶隱居云, 四時惟夏難將息, 伏陰在內腹冷滑, 補腎湯劑不可無, 食物稍冷休哺暖。書云, 夏之一季, 是人蛻神之時, 心肝腎衰, 化爲水, 至秋而凝, 冬始堅。當不問老少, 皆食暖物, 則不患霍亂。腹暖百病不作。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사계절 중에서 오직 여름철만이 지내기 어렵다. 음기(陰氣)가 몸속에 잠복하면 배가 차서 설사한다. 음식물 또한 차가워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보신(補腎)하는 탕제(湯劑)를 먹지 않으면 안 되며 음식이 조금만 차가워도 급히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된다.” 여름한철은 심신(心身)이 탈진(脫盡)하는 때이어서 심(心), 간(肝), 신(腎)이 허약해져 조직이 변화하여 물이 되어 가을이 되면 응결되다가 겨울이 되면 비로소 견고해진다. 늙고 젊음을 따질 것 없이 모든 이가 따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곽란(霍亂)을 예방해야 한다. 배가 따뜻하면 온갖 병이 생기지 못한다.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198-5351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백두산 고속관광

국내, 해외여행
통근버스, 통학버스
결혼식 차량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23번길 19A-507
TEL 051)518-2744 / 518-8172~3 FAX 051)518-8178
E-mail : beakdu0902@daum.net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불법홍포지

불교의 삶에서 찾은 행복

월간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맑은소리맑은나라는 선지식의 법문은 물론 불교 에세이, 불교 카툰, 불교 지식 등 다양한 불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교 행사를 취재하여 한 달 동안 있었던 불교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맑은소리맑은나라는 불법홍포를 위한 월간지로 전국은 물론 해외에 있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법공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대 사업

불교 전문 전시 기획 · 산사음악회(이야기콘서트) 기획
불교 전문 작가의 그림과 사진으로 특화된 단행본, 법요집, 카렌다 기획 · 제작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26번길 18 www.puremind-ms.com
Tel. 051)244-0263, 255-0263 Fax. 051-255-0953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영도 대 원 사

주 지 담화림

사부대중 일동
(대원선재합창단)

■ 대원선재합창단
TEL 051)403-9695. 010-6880-9695

영도구불교연합회
영도구불교합창단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한마음선원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
영도구연합회 회원스님 · 사부대중 정례



불교TV 염불공양모임

고 문	김정순 김유리자 강명자
회 장	하정선
부 회 장	김복선 정승자 윤정희
총 무	강행순
재 무	강지원
감 사	윤미자 안상희
운영위원장	양명숙
운영위원	최말순
팀 장	장순희 신미자 송순애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7층(범일동)
TEL 051)633-4020

대한불교조계종

극락도량 약 천 사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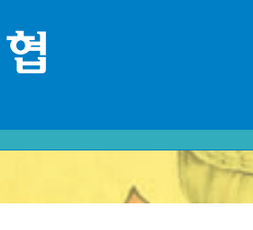
■ 전 화 : 064-738-5000
FAX : 064-738-5022
www.yakchunsa.org



모든 혜택을 당신과 나누는 새로운 금융을 만나보세요~

부산성의신협을 이용하세요

부산성의신협은 전국 900개 신협 중
자산규모 9위! (5,324억) / 당기순이익 1위! (76억)



1 최대 3,000만원 비과세 혜택!
정기예금 3.12%
(15개월, 연 2.5%)

2 고배당 출자배당금 지급
3.4% (2017년 기준)

3 협약의료기관 할인혜택

4 송금 및 각종 수수료
완전면제
(창구 이용시)

주 소 : 부산 부산진구 범이로 162 (구, 황실예식장 옆)
전 화 : 051)633-9120

앞으로의 금융 부산성의신협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야문화의 복원과 가야불교의 중흥을 위한 결사체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 사 장	인 해	스님 (바라밀선원 주지)
부이사장	해 공	스님 (장유사 주지)
상임이사	도 명	스님 (여여정사 주지)
	덕 암	스님 (정심선원 주지)
	송 산	스님 (불인사 주지)
상임이사	서 용 규	(가야대학교 부총장)
감 사	지 원	스님 (부은사 주지)



운영 이사진

김경자. 김달곤. 김영애. 김용탁. 김재욱. 김재호. 김진령. 김창순. 김홍종. 류원향. 박좌규. 박형자. 방수근. 신용옥. 안숙이. 윤중락. 이원달. 이인덕. 이정훈. 장미숙. 장미영. 조성진. 차판외. 최경옥. 홍정우. 황원효. 김종환. 이용한.

주소 : 경남 김해시 분성로 3번길 235 / 전화 : 055) 327-2601



대행 스님

뭐든지 깔보지 마라! 뭐든지 네 스승으로 알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자기 안의 자생중생들은 전자에 살 때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이기 때문에 오신통이 바로 즉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니까 그 입력된 자리에다 내 형성된 것까지 일체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몰락,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모두를 거기다가 몰락 다 놓으라는 거죠. 놓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 안에도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려도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일이 생기니까 못 놓겠습니다." 합니다. 못 놓긴 뭘 못 놓아요? 허허,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네?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다닙니까? 아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다니는데 혼자 다닙니까? 놓을 수 없느니 놓을 수 있느니 거론이 붙게? 진짜 놓을 수만 있고,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진짜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발견하는 데 대해 얘기한 거고요, 아까 읽어 내려오던 그 대목 중에서 또 한마디 한다면, 그 암 덩어리라든가 또는 탐지기라든가, 또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허허허…, 그런 것이 왜 멈춰지느냐? 내가 탐지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입니다. 그 탐지기에 서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누명을 쓰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랬다면, 아니, 판(版)에 박혀 있습니까? 그럭했다면 그거는 이 공부하는 데에서 볼 때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체들이 한 덩어리입니다. 지금 집합소입니다. 한 덩어리가 굴러가다가 일을 저질렀다면 혼자 한 게 아니죠. 거기 생명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분담해서 담당해야죠, 몽땅. 그러니까 그 몽땅 분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게, 나 혼자만이 잘못했다는 게 소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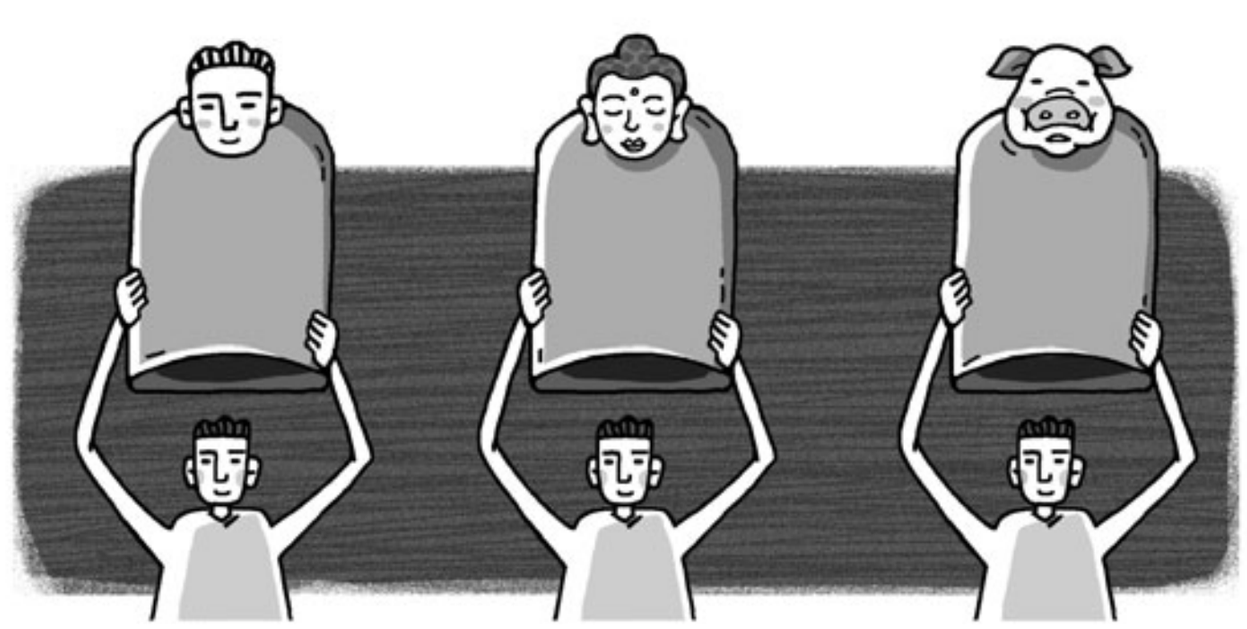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탐지기에 서면 '아이, 그것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한다면 '네가 저지른 거니까….' 아, 자기 혼자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시켜서, 즉 말하자면 움죽거리게 해 가지고 저질러진 거지, 몸뚱이가 저지른 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자기 몸뚱이가 저지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들이, 의식들이 전부 한데 합쳐서 그렇게 저지른 거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했을 때에 작동이 안 되든지 되든지,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될 땐 아주 뭐, 기탄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요량에 달려 있죠. 그 지혜로운 요량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걸 요량대로 지혜롭게 한다면 아주 대범하게 크게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또 병 같은 것도 부처님께서는 이 자생중생들이, 천백억화신이 응신으로 화해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먼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 내 자생중생들을 제도함으로써 내가 제도가 되고, 내가 제도가 됨으로써 내가 견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자생중생들이 나요, 내가 자생중생이니까, 모두가.

그러면 마음을 내기 이전의 선장은, 마음의 선장은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서 좋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라고 하죠. 그래, 선장이 돼 가지고 그 모든 의식들을 한데 합쳐서, 항상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로 굴린다면, 주인공으로 하나로 굴린다면 그 자생중생들이 전부 보살로서 화하고, 법신으로 화하고, 지장으로 화하고, 약사로 화하고, 지신으로 화하고, 용신으로 화하고, 칠성으로 화하고 모두, 아주 일체 아니 되는 것 없이 화합니다. 화해서 바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속에 둘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면 그대로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 모습으로 화한다는 거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무한이에요.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되고,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러니 나 아님이 없다.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니라." 이런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로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시체(時體)로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 병자 속에 들어가서 병자와 하나가 되니까 (양손을 서로 부딪쳐 보이시고) 그것이 정말 저분 말마따나 그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진 그 능력이, 즉 말하자면 '불'입니다. 불과 같기 때문에 그 병을 태워서 없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래로 배출시켜서 없애는 것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인체에 해롭지만 않다면, 이익하기만 하다면 어떤 걸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돼 있습니다.

전부 따지고 본다면 이 지수화풍 자체가 아주 거대한 겁니다. 지, 수, 풍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비벼 대니까, 한데 합쳐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온기가 생기고 뜨거운 불이 생기고,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말하자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런데 불이 없으니까 검죠? 검은 지평선 자체가 바로 지수화풍이 뭉쳐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스스로, 과학자들은 폭발이 됐느니 뭐니 이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폭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폭발되는 거 봤습니까? 우연히 과학자가 되는 거 봤습니까? 우연히 연구하는 거 봤습니까? 우연히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형성하고, 별성을 형성시키고, 그 별이 형성됨으로써 지금 불 덩어리도 크게 이루는 별도 되고, 또 별성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게 하려니까 태양계도 생겨야 하고 행성도 있어야 하고, 이 모두가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속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결이 됐다는 그 이유는 뭔가. 지금 우리가 마음먹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그냥 직결이 됩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벌써 한 계단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 쓰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계발시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과학이 발전이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거기서 받아서 그렇게 또 발전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못 쓴 마음이 올라가서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참…, 이건 이름을 지어서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모두가.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꿈을 꾸더라도 한생각 잘하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그냥 중생이어서 모자라니까 내가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주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고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는 자원이 나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끌어 쓸 수가 있는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

☞ A30면으로 계속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茗園
財團法人
茗園文化財團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은

- 한국차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선생의 뜻을 이어 전통다례예절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다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차문화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옥관문화훈장을 수여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입니다.
- 우리 차와 예절의 생활화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전통다도예절지도자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명원문화재단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272 / 전화 02)730-7191~2
명원다례전수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07 / 전화 02)742-7190~2



모두가 내게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생명들이다

☞ A29면에서 계속

풍으로 살고 있고, 지수화풍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그냥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다 통신이 돼서 만물이 전부, 개개인이 짹짹짹짹만 해도 '요건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은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차원이라고 해서 우리 잣대로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 정말 풍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깔보지 마라. 뭐든지 네 스승으로 알아라. 알더라도 두드려 가면서 가거라. 알더라도 물어 가면서 가거라." 이러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일체를 스승으로 알아야 하고 또, 일체가 나의 은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한 치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일체 만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상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모두가 내게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생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이지 모두에게 은혜를 갚는 게 되고 정법으로 꼭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음법이 '대승법(大乘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큰, 큰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넓혀 가는…, 마음은 한계가 따로 없어요.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그 넓게 쓰는 마음도…,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죠.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게 들어오게 한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놓아라. 또 잘돼서 들어오는 건 '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 놓아라. 그래야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믿어서 '뿌리야! 너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 보내 다오.' 하는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몸뚱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허허허…. 침착하게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데 그냥, 그 빈 손과 빈 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의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할 텐데 이거는 뭐,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허,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청하지 않고도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일이 됩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로 놓아두면 그냥 밥이 됩니까?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냥. 허허허…. 그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 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거와 같아요. 생각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첫째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는 게 참 여러분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셋째 일요일 날도 그저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해서…, 이제는 여러분한테 말도 많이 했으면서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이 없이 질문하고, 또 함이 없이 대답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하고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 책이라는 거는 내가 썼든 누가 썼든 길잡이일 뿐이지, 깨닫는 것은 책이 아닌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틀어넣으면서, 입력을 시키면서, 모든 것은 거기를 전제로 해서 부지런히 뛴다면…, 뛰는 자체도 바로 거기니까, 뛰게 하는 것도 그놈이니까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사는 걸 보면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필이면 이런 걸 보고 살게끔 했나.'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야, 이 왕이면 왜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하느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지죠. 이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는 거라 그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바꿔도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몽땅 다 가르쳐 놓는다면 오히려 안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자에 살던 나를 발견해 내지 못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있어야만 심성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과학을 진짜 발전시키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네가 아니라 전자에 살던 너부터 발견해라. 그러면 모두 찰나찰나 들고 나는 거를 알 수 있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든지 생명이 있는 거든지, 보이는 거든지 안 보이는 거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둘 아니게 할 수 있다. 둘 아니게 볼 수 있고, 둘 아니게 작용할 수 있다." 이래야 우주하고도 직결이 된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그렇게 위대하게 띄워 보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어느 부분이든 하나만 딱 잘못해 놓으면 그냥 그거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수명이 그렇게 단축되는 겁니다.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의 마음만 하나 어떻게 해 놓으면 그 비행기는 그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도리이면서도 자비한 도리이고, 자비하면서도 무궁무진한 도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혜성이 우리 지구에 부딪쳐서 지구가 아주 망가지고 인명이 많이 상하게 생겼다, 지구가 그냥 파워를 일으켜서 모두 부서져 버린다든가 타 버린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내가 그 혜성이 된다면 내가 나를 지구로 알고 있는데 부딪치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혜성이 돼 가지고 그 혜성을 저 먼 데로 끌어다 놓고 옵니다. 허허허….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아주 광대한 법이며, 정말 부처님 법이라기보다도,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 법이고, 우리들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이 광대한 법을 부처님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세세생생에 이 도리를 모르면 자유인이 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평등공법(平等空法)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날더러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용어를 달리한다고 해서 아주 부처님 법하고는 다른 세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다고 지금도 달구지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신 게 있었을 겁니다.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을 바꿔라. 방편도 바꾸고. 난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돌 하나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이 천체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들 법 따로 있고 시체 법 따로 있고 과거 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찻잔을 가리키시며)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전에는 뚝배기같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좋게 꽃처럼 만들어서 찻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죠. 그런데 찻잔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이름이 지금 현실에 필요한 거지, 전자에 뚝배기라고 했다고 해서 찻잔을 뚝배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다 똑같아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오늘, 오는 오늘이나 똑같은데 발전하는 대로 용도와 그 방편이 변하죠, 자꾸자꾸.

그래서 어린애를 갓 낳아 놓으면 애기라 그러고, 조금 자라면 학생이라 그러고, 조금 더 자라면 청년이라고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어른이라고 하고, 더 자라면 늙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물질이 생긴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갓 낳은 애기를 어떻게 늙었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이름도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며 발전이며, 우리가 물질과학보다도 심성과학으로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공부입니다.

내가 이랬죠. 이 전력이 (천정의 전등을 가리키시며) 들어오는 것을, 태양열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는 못 보죠? 보지도 못하고 쥘 수도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죠? 그러나 그 태양열을 받을 장비만 해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태양열이 들어와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광대한, 그 묘한 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습니다. 절대죠, 아주. 절대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맡겨라 이거죠, 절대 있는 거니까. '살아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절대 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부처는, 내가 법당에 들어가야 부처가 있는 거고, 변소간에도 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평등하게 생각하면 부처요, 생각을 한생각 냈다면 법신이요, 또는 한생각 내서 움죽거리겠다 하면 움죽거리는 것이 화신이니,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다?

그러니 내가…, (잠깐 말씀을 멈추시고) 그 책을 보든지 안 보든지 틀림없이 그 내용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뒷면에 약간의 좀 허술한 데가 있지만 그대로 아주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긋나질 않게 한다면 진짜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그 사방이 툭 터진 공부는 오히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걸리는 게 없지만 벌써 책을 써 놓으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자유스럽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도반들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진짜로 들어가서 진짜 함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로만 했지만, 사실은 함이 없이 그대로, 내가 목마르면 (컵을 들어 보이시며) 물 마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컵이 저기 있는데 컵은 어떻게 생겼고 물은 얼마나 담기고 뭘로 만들어졌고 뭘로 했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걸 갖다가 마실 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에 올 일 년만이라도 더 진지하게 들어가서 보충해서 내놓으시도록 하세요. 앞뒷면에 더 좀 보충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한마음 식구고 하나로 돌아가는데 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에서 한마음 아무개 님이 바로 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 마음공부의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번 해 보시면 알 바가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 나오니까요. 허허허….

내 자생중생들을 제도함으로써 내가 제도가 되고,
내가 제도가 됨으로써 내가 견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자생중생들이 나요, 내가 자생중생이니까, 모두가.

※위 법문은 1994년 5월 1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수련회

■ 일 시 : 2018년 5월 24 ~ 25일 (목요일 낮 12시)
■ 장 소 : 남해 비치호텔 (남해군 남면 두곡,월포해수욕장)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75-13
■ 전 화 : 055)862-8800, 팩스 : 055)862-0750, 010-2907-3321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직통), 010-4167-3666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奉祝隨想

나에게 부처님이 오시려면

법상 스님
국방부 원광사 주지
목탁소리 지도법사



그림 · 강병호

부처님오신날, 휘황찬란한 행사가 아닌
生을 분별없이 받아들이고 살아나갈 때
자신의 마음에 비로소 부처님이 오신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옵니다. 대웅전 앞 철쭉은 활짝 피었고, 아카시아 향기도 경내를 온통 물들입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고, 그 햇살을 받아 나무들은 저마다 초록의 개성 넘치는 옷을 갈아입으며 반짝거립니다. 도량 주위로는 우거진 숲이 감싸고 그 숲의 정원 너머로 도시의 마천루들이 마치 거대한 일주문인 양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매 순간 아무 문제없이 저절로 완전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기대용(大機大用)의 법계(法界)에서 소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기대용이란, 말 그대로 이 우주법계는 한생명의 무한 기관인 대기로써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한바탕의 큰 쓰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법당에서 이름 모를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미는 제 스스로 알아서 새끼를 낳고, 탯줄을 자르고, 태반을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고, 태어난 새끼를 혀로 핥아주고 젖을 물렸습니다.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것임에도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산부인과도 가지 않고, 저절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르고 있었지요.

고양이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우주법계의 자연스러운 무위(無爲)의 실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봄이 되면 눈이 녹고 땅 위로 꽃들이 앞 다투어 피어납니다. 저절로 무궁무진한 꽃과 풀과 나무의 향연이 축제처럼 펴집니다. 여름에는 우거진 숲이 저절로 피어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합니다. 자연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은 이어집니다. 온몸에 따뜻한 피를 돌리려고 애쓰지 않는데도 저절로 혈액은 흐르지요. 36℃에서 37℃ 사이로 온몸의 온도를 완벽한 생명 시스템으로 유지시킵니다. 저절로 배고프면 밥을 찾고, 밥을 먹고 나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니 조물주나 그 어떤 절대자가 우주를 돌리는구나 싶겠지만, 사실 바로 그 절대자요 조물주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한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공화상이 무위대도자연(無爲大道自然)이라고 노래했듯, 큰 도는 이처럼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주어집니다. 내가 바로 대도이며, 내가 바로 우주이고,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입처개진(立處皆眞)이며, 촉목보리(觸目菩提)이고, 제법실상(諸法實相)이 그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셨다고 불교계 안팎에서는 한껏 들떴습니다. 5월 12~13일 열린 연등축제에서는 환희의 축포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처님오신 날은 바로 이러한 무위와 자연, 불이중도(不二中道)라는 대도에 눈뜨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 왜 그토록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왜 그토록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법실상의 완전한 삶을 대상으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 들고 하면서 끊임없이 시비하는 우리의 분별심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못 사는 것일까요? 무유정법(無有定法), 거기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일 뿐이지요. 모든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만법유식(萬法唯識), 유식무경(唯識無境), 행복과 불행, 그것은 오로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를 통해 진실을 깨달으면, 삶은 곧장 아무 일 없는 제법실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 곧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도달합니다. 아니 이미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증명해 보여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매년 잊지 않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립니다. 그러나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그럴 듯하게 준비할지라도,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으면서 밤낮으로 남의 돈만 헤아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김하온이라는 친구가 '명상래퍼'라는 독특한 별명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하나의 frame이란 걸 깨달은 거지. 고통 없이는 얻을 게 없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지 않니? 그래서 그 frame에서 벗어나려고 했어. 최대한 즐긴 것 같아. 웃으면서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또 이런 가사도 썼지요. "생이란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왜 우린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가? 원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울러 주는 답."

큰 도는 자연스러워 애쓸 것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은 하나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난다면 지금 이 자체로써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실상은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환상, 노력해야 한다는 환상, 둘이라는 환상을 만들었을 뿐, 부처라는 우리의 자성은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노력할 것도 없으며, 이 모든 삼라만상의 세계가 곧 하나의 진실한 세계, 일진법계(一眞法界)일 뿐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의 온갖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지금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아무런 문제없는 생생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 놓은 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 애쓰고,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애쓰는 등의 온갖 유위(有爲)의 노력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 둘이 아닌 하나의 실상, 하나의 부처밖에 없음에 눈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울러 주는 답'은 바로 그 '하나'입니다. 나와 남으로 둘로 셋으로 나뉠 때 온갖 문제가 만들어지지만, 둘이 아닌 불이중도(不二中道)로 돌아올 때,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애쓸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습니다.

삶을 그저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어 보세요.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취하고 버리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Let it be! 삶이 내 존재 위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가 진리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나의 삶이 가장 완전한 진리의 피어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바로 지금 그 모든 것의 원천인 이 자리에 그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나로써 피어난 한 분의 부처님의 삶을 그저 받아들여 판단 분별없이 자연스럽게 살아 주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때 나에게도 부처님은 오십니다.

社說

남북불교교류 재개 기대한다

남북불교계가 2015년 이후 단절된 교류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3년 만에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내달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 평화무드에 맞춰 민간차원 교류의 첫 물꼬가 트인 사례다.

이번 공동발원문에서 남과 북은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서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한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와 함께 남북불교도는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자주통일의 법등으로 높이 들어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통일보살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남북불교계가 앞장서겠다는 발원이어서 의미가 크다.

3년 만의 공동발원문 채택은 판문점 선언 이후 순수 민간차원의 사회문화분야 교류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남북불교 교류사업 재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오래 전부터 남북불교계는 개성 영통사 · 금강산 신계사 등의 사찰 복원불사와 더불어 남북합동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선양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며 더 이상의 교류가 불가능해졌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훈풍을 타고 북녘에 한국불교의 교류 의지를 전할 시간이다. 장기간 방치로 훼손된 도량을 보수하고, 역대 조사들을 기리는 법석을 남북불교계가 함께 열면서 온갖 세상사에 시름하는 중생을 위한 가피의 손길을 내밀 때다.

수행 · 신앙 함께하는 불교돼야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은 퇴임하면서 '성운학술상'을 제정했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첫 수상자를 선정했다. 학회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학술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이유는 신행 관련 연구를 전문으로 한 학술상이기 때문이다.

성운 스님은 학술상 제정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불교와 불교학계가 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신행과 실천으로서의 불교이다. 학술상은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촉진 ·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본지는 올해 봉축특집으로 수행의 필요성과 권선을 위한 '이제 다시 수행이다'를 기획했다. 탈종교사회로 접어든 한국이지만 명상 붐이 불고 있고, 무문관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대중의 수행 욕구는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종교가 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심을 기반으로 한 신실한 신앙과 종교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행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 기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복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은 불교를 '절름발이 종교'로 만들 수 있다. 기복을 통해 가피를 얻고 발심해 수행하며, 변화를 위해 나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다. 기복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기복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보면 기복 · 가피 · 신앙 · 수행은 모두 불교에 필요한 요소이다. 불교는 신앙과 수행의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불교에는 부족한 지점이 많다. 교리 위주의 신도 교육과 수행 · 신행 지도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불교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오롯이 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세계 일화 신뇨엔 (真如苑)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Shinnyo-en

신뇨엔(真如苑 : 진여원)은 부처님의 깨달음,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찾아내고 싶고, 그리고 각자에게 그러한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이타를 위해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원주(苑主) 미국 USC 강의 中 -

종교법인 신뇨엔(真如苑 : 진여원)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입니다.









真如苑 의 현재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18개국 40여개
□ 집 회 소 : 51개국 930개
□ 한국정사 : 서울 · 부산 · 제주 · 창원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 Seoul (02)719-6998 Busan (051)892-6998
• e-mail : shinnyoen@hanmail.net

김영사

내가 가는 이 모습도 공부하라

"스님, 임종게를 남기시지요."
"분별하지 말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것이니라. 간다, 봐라."

신간



간다, 봐라

법정 스님의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법정 스님 지음 | 리경 엮음 | 양장 | 280쪽 | 14,500원

세월을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는 법정 스님의 투명한 사유와 순수한 언어

처음 공개되는 법정 스님의 임종게와 사유 노트. 스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미발표 원고부터 지인들의 일화와 편지까지. "생의 모든 순간을 환영하라!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어려운 일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위한 법정 스님의 맑고 깊은 영혼의 메시지.

신간



이 밖에 무엇을 구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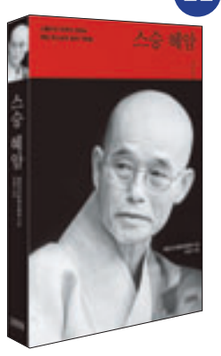
법정 스님 유품 사진집

양장 | 232쪽 | 68,000원

| 법정 스님 유품 전시회 | • 일시 : 2018.5.11(금)~5.22(화) 10시~18시(월요일 휴무) • 장소 : 서울 삼청동 학고재 • 문의 : 02-720-1524~6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신간



스물다섯 인연이 전하는 혜암 큰스님의 삶과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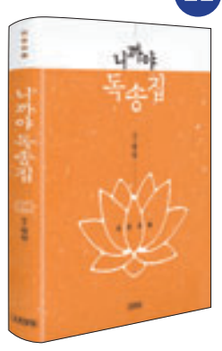
해인총림 제6대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내며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일일식一日一食과 평생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실천하며 고행정진으로 참선수행한 혜암 큰스님. 2020년 혜암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혜암 큰스님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그의 삶을 직접 목격한 25인의 증언과 일화를 사진과 함께 담다.

스승 혜암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지음 | 유철주 대담 | 378쪽 | 16,000원

부처님의 금구설법 〈니까야〉 독송으로
세존의 진정한 가르침에 다시 합류한다

신간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 의례를 재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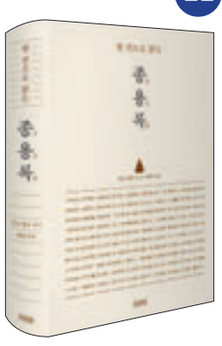
불교 의례를 정리해 놓은 기존의 법요집들은 양이 방대하고 의례 자체가 세존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세존의 금구설법 가운데 각종 의례에 적합한 게송과 주제를 모아 의례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은 불설불교와 비불설불교를 분별하는 안목을 제공하여 다시금 세존의 진정한 가르침에 합류케 한다.

니까야 독송집

비구 범일 지음 | 양장 | 196쪽 | 13,000원

〈벽암록〉과 쌍벽을 이루는 조동종의 바이블
선불교 화두의 지혜를 한 권으로 읽는다

신간



깨달음 직전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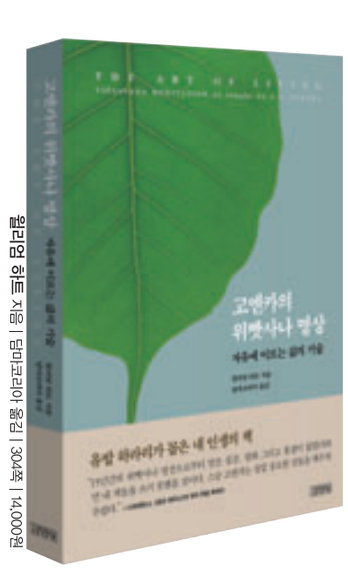
칭기즈칸의 재상이었던 야율초재耶律楚材(1190~1244)가 만송 행수萬松行秀에게 공안집을 쓰기를 청한 것이 아홉 번, 그러고도 7년을 기다려 이루어진 것이 《종용록》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장, 불교대학원장, 정각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명예교수인 혜원 스님이 쉽고 간결하게 풀어 엮었다.

한 권으로 읽는 종용록

만송 행수 편저 | 혜원 역해 | 양장 | 504쪽 | 21,000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호모 데우스》를 탄생시킨 그 책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법 한국 최초 정식 출간



자유에 이르는 삶의 기술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전 세계 25개국 스테디셀러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의 생생한 가르침을 책으로 읽는다

윌리엄 하트 지음 | 담마코리아 옮김 | 304쪽 | 14,000원

"저는 하루 두 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위빳사나 명상을 통해 얻은 집중과 평정이 없었다면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같은 책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옥스포드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고엔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만났고, 그 이후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_**유발 하라리** 《사피엔스》《호모 데우스》의 저자



S. N. 고엔카 (1924~2013) 세계적인 위빳사나 명상 지도자. 31살에 위빳사나 명상과 만나 스승 우 바 킨 곁에서 14년 동안 수련하였다. 종파에 치우침 없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그의 열린 마음은 다른 종교, 배경, 계층, 성별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고엔카의 위빳사나 10일 코스

윌리엄 하트 엮음 | 담마코리아 옮김 | 216쪽 | 11,500원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은 숭산스님의 가르침



숭산스님의 말씀을 집대성하다

부처를 쏴라

숭산 | 현각 엮음 | 양언서 옮김 | 208쪽 | 15,000원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단 하나의 지침서

선의 나침반

숭산 | 현각 엮음 | 허문명 옮김 | 484쪽 | 18,000원

법륜스님이 전하는 인생 문제 해결 비법



가정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책

날마다 웃는 집

법륜 | 224쪽 | 10,800원

직장인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찾아주는 책

행복한 출근길

법륜 | 220쪽 | 10,800원



세상의 진실에 눈뜨게 하는 명쾌한 안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 800쪽 | 28,000원

가장 쉽게 연기론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

백창우 | 212쪽 | 13,0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괴로움의 근본 '나'를 벗어나는 가르침

백성욱 | 김원수 엮음 | 225쪽 | 10,000원

행복한 공부

밝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마음공부의 핵심

김정섭 | 162쪽 | 8,000원

흔적 없이 나는 새

쉽게 풀어쓴 황벽선사의 〈전신법요〉 길라잡이

수불 | 604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세계인의 마음과 지성을 일깨운 삶의 지침서

달라이 라마 · 하워드 커틀러 | 352쪽 | 12,800원

선심초심

일상의 명상, 일상의 깨달음을 위한 안내서

스즈키 순류 | 정창영 옮김 | 260쪽 | 13,000원

修行
이제 다시 수행이다



서울 강남 참불선원의 5일 집중수행 전경. 선원장 각산 스님과 재가 수행자들이 좌선하며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현재 신도교육은 교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 교육과정의 병행이 요구되고 있다.

수행, 나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

왜 수행해야 하는가

불자 70% '수행 안 한다' 응답
'수행 방법 모른다' 이유 다수
신도교육 교리·신행 연결 부재
눈높이 프로그램 개발 필요해

표1. 불자들의 수행, 기도법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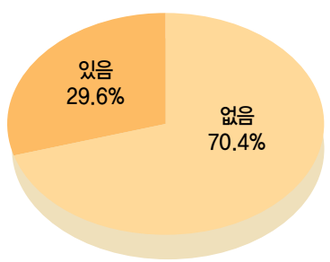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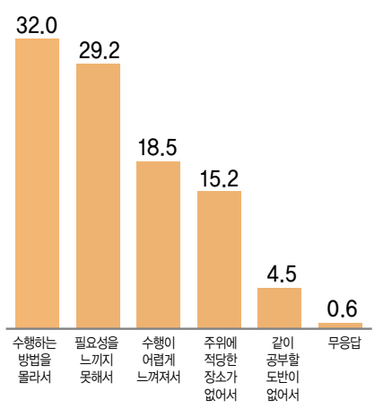


표2. 수행을 안 하는 이유(%)



출처 :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201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수행은 불교가 자력신앙이며, 다른 종교와는 차별점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정확하게 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가 답이다.

현실 불교, 수행의 종교일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불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실천 중인 수행·기도법 유무에 대한 질문에 29.6%만이 수행법이 있다고 답했으며, 70.4%가 수행법이 없었다. 반면 타종교인들은 39.1%가 수행을 한다고 밝혀 불자보다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수행을 한다고 밝힌 불자들은 대부분 염불과 호흡명상(21.3%)을 선호했으며, 경전 읽기(18.7%), 봉사(12%), 절 수행(9.3%)이 뒤를 이었다.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은 4%만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불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수행하지 않는 불자들은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32.0%)'가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2%)'와 '수행이 어려워서(18.5%)'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반인 수행 욕구 늘어나는데

한국 사회가 비종교인이 절반을 넘은 탈종교화 사회이지만, 반대로 일반 대중의 수행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있다.

탈종교화 현상인 세속화와 탈제도종교화에 기인하지만 '명상의 대중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따르면 '마음 수련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25%가 불자였고, 개신교인이 33%로 가장 많았다. 가톨릭은 23%로 비슷해 모두 대동소이한 수치를 보였다. '종교보다 개인적 수련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에는 불자가 3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인은 25%, 가톨릭인은 29%였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한국인들의 신앙이 제도종교 중심의 신앙 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신앙 생활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명상의 대중화는 일견 불교에는 큰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 참선이나 명상 수행이 특정 종교나 종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종교적 영성·신행·실천이 없는 명상이나 유사불교 수련은 도리어 종교의 사사화(私事化)·세속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김성건 서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종교의 미래:사회학적 전망'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 변동은 △제도 종교에서 소비적 영성으로 전환 △종교의 사사화와 상품화로 요약된다"면서 "이는 종교인과 종교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성찰적 신앙에서 세속적 건강과 부(富)의 숭배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어긋난 욕구를 바로 잡기 위해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연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며, 나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치관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전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수행의 대중화는 필요하다.

물론, 수행 대중화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조계종 교육원은 전국선원수좌회와 협의해 '간화선 지침서' 편찬을 추진했고, 2005년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을 간행해 2만권 이상 출간하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렇다 할 노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종단 차원의 간화선 종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명상 포교 현장 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위해 지난 2015년 4월 한국불교명상지도자협회를 출범한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일반 재가불자들의 호응이다. 이들에게 수행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문부터 발심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불교 개론·불교사·종단사·경론 등 교리에 치중돼 있다. 참선을 비롯해 절, 염불, 간경 등의 수행법을 배우거나 실습할 수 있는 과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교리 강좌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진 불자라면 대다수 수강했을 정도로 시스템화 됐다. 이젠 신행 과정이 별도로 교육 커리큘럼화 돼야 한다"면서 "현재 포교원 차원에서 신행불교대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수행 대중화를 위해 종단 차원의 사부대중 수행체계 정립과 이 같은 종무행정을 담당할 수행 전문 부서와 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조계종의 수행 현황부터 역사와 전통, 문제점과 전망·과제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낸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조계종 수행 현황과 과제 연구 보고서(2016)〉는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종단 차원의 수행체계와 이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이 다양한 유사 종교 수련단체들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불자들이 사찰이나 부처님 교법서 마음의 고통을 해결 못하고 종단 밖의 수행·수련 단체로 가서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면 그것은 불교와 종단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종단 수행 포교 과제로 △종단 사찰과 포교당의 시민선방 현황 파악 △종단 차원 신도 수행프로그램·교재·지침서 개발 및 발간 △수행지도자 양성 △종단 사찰 재가선원에 프로그램·교재 제공해 수행 입문 및 심화과정 운영·관리 △종단 차원 수행 전문 사이트와 전문 집중 수행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종단 수행 종책에는 수행이 무엇이며, 목표와 수행 방법, 효과를 담아내면서 프로그램 교재, 매뉴얼 개발과 보급, 지도자 양성 방안, 국내외 수행센터 운영과 지원 방안을 담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종단 지도부와 제방 사부대중은 종단 수행체계의 정립과 실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행의 다양화를 위해 상호 수행에 대한 존중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조계종은 간화선을 종지로 수행하지만 염불·주력·간경 등 기타 수행법을 인정·수용하고 있다"면서 "묵조선도 위빠사나도 모두 중도연기, 무아, 공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이다. 이제 상호 수행법을 존중·배려하며 더불어 함께 시대에 맞는 종단 수행체계를 정립·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SIDE

B11
시방세계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JSA 방문

B19
4차 산업과 불교
황종성 연구원의 '스마트시티와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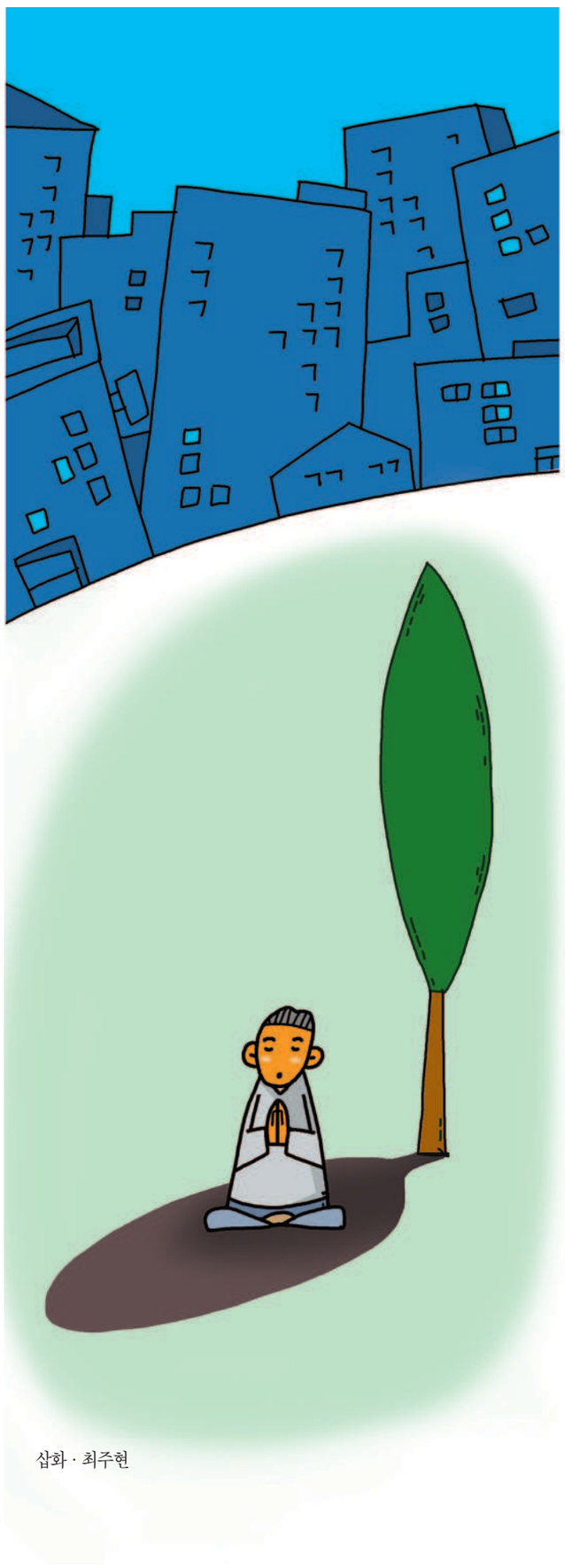
B21
사찰 경영, 산문에 들다
승가 발전 어떻게 이룰 것인가

B23
다시 찾아야 할 성보들
하동 쌍계사의 도난 성보

지금은 명상시대, 불교명상의 현주소

바야흐로 명상시대다. 여러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향상, 스트레스 관리 등을 명상을 통해 이루고 있다. 명상시대에 불교 명상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들을 들어봤다.

10만 '불교명상Master' 양성합시다



삽화 · 최주현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 명상 도입
美마음산업 1조원 규모로 성장해
불교, 연합회 창립 등 잰걸음

쉽게 실천할 명상법 개발 · 센터 필요
일반인 · 불자 가르칠 전문인력 양성
국제명상단체 등과 학술 · 수행 교류도



선업 스님
본지 논설위원,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요즘 들어 명상을 접하는 일반인들의 질문 형태가 바뀌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명상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명상이 좋다는 것은 알겠고 체험을 통해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구글 · 애플 · 빌 게이츠 등 세계를 무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 명상은 이미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지금은 마음 때 빼는 명상시대

글로벌 그룹인 구글(Google)은 직원들을 위해 '내면검색 프로그램' 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구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gPause: 명상하는 창업가들' 이라는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명상 및 네트워킹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구글에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차드 멍 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국내에서도 2015년 7월부터 매월 진행되고 있다.

명상을 '산업' 의 측면에서 분석한 포춘지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 이후 미국에서만 한 해 명상과 마음챙김 관련 산업 규모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천 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명상은 창의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포브스의 최근 기사와 맥을 같이 한다.

국내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에서 명상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묵상과 관상 그리고 명상이라는 이론적 틀을 갖추고 명상을 구조화하고 보급하고 있는 가톨릭을 비롯하여, 명상과학연구소를 설립한 KAIST, 그리고 대한 명상의학회를 출범시킨 의학계 등 명상 연구 및 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야흐로 '명상의 시대' 가 도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와 같은 명상시대의 도래는 명상의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1차적으로 명상의 가장 큰 효과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로 과부하가 걸려 혼란한 TMI(Too Much Information) 시대에 불안 · 공포 · 우울함 · 분노 같은 부정적 심리현상의 물을 빼주어 홀가분함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것이다.

명상은 현대로 오면서 그 혜택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입증되면서 인간의 육체와 마음 모두에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재평가되고 있다. 최근 '명상치료의 과학적 연구' 라는 주제로 발표된 심리학과 의학에서의 명상치료 연구 현황에 따르면 명상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엄청난 압력 속에 직면한 현대인들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명상은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집중력과 결단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통찰력과 직관이 좋아져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서 난처한 일이 생겨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명상을 습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명상, 어디까지 왔나

이와 같은 명상시대의 도래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국내 명상 단체들의 화학적 결합을 가져와 2015년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20여 단체가 모인 연합회 성격의 협회가 안정적으로 구조화되면서 각 단체별로 이루어지던 적은 규모의 명상인력 양성의 양상이 규모를 배가하는 쪽으로 틀이 바뀌었다.

올해 명상전문지도사 2급 합격자의 인원이 196명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대응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산하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을 통해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을 개설하고 올해 실시한 불교명상지도사 2급 시험의 합격자 숫자는 201명이다.

올해 1급 지도사들이 나오고 연이어 새로운 2급 지도사들이 배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명상지도사들의 배출은 새로운 명상시대의 윤활유로 작동할 것이다.

불교, 명상시대서 무엇을 할까

도래한 명상 시대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대응과제는 '핵심이 되는 명상법 캠페인' 이다. 예를 들어 무(無)라고 하는 핵심 화두를 활용하면 시의 적절한 문구를 만들 수 있다. "물에서 'ㄹ' 을 빼면 無"라고 하면, 정보 홍수의 시대에 감각적 욕망으로 물든 마음, 바로 그 마음의 굳은살을 뺀다는 명상의 1차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 자신의 본성품을 확인하는 과정에 동참시키는 길잡이로 핵심문구를 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두 챙김을 '아침에 일어나 마음에 불 켜기' 라는 문구로 소개하고 화두를 마음의 등대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결한 문구를 사용하여, 명상이 일상을 지혜롭게 사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를 응용하여 '화두로 숨쉬기' 그리고 '화두로 걷기' 등으로 확대해 간다면 생활명상으로 화두명상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경우는 "지금 순간, 멋진 순간(Present Moment Wonderful Moment)" 등 매우 간결한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알아차림의 씨를 심어 수많은 명상 제자들을 길러냈다.

다음으로 훈련된 '명상지도사 10만 명' 을 양성하는 것이다.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시군구 아래에 있는 220개 읍과 1193개면과 2089개동에 최소 3~40명은 배치되어야 비로소 명상이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화된 명상 수업 과정을 토대로 자애명상, 수식관 등의 기초적인 명상에서부터 사마타, 위빠사나 그리고 염불명상과 화두명상에 이르는 다양한 명상법을 학습한 인력이 집중 교육과 수련을 통해 꾸준히 배출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발달 단계별로 특화된 명상지도사도 함께 양성해야 한다. 특정한 증상을 앓고 있는 특정 세대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데 적합한 이들은 바로 또래 명상가들이다. 같이 호흡하고 함께 집중하다보면 같은 세대의 고민을 해결할 지혜가 모아질 것이다. 명상을 통한 지혜 계발을 통해 또래에 의한 또래를 위한 또래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명상을 지도할 국제적 네트워크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국제적인 명상 스승 숭산 스님의 이력을 보면 '1966년부터 30년간 일본 · 홍콩 · 미국 등 세계 30여 개국 120여 군데에 홍법원 및 선원을 개설하여 한국 불교의 선(禪)을 세계에 전파했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오직 모를 뿐', '세계는 한 송이 꽃' 이라는 유명한 법문으로 달라이 라마, 틱낫한, 캄보디아 종정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불리며 전법에 매진했지만 스님 이후 한국 명상의 세계화는 답보 상태이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명상 지형의 확대는 숭산 스님의 큰 족적을 조금씩 나누어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가 가능할 것 같다.

먼저 국제적인 명상센터 상호 방문을 시작으로 공동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로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명상방법과 명상효과 점검의 교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확보한다면 명상 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명상리더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거점 명상 센터를 지정하여 명상 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 교토에 있는 선종 사찰 묘신지(妙心寺) 순코인(春光院)에는 명상을 체험하기 위해 매년 5,000여 명의 서양인들이 방문한다. 방문객들은 주로 하버드 · MIT · 와튼 스쿨 등 세계 명문대학 학생들과 글로벌 기업의 CEO 등이다.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먼 거리의 일본까지 와서 명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그 명상 센터에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외국에서 오지 않더라도 이웃의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또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개방된 명상 센터가 바로 옆에 있다면 그들은 명상 교실에 참석하게 된다.

부처님의 전도 선언에 나오듯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명상 방법을 지도하는 지도 인력이 그 곳에 있다면 누구라도 찾게 된다.

결국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명상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명상센터의 확대는 도래한 명상시대의 꽃을 피우는 필요충분조건이자 명상하는 방법을 묻는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대한불교 총화종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종 정 전남정

부 종 정 이남은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 육 원 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포 교 원 장 김기태 문 화 원 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빈성혜
조사부장 김지현 문화부장 양혜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대 전 종 무 원 장 김해송 울 산 종 무 원 장 백만우 경 북 종 무 원 장 신본원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 주 종 무 원 장 김청해
부 산 종 무 원 장 박지광

유 발 승 회 장 이지수 유 발 승 총 무 옥지광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 축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지혜속에서 복과 덕이 함께하여 기쁨이 온 누리에…
우리는 모두 부처님과 같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떳을 때 고통스러운 현실을 불국토로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시날에 우리의 염원을 한데 모아 총화단결하고 종단 발전의 시발점으로 삼고 종단 중흥불사에 힘을 모아 더욱 정진하는 해(年)가 되고 부처님 가피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수행과 신앙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신앙을 통해 신심을 고양시키고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 불교에는 필요하다. 수행 대중화와 신행 고양에 대한 방안을 들어봤다.

수행 대중화 · 신행 고양 어떻게

현대인 눈높이 맞는 수행 · 신행 개발을…

齋 익숙한 신도들 수행과 괴리

불자들 교육 · 수행 욕구 높지만

現 사찰 · 스님 충족 시도 전무해

교단 차원 수행 연구기관 설립해

쉽게 실천할 수행프로그램 개발

사찰 신도교육 · 법회 방식 변화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사회적으로는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올해만 해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스키선수 제이미 앤더슨, 우리나라 여자 컬링선수팀인 킴스 등이 명상을 통한 마음의 안정이 좋은 성적을 이루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불교의 전통에서 수행은 간화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수행하는 불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찰의 모든 법회에서는 입정(入定)의 시간이 있고, 마음을 집중하여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방법이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불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때문에 수행을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불자들은 매일 적극적으로 수행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행 · 신행 괴리의 원인은

불자들의 신행활동과 전통 수행법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스님들의 수행방법과 신도들의 신행활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 스님들은 사자상승의 원리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불자나 사찰의 신도들은 신라시대 이후부터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재(齋) 의식과 염불수행에 익숙해져 있다.

둘째, 수행은 정신수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불자들의 신행은 기복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특성의 차이 때문에 수행과 신행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났다. 불자들의 현세구복적 신행활동은 사찰에서 봉행하는 재의식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재 의식은 조상에 대한 효사상의 실천 유주무주 고혼에 대한 시식으로 공덕을 짓는 형태로 수용되었다. 본래 재 의식은 법회를 열고, 설법을 듣고 정진하기 위한 장으로 설행된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조선시대의 척불정책으로 인한 전통불교 사상과 수행체계가 위축되고 여기에 농경사회의 유습이 불교적 전통으로 습합되고 그리고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발원 등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한국불교계는 수행불교의 본질과 다소의 괴리가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불자들은 사찰의 신행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서 교육과 신행활동, 사회적 봉사와 조직화, 불교문화 전승 등의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는 지금까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 직면했던 것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우울증 · 분노조절장애 · 불안감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서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방법인 참선과 명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약물이나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의학적, 상담심리적 접근방법이 근본적 치유와 더불어 예방하는 성과를 완벽하게 거두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약물 남용과 중독 문제 발생, 예방보다는 치료적 결과에 관심을 둠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효과적인 자가치유 방법을 모색하던 연구자들이 불교의 명상법에서 해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명상 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사찰에서는 전통적인 법회방식, 재 의식 등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종교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법회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급감하고, 사찰의 신행활동도 외면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교리 · 수행 연계 체계 필요

불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염불 · 주력 · 기도 · 절 · 간경 등의 신행활동이 좌선 · 간화선 · 선정수행 · 명상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방법이라고 해도 동참하는 불자들이 어떤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행에 머물거나 수행과 연계되기도 한다. 현재 불교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신행활동과 수행방법 사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교리적 근거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대념처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행활동을 수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심법의 사념처(四念處)를 통해서 현상을 관찰하고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공(空)과 중도(中道)의 이치를 체득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궁극의 열반, 조건과 취착에서 벗어난 행복에 도달하도록 사법인(四法印)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선근을 증장시키는 사정단(四正斷)을 강조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진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사여의족(四如意足)을 설하였다.

그리고 깊은 선정을 체험하도록 사선정(四禪定)을, 지혜로운 삶을 완성하도록 사성제(四聖諦)를 제시하였다. 선정체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고리인 칠각지(七覺支)를, 그리고 삶 속에서의 실천을 위해 팔정도(八正道)를 교설하였다. 또한 불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네 가지 청정한 믿음인 사불괴정(四不壞淨)으로 물러남이 없는 확고한 신심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었다.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인 간화선이나 남방불교 수행전통인 위빠사나도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수행자들이 생활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을 뿐이다. 또한 수행자의 체험과 지도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차이점들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행 대중화를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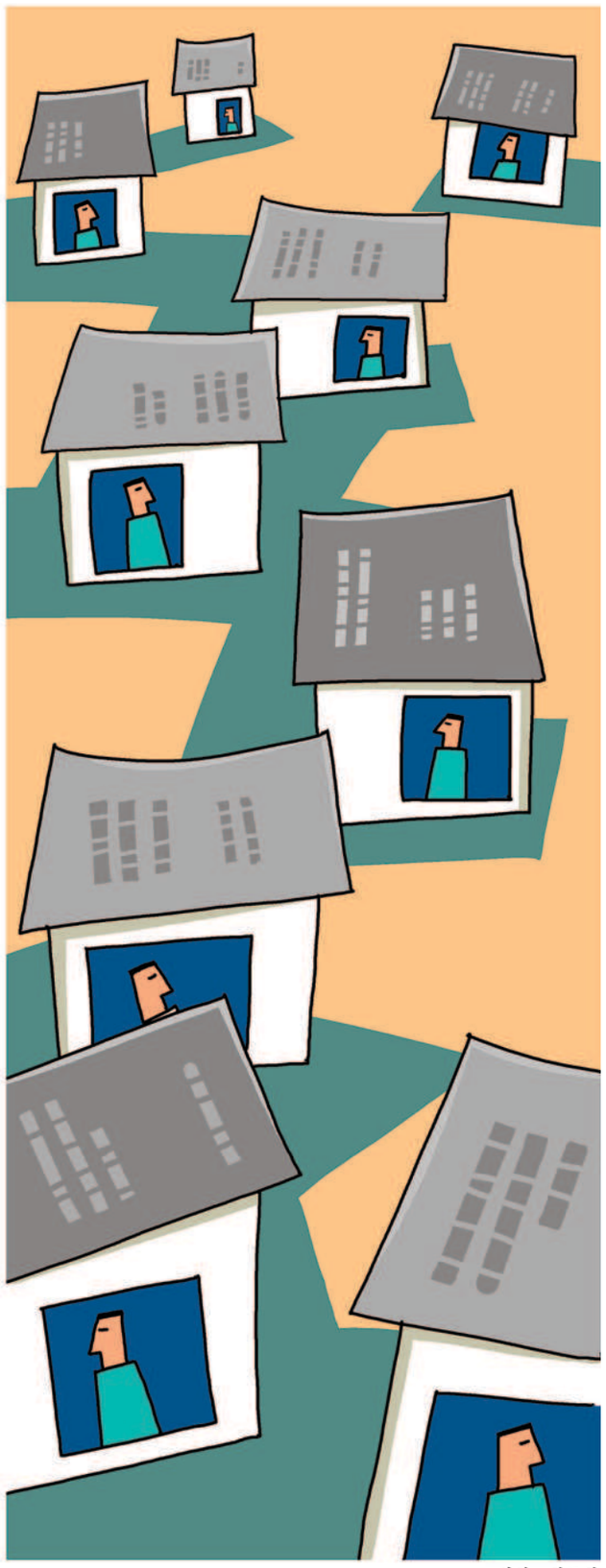
최근 불교계에서는 금강선원을 비롯한 17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명상지도자협회를 설립하고 실참 실수를 거쳐서 명상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시의적절한 활동으로 불교명상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하는 바 크다. 다만 참여단체의 명상법과 활동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불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체계화된 수행체계, 사회적 활동 방법 등의 측면에서 연구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불교명상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경전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독송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방법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신행과 수행의 괴리감을 쉽게 좁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적 차원에서 해야 할 첫 과제는 불교수행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일이다. 현재는 전통 수행방법을 응용하고 실참하는 단체는 있으나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집결되지 못하고 있다. 간화선의 경우에도 수행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연간 약 2000여 명이 넘지만 그 수행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결집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전통 수행을 계승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대중화된 프로그램을 불교적 관점에서 검증하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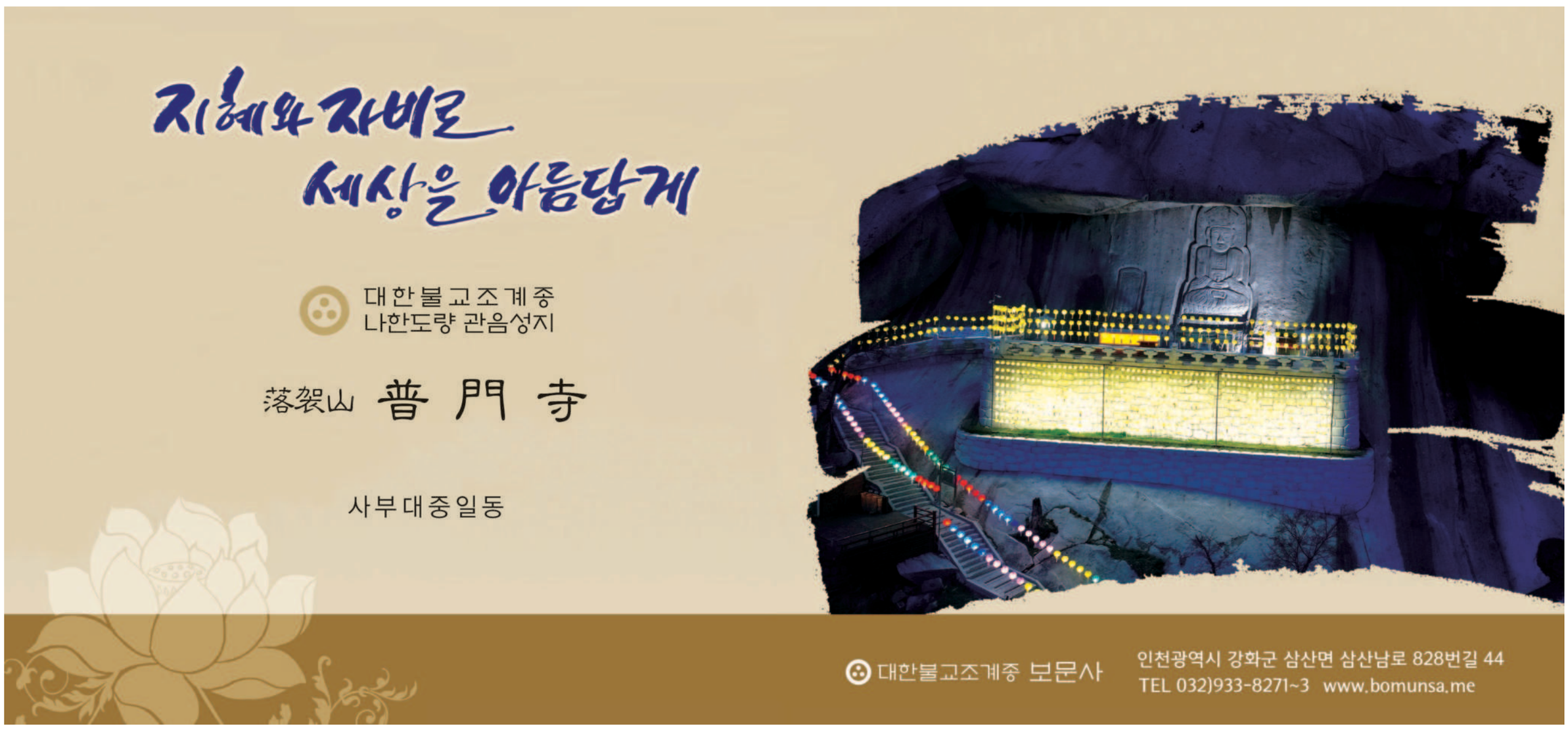
둘째는 불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수행에 기반한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참선, 간화선과 연계되도록 점차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인도 · 미얀마 · 태국 · 베트남 · 티베트 등의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화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매우 쉽고, 대중화될 수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명상법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불자의 신행과 스님들의 수행이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신도교육과 사찰의 법회 프로그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불자들이 신행활동이 법회와 재의식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특성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불자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염불 · 간경 · 주력 등도 명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면서 체험자들이 간화선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명상 붐은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불교계에서는 매우 새로운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삽화 · 최주현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원로회의 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원묵
차석부의장 금용

중앙종회 의장 도광
수석부의장 시각
차석부의장 상명

호법원 원장 지현
부원장 관정

총무원 원장 편백운
부원장 성오
교육부원장 능화
총무부장 정선
재경부장 법정
문화부장 석천
규정부장 혜암
홍보부장 혜철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부처님오신날

봉 축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김갈수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
김우영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정 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송희연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대한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지혜와 자비 · 만다라 세상의
등불을 밝힙시다.



총 인 회정

통리원장 회성
종의회의장 관천
현정원장 법정
교육원장 덕정
회당학원이사장 증광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총기 47년
불기 2562년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중앙교육원장	화령
사감원장	안성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경
재무부장	원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교정부장	법일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정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 유지재단, 전당건설 위원회, 통리원 임직원 — 법장원, 밀교 연구소, (재)사회복지재단, 각 사원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 통신원,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초록어린이집 · 잠원햇살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성남양지제1복지회관

자성일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Tel. 02)552 1080~1083 | Fax. 02)552 1082 | www.chongji.or.kr

(사)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지은

총무원장 보문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련 사회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지향 사서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 7790

참선 · 절 · 염불 · 사경 등 한국불교에는 다양한 수행이 있다. 이 같은 수행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불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정리= 신성민 기자

재가수행열전- 나는 왜 수행 하는가

방황하던 50대 가장 禪門 들고 자유얻다

禪 수행 오용운 변호사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사법고시를 패스해 변호사가 됐고,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50대가 되는 순간 달라졌다. 인생에 무언가 비어있었고 갑자기 불안해졌다. 어느 날 아내와 딸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참선 참 좋던데, 함께 해요." 그 한마디에 시작한 참선 수행은 한 남자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변호사 오용운 씨 가족은 본래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참선 수행을 하는 불자가 됐다.

"부인이 오랫동안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조계사 선림원의 생활참선 입문 강좌를 듣고 오더니 저에게 참선을 권했어요. 막상 해보니 인생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도 참여시켰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오 변호사는 선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봤다고 했다.

"하루는 〈백일법문〉과 〈선문정로〉 강의를 듣는데 '우리 마음에는 광맥이 다 있으며, 이를 캐면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 '내가 바로 절대자'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접했어요. 전율이 들었죠. 내가 여지껏 믿었던 절대자의 한계를 봤어요. 결국 내 자신이 부처이고 절대자인데 외부에 의지해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론으로 정견을 갖추고 열심히 실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부인 · 딸 권유로 시작해
온 가족 참선 · 불교 개종
수행, 무한능력 알게 돼

박 변호사가 들고 있는 화두는 '이뭣꼬.' 더욱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 차도 버렸다.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면서 틈틈이 화두를 참구하기 시작했다.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르진 않았지만, 스스로 변화했음을 그는 스스로 자부한다.

"나와 내 가족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났어요.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스스로 하루하루를 정화하고 있단 느낌입니다. 부부간 교감도 높아졌고 교류도 안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젊은이에게 더욱 참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권한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선 수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부가 성취되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현대 젊은이에게 꼭 필요한 수행이 참선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절 수행, 나를 변화시켰다

절 수행 박원자 작가

我 낮추고 바른 자세로 움직일수록 고요해진다

박원자 작가는 대학시절 불교를 처음 접했다.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며 참여한 첫 수련회에서 1080배를 처음 접했다. 당시에는 앉았다가 몸을 엎드리는 반복행위가 힘들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박 작가는 절 수행 예찬론자다.

박 작가가 절 수행을 시작한 시기는 인생의 부침이 많았던 30대 중후반 즈음이다. 그에게 30대는 '삶의 소용돌이 한 복판'이었다. 변화해야 했고, 변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절 수행을 권선하는 신행수기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고 발심하게 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박 작가는 매일 아침을 300배 절 수행으로 시작한다. 일정이 있어 서울로 출타할 경우에는 서울 종로 사간동 법련사에 들려서 절 수행을 한다.

이내 그만의 절 수행 방법이 궁금해졌다. 그러자 절 수행 방법이 다양한 만큼 자신도 다양하게 수행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명상음악 켜놓고 108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8대참회발원문을 염송하며 절을 하기도 합니다. 〈지장경〉예찬문의 경구를 읽으면서 158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집중하며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절을 해야 합니다."

박 작가가 말하는 바른 자세와 호흡은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머리가 닿기 직전부터 입으로 숨을 뱉으며 접족례를 하고 다시 손 짚고 앞으로 나갔다가 엉덩이를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발가락을 꺾고 허리를 완전히 펴기 전까지 입으로 숨을 가늘고 길고 부드럽게 고요하게 내쉬는 것"이다. "바르게 절을 하면 바른 호흡은 따라 온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박 작가에게 절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돌아온 답은 '변화'였다. 20년 동안의 절 수행으로 그가 얻은 것은 몸과 마음의 긍정적 변화라는 것이다. "오롯이 집중하며 절을 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참회'죠. 내 주위의 갈등과 문제들은 다 내가 만들 것임을 저는 절을 통해 알았어요. 나를 바꾸니 주위가 변화하더군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지병이었던 기관지염도 사라졌고, 잔병치레도 안합니다. 절 수행의 가장 큰 매력은 '움직일수록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금강경' 적으면 지혜광명이 저절로

寫經 수행 김명옥 명지금강문수회장

매일 새벽 2시 일어나 사경
걱정 · 근심 사라짐 체험해

김명옥 명지금강문수회장의 하루는 새벽 2시 30분에 시작된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금강경〉을 손에 잡는다. 그리고 5000여 자가 넘는 〈금강경〉을 노트에 쓴다. 〈금강경〉 한 권을 모두 적을 때쯤이면 어느덧 동이 튼다. 사경을 시작한 뒤 빠지지 않고 행해 온 일과다.

김 회장은 〈금강경〉을 중심으로 사경과 독경을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경수행을 시작한 것은 2012년 서울 금강선원이 개최한 '금강경 강송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한문 원문을 쓰면서부터다. 한 달여 기간동안 〈금강경〉을 쓰면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을 〈금강경〉 사경으로 열고 있다.

"〈금강경〉을 사경할 때, 저는 최대한 집중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1장 '법회인유분' 한자 수가 총 71자입니다. 그럼 공책에 미리 71칸을 정해 놓고 집중해 적습니다. 마지막에 71칸이 비거나 남지 않도록 집중해서 적다보면 망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김 회장은 〈금강경〉 사경이 주는 가장 큰 가피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집중해서 읽고 쓰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약시경전소재지처 즉위유불 약존중제자(若是經典所在之處 則爲有佛 若尊重弟子)'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그 제자가 계신 곳이 된다고 말입니다. 〈금강경〉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 제자라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집니다."

〈금강경〉 사경과 독송이 좋은 이유로 김 회장은 건강의 개선도 들었다. 태생적으로 폐가 작아 호흡이 가빴으나 독송과 사경을 하면서 호흡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매주 토요일 해인사부산포교당서 도반들과 〈금강경〉 사경 수행과 강의을 들으며, 공부하는 맛에 푹 빠졌다고 했다.

"지인들이 최근 저를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부끄럽다고도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밝게 웃으며 살아요. 그게 수행의 최고 장점 아닐까요?"



항상 부처님 생각만 모든 수행은 습관

念佛 수행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8월 6일 강원도 건봉사에서 결성돼 2025년 회향을 목표로 염불 정진을 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 염불 수행공동체다. 이를 이끌고 있는 게 안동일 회장이다.

염불 수행을 시작한 계기를 묻자 "어머니가 생전 염불수행에 매진했던 독실한 불자여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안 회장 스스로의 노력도 적지 않다.

그는 1993년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하면서 정토신앙에 심취하게 되고 전국염불만일회 결성에 동참하며 염불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전에는 일정한 수행법이랄 것도 없는 '잡식성'이었지만, 염불 수행을 접하고부터는 〈왜 나무아미타불인가〉(우익대사 著, 이기화 譯) 등을 읽고 '나무아미타불' 6자 염불을 생활화했다.

그렇다면 안 회장이 바라보는 염불은 무엇일까. 그는 〈아미타경〉에 근거해 "믿음과 서원을 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염불의 '염(念)'은 '이제 금(今)'과 '마음 심(心)'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불을 통해 부처님을 잊지 않고,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살처럼 변화무쌍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흐트러지기 쉽지만, 염불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혼란스러운 틈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일회 창립하며 시작
전수염불이 수행 목표
"生 다할 때까지 정진"

이와 함께 안 회장은 수행의 습관화와 염불의 기초화를 강조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강조하듯이 수행은 습(習)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108배와 천 번 이상의 염불을 하고, 걸을 때도 발걸음에 맞춰서,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염불을 합니다. 흔히 염불 수행은 하근기의 수행이라 여기지만 용수 보살은 염불수행을 '이행도(易行道)'라 했고, 원효 스님도 6자 염불을 수행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참선 · 간경 · 주력 등 다른 수행방법을 택하더라도 수행의 기본이 되는 염불은 항시 습이 되도록 계속돼야 합니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존귀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붓다선 지도자 1급 자격증 수강안내

우리는 정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정승가를 위해 고따마 태자가 샤카무니를 완성한 명상법 "붓다선"을 전법하고자 합니다.

- 수강일정 : 3개월(매주 화요일 오후7 ~ 9시. 8월 21일 부터 강의 시작함)
- 수강과목 : 무라와다수행(쏫티. 헤뚜와다. 붓다따. 만다라명상)
  : 앗딴누수행(쌍깝빠. 와짜. 깜만따. 아지와. 아누맛자명상)
  : 싸마타수행(아나빠나싸띠. 와야마명상)
  : 위빳싸나수행(까야. 웨다나.찟따. 담마1.담마2.담마3.담마4명상)
  : 아리야쌋짜수행(둑카. 싸무다야. 니로다. 막가명상)
  : 위뭇띠수행(9차제정명상) : 닙바나수행(아누빠디쎄싸명상)
- 모집인원 : ○○명(사부대중 누구나 선척순 전화신청 – 학사처장 고원 : 010-9609-5883)
- 수료혜택 : 붓다선 지도자 1급 자격증 수여
- 강의장소 : 견불선원(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2층)
  분당선 태평역 2번 출구 이용. 수정구청 쪽으로 도보 10분 거리
- 전 화 : 070-7717-2276

BUDDHA JHANA CENTER

세계승가회

승 왕 뿐냐싼또

총 재 수밋다 회 장 수완나 대장로 현지

승왕비서실장 싯달라수좌 기획본부장 설원수좌
나란다대학총장 견원수좌 나란다교학처장 도원수좌
아카데미학사처장 고원수좌 아카데미교무과장 진원수좌

연수국장 대원수좌 교육국장 인원수좌 문화국장 청원수좌
심리국장 지원수좌 포교국장 성원수좌 인권국장 다원수좌
홍보국장 경원수좌 복지국장 시원수좌 대외협력처장 선행법사

세계승가회 붓다선 전법관
http://www.worldsangha.org

수행 대중화, 우리가 책임진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수행 대중화는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원력을 갖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프로그램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수행 대중화에 나선 단체를 정리했다.

간화선 · 명상 · 염불… 나를 찾아 떠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봉암사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인 '문경세계명상마을' 조감도(남측 방향). 3만6000평 대지 위에 조성되는 문경세계명상마을에는 3개의 선방과 웰컴센터(사무동), 숙소동, 다도실, 무문관 및 꾸띠, 정원 등이 조성된다.



백담사에서 1월에 열린 간화선템플스테이. 수행 특화 템플스테이도 인기를 얻고 있다.



염불만일회의 염불 정진 모습. 결사는 수행법을 배울 수 있고 서로를 독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좌들 간화선 대중화 위해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설립

수행 특화 템플스테이부터

무문관 프로그램 인기몰이

수행공동체 모임들도 확대

탈종교화로 인해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수행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도리어 수행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욕구들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재가불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다. 불교계도 이 같은 시대 조류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수좌들 빗장 열고 세상 속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좌들의 움직임이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 의정)는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 인근에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세간의 이목은 집중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절대로 산문(山門)을 열지 않는 봉암사 인근에 대중적인 명상마을이 건립되는 점도 놀랍지만, 수행에만 몰두했던 선사들이 건립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단체인 봉암사문경세계명상마을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적명 · 혜국, 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문경세계명상마을은 국제건축설계지명공모를 통해 토마스 한라한 미국 프렛대학 교수와 현대종합설계팀의 마을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올해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봉암사 인근 3만6000평 대지 위에 조성되는 문경세계명상마을에는 3개의 선방과 웰컴센터(사무동), 숙소동, 다도실, 무문관 및 꾸띠, 정원 등이 조성된다.

수행의 숙련도에 따라 공간을 나눈 것도 눈길을 끈다. 초심자들을 위한 하선방과 지도자과정 상선방은 50여 명을, 중간과정인 중선방은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숙소동은 남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했다. 또한, 무문관과 꾸띠(작은 수행처)를 각 15개씩 배치해 개인 수행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세심히 배려했다. 어느 곳에서든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하며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추진위는 문경세계명상마을을 통해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선 · 명상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 의정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경세계명상마을은 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대중에게 알리는 전진기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의정 스님은 "불교를 중흥시키고, 인류 정신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간화선이 대중화 · 세계화돼야 한다는 데 수좌회 구참들과 의견을 모았다"면서 "세계적 선수행센터로 만들기 위해 프랑스 · 미국 등 25곳의 수행센터를 탐방하며 불사 계획을 세웠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3년 동안의 불사가 마무리되면 한국 선의 종장(宗匠)들에게 간화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세계적 도량이 우뚝 설 것"이라며 "문경세계명상마을은 한국 간화선 수행 대중화와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신한류의 본거지'를 표방하는 선 수행센터도 건립을 추진되고 있다. 서울 강남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현재 경북 영천에 약 109만평 규모로 '세계명상총림원' 건립 불사를 준비 중이다. 이곳에는 세계명상대웅전과 꾸띠, 명상휴양마을 등이 들어선다. 총 3단계에 걸친 중장기 플랜을 통해 '세계명상총림원'이 완공되면 "종교와 이념을 넘어 자유롭게 명상을 할 수 있는 세계적 '열린 명상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설명이다.

무문관 · 수행 템플스테이 인기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수행 프로그램 중 하나가 '무문관'이다. '무문관'은 1.5평 정도의 좁은 방안에서 오로지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하는 한국불교만의 용맹정진 수행 방법이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에게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 무문관 프로그램은 행복공장에서 운영하는 무문관 프로그램이다. 행복공장 이사로도 참여하고 있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진행하는 무문관 프로그램은 6박 7일로 이뤄지며, 하루에 한 번 방송 강의와 수행문답시간을 제외하면 오롯이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공장은 이를 활용해서 '내 안의 감옥', '나와 세상을 바꾸는 독방 48시간'과 같은 성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수행 특화 템플스테이들이 개발 · 운영되고 있는 점도 큰 변화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 시작된 계룡산 갑사의 무문관 템플스테이와 백담사의 간화선 템플스테이다.

갑사 무문관 템플스테이는 2박 3일로 진행되는 기본 과정과 4박 5일에서 7박 8일까지 이어지는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과정은 지도법사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수행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해 무문관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자 중 깊이 있는 수행을 원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제 백담사는 지난 1월부터 4박 5일 과정의 '간화선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2차 '간화선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간화선 템플스테이는 유나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지도법사스님들과 참선, 걷기명상, 발우공양, 운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화두참선법과 수심교행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는 등 집중적인 지도가 이뤄진다.

수행공동체 · 결사도 '활기'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참선, 간경 · 독경, 염불, 주력, 절 등을 통해 생활 속 실천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와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신도들과 만일결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토회 도반들은 매일 참회문 독송-108배기도-10분 명상-경전읽기를 하고 하루 1천원 이상 보시해 자비나눔도 실천한다. 만일결사수행을 다짐한 금강선원 신도들은 개별적으로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5명이 한 팀이 돼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수행을 함께 하며 수행담을 공유한다.

결사를 맺고 염불수행을 정진해온 단체도 있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와 만일염불결사회(회주 보광)가 가장 대표적인 염불수행단체다. 이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동안 아미타불 정근을 한다.

이처럼 결사와 같은 신행활동은 불자라고 하면서도 수행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수행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다. 다음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인원만 1만2천명이 넘는 금강카페는경전을 독송하고 불교서적을 읽는 '금강강독회'와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철야정진을 하는 '금강정진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 도 선
고 문 석 암 도

승 정 원 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석대원
원로부원장 석일우　원로위원 석법령.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보광　어 산 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위원장 석명구　비구니회장 석혜담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종우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성담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각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사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법수

■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 도 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 회 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원명화 (윤영아)

■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 원 장 보연화 (유희연)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부산부장 혜 성　청주부장 혜 원
울산원장 법 광　경기부장 자 운
경북원장 성 인　전남부장 혜 명
법사원장 목 암　구미부장 혜 진
충북부장 상 학　대구부장 혜 련
경남국장 성 광　포교국장 청 운　삼척국장 혜 원
사업국장 정 명　통영국장 덕 인　영천국장 원 명
포교국장 덕 운　포교국장 혜 림　통역국장 정 연
종무국장 도 연　봉화국장 혜 정　포교국장 혜 경
서울국장 명 덕　화순국장 보 정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수행 대중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간화선을 비롯한 수행을 대중화하는 것은 현재 한국불교가 가진 큰 화두 중 하나다. 이 같은 화두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정리= 신성민 기자



“禪·敎 겸비 수행자 필요 참불교는 간화선에 있다”

서울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종교(Religion)는 신앙·도덕·진리가 부합돼야 합니다. 특히 진리는 과학적이며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선입니다.”

서울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명상법과 참선의 차이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재가불자 중 간화선 수행자가 4%에 불과하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많은 수치’라고도 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제방 선원의 수좌들이 외부 법회를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행자가 있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이다.

각산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도사(道士)·도반(道伴)·도량(道場)이 그것이다. 깨달은 수행자가 있어야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으며, 뜻을 함께 하며 정진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절차탁마할 공간과 교단이 형성돼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계 어느 나라 불교를 살펴봐도 도사·도반·도량, ‘3도(三道)’가 여법히 갖춰진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불교를 살펴보면 각자의 전통수행만 했지, 한국처럼 복합적인 수행을 하는 곳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고 실력의 도사와 도반들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교단 차원에서 좋은 참선지도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단과 수좌회가 함께 현대에 맞는 참선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가수행자는 기도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출가를 했으면 10년 동안은 하산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공부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교관쌍수의 도사가 돼야 남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단은 수좌회와 함께 현대인에게 맞는 간화선 프로그램과 수행 지침서를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많고, 이를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 참선지도자협의회를 창립하는데 종단과 사부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교리·수행 교육 병행하는 신행불교대학 설립 추진”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

“이제 스님들도 신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찰에 오는 보살이나 거사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행자·전법자로 보고 그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행·수행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신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정체된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기반해야 신도들의 수행 환경이 진일보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신도교육 과정에서 수행 과정이 부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신행불교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자들이 신행과 수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것이 신행·수행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종단 차원에서 수행을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찰 불교대학에서 참선·염불·간경·절 등의 수행법을 안내하거나 수행이 개인 차원에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전무합니다. 대부분 교리 과정 위주입니다. 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게 현재 7대 포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불교대학’입니다.”

일선 스님들의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종단 차원의 통일된 교안들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 연수 중에는 사찰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찰 주지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사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포교원에서 기획하는 것이 ‘신행지도자 과정’입니다. 신도 상담·수행 지도·조직 관리 등을 교육해서 주지 부임시 신행을 지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스님들이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신도 지도 교안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생활에 대입해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교안을 종단 차원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학인·신도교육 수행 부재 스님부터 ‘명상지도자’ 돼야

동국대 강사 일중 스님

“물질만능주의 사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병리적 증상이 바로 ‘정신적 공허함’입니다. 명상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감·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죠.”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20여 년을 수행하고 현재는 동국대에서 학생들에게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 일중 스님은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일중 스님은 모든 수행에 명상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기 때문이다.

“수행의 범위를 넓게 보면 모두 명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경·간경·절 수행을 하며 순간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 곧 명상입니다. 일종의 동선(動禪)인 것이죠.”

그럼에도 재가불자들이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스님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사시예불, 기도 등 의례 중심의 신행생활에 스님과 신도 모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우선 스님들이 관련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중 스님은 학인과 신도 교육 과정에 수행이 부족함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명상지도자’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재가불자들을 위한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에는 수행이 없습니다.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는 승가대학에도 수행과목이 적습니다.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데 현재는 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포교 일선에 있는 스님 중 수행을 가르칠 견문을 가진 스승이 적습니다. 수행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스님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와 함께 일중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수행 포교 분야에 대한 종책적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수행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도량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동체가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스님들이 수행공동체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종단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님과 재가가 서로 수행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 전문가 양성 필요 종단적 교육안 마련해야”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교수

“1990년대 말 IMF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기도와 기복만으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불교는 자신의 본래자리인 ‘수행’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교수는 불교의 근본이 ‘수행’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머리를 풀었다. 그러면서 기복과 교리 강좌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불교 신행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일반인과 재가불자들의 요구를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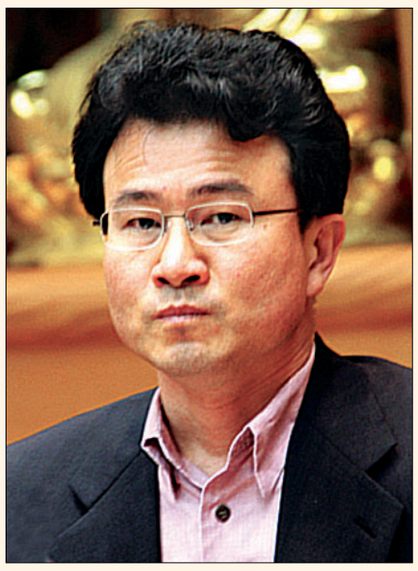
“사실, 일반인부터 재가자까지 수행의 욕구가 없지 않습니다. 명상 붐을 봐도 이를 알 수 있죠. 문제는 불교의 현실 상황입니다. 우선 수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단적으로 통일된 수행 교재나 프로그램들도 없습니다. 인력과 교육프로그램들이 부재하다보니 수행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수행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은 이론과 실참을 병행한 전문인력의 양상이다. 또한 불교에 내재한 다양한 전통 수행에 대한 교육 체계 정립도 과제로 꼽았다.

“간화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와 함께 각 수행법에 대한 연구와 분석들을 진행하고 현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일선 사찰들에 보급해야 합니다.”

박 교수는 ‘바른 불교관’ 정립 역시 주요한 과제임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의 수행만이 최고임을 주장하는 현재 불교 풍토에 대한 쓴소리다.

“불교의 수행법은 모두 중도연기의 존재원리와 무아와 공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를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나의 공부와 수행이 최고라면 다른 수행법들도 모두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바르게 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비로소 수행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전통 조계종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종 정 석능인 대종사

총무원장 석대웅

종도일동 합장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총본산 각황사
TEL 053)325-0400 / 010-7283-0089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 哲

元老院長 海 月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지철**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보선** 포교원장 **명성**

총무부장 **보성**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법천** 포교부장 **시원** 종정사서 **무진**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사) 대한불교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圓滿融通 人格完成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승정원장	원산	평신	종회의장	송운
원로위원	원선	체의	총무원장	진호
규정원장	우담		총무부장	홍법
규정부장	월파		사회부장	진광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위원 **법준. 고산. 경호. 대명. 보현. 광명**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규정부장 **혜가**

중앙종회의장 **수운** 부의장 **호경**
중앙종회의원 **혜언. 혜광. 수진. 법우. 혜가. 혜공. 이타. 무상. 묘각. 청산**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규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원장 **보단**
중앙교육원장 **공덕**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원장 **무봉**

서울교구종무원장 **청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강원교구종무원장 **연각**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혜공**

비구니회회장 **법인**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종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불.법.승

(宗) 대한불교 삼보종

단기 4351(불기2562) 무술년

1세종정 멸공 대종사 법주 정각 대종사

부종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 **정공. 정민**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호신** 종회의장 **법융**

부원장 **법경** 문화원장 **법등** 교육원장 **홍인**
감찰원장 **법도** 염불원장 **법종**

종회의원 **보각.법성.법공.해곤.계월.해봉.**(外 15인)
교구원장 **수산.법인.보산.불광.해원.용현. 법융.법송.지원.청광.정륵.**(전국 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도철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도찰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총무국장	지일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도능	예술국장	보인
사무장	목련해	전국신도회장	범해(정순조)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 전화 055)338-0089 팩스 055)333-1880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승

승정원장 **향운** 승정 **혜공. 인봉.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천장**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정현**
재무부장 **혜인** 규정부장 **경월** 사회부장 **도일**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혜원**
포교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획원장 **성각**
교육원장 **남륜** 교육부원장 **법지**

중앙신도회장 **김상흔**

서울경기종무원장 **천장** 경남울산종무원장 **해산**
충북종무원장 **지허** 대구경북종무원장 **혜송**
충남종무원장 **성현** 전라남북종무원장 **도암**

중앙종회
종회의원 **해산 혜송 해불 도암 지화 일선 지향 성각 일천 정연 어산 보광 지연 자원 성덕 성현 혜인 근혜 묘현 마애 성화**

종도일동

■ 총무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 전화 043)878-0109 / FAX 043)878-0103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범해 대화** 총무원장 **김만혁** 종회의장 **김대운**
부종정 **도관 지신** 사 서 **해 인** 종회부의장 **구원각 이수혜**
사 서 **경 산**

원로원

원로원장 **박대월**
원로의원 **김대원 이관곤 이대봉 김대광 김지선**

각원장

교육원장	박태허		
연수원장	유성준	총무부장	정법성
감찰원장	김서호	교무부장	안자관
고시원장	강만공	재무부장	김성문
복지원장	심지연	감찰부장	이지호
포교원장	황현문	사회부장	강정오
염불원장	박해수	포교부장	김용담
문화원장	허성각	복지부장	이혜원
의전원장	이두산	조직부장	채원광

총무원

각교구원장

강원교구원장	지진묘
경북교구원장	이혜형
대전종무원장	최지천
충북종무원장	박대월

종회의원

정법성. 이심공. 이도광. 김해인. 이성광. 엄만일. 김광덕. 김성인. 김성문. 유관공. 강정오. 안가관. 김용담. 이혜원. 이지호. 채원광. 박부용. 한지효. 배지명. 박해동. 신대광. 김한명화. 신청련행. 권진광명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맑고 향기롭게!! 정토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원융교단
(사)대한불교 조계산문 무문총림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대법주 **법 원** 대법주 **보 당**
부대법주 **정 림** 개산주 · 법인 이사장 **마 정**

사무총장 **석의현**

조계선림 제1본산 법주	**혜 조**	조계선림 제2본산 법주	**보 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주	**법 인**	조동선림 본산 법주	**정 림**
임제선림 본산 법주	**원 돈**	정토선림 본산 법주	**법 천**
금오선원 원장	**석장현**	용봉학림 강주	**석혜조**
영산율원 율주	**석혜안**	행자교육원 원장	**석대허**

■ 서울사무소 :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28-27 / 전 화 02)496-3952~3 FAX 02)496-3951
■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 전 화 031)676-3960 FAX 031)676-2960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장 및 종회의원

법인. 성문. 법진. 고암. 성광. 혜원. 시광. 현광. 광운.해초. 해원.
자은. 덕행. 자은. 덕행. 상락. 해일. 청정. 혜선. 명진.무명. 정봉.
묵현. 해광. 원각. 법연. 고암. 진국. 삼관. 농해. 수월.자명. 수경.
연담. 도헌. 성수. 진광. 도관. 진각. 우하. 대산. 진오.대현. 종진.
진허. 혜연. 정관. 화림. 승주. 도연. 연화. 도영. 지한.단운. 혜명.
여의주. 대덕화. 보리심. 천모성월. 길상화. 미서경

적극적으로 입종을 환영하고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종도일동 ·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천 덕일** 고시원장 **벽산 혜암**

서울종무원장 **심우** 경기종무원장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명**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제봉**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진문**

종도 일동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봉**
종정예경실장 **청명** 총무원장사서실장 **정휴**

승정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감찰원장 **정대**
고시원장 **혜신** 참선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문화원장 **혜일** 비구니원장 **지명** 홍법원장 **서암**
국제교류원장 **정무** 사정원장 **혜광** 보건원장 **정일**
비구니부원장 **선각. 묘향**

중앙종회의장 **법화** 중앙종회부의장 **현우. 일각**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총무부장 **현수** 사회부장 **정우** 재무부장 **법영** 의전부장 **주한**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감로사)**
대구,경북교구원장 **정 일(광원사)** 충청도교구원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라북도교구원장 **월 서(삼불사)**
전라남도교구원장 **혜 신(남해사)**

■ 총본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 (일성사) 전 화 : 042)935-2279
■ 총무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53번길 75, 101동 1002로(내동, 탑스빌A)
전 화 : 042)524-2149 / 팩스 : 042)526-2149
HP 010-9363-1233(사무장). 010-3550-5153(총무원장 직통)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서호 법호**
부종정 **수암 법두**

승정원장 **심곡 법상**
원로원장 **수암 법두**
총무원장 **정관 법웅**

연수원장 **일월** 교육원장 **법봉 백양**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 입종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 전 화 : 055)532-4414 / HP 010-3507-2837

(사)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회의장 **대공 동곡**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우석 길동**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무통**
고시원장 **도진 동영**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종회의원 일동
복지원장 **동법 혜조**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 화 055)336-0108, 335-0178 / 팩 스 336-7070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화합종단 구현

(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당 혜승

승정원장 적연당 운암　　선 원 장 범송 혜립
총무원장 적공당 현덕　　총무부원장 각진당 보각
원로위원 법희　　비구니회장 법성

중앙종회 경성 종광 도율 원명 경덕 보덕

교육원장 광덕　포교원장 대안

총무부장 혜동　사회부장 영각　감사부장 보혜
재무부장 혜명　사무국장 준범　편집국장 남산

부산종무원장 지현　인천종무원장 보현　제주종무원장 법송　서울종무원장 월정

- 창건주 : 법화(금탑사). 태안(안심사). 법연(약사암). 문도순(삼광사). 보광(미타사)
- 문진수 : 자연 장지조성 분양 중 (대구 010-4808-8668)
- 다례재 : 2018년 5월 12일 세종시 청룡사(종찰등록)에서 봉행 (010-3190-5767)

- 입종안내 -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할 스님, 창건주, 교임 법사님을 모십니다. 언제나 연락주세요.

■ 총무원 : 보리선원 054)974-8415

(사) 대한불교승가종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승가종 전 종도와 함께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이 사 장 산 수　　회 장 회 암

이사 도 선　수석부회장 정 일
이사 해 일　상임부회장 미 산
이사 정 연　부 회 장 정 운
이사 정 심　부 회 장 금 봉 외



사무처 : 동해 정심사 전경

국내 및 해외 회원단체 대표일동

■ 사 무 처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 정심사
■ 사무총장 : 010-3300-0408 (033)534-3956
■ 홈페이지 : http://sansoo5.cafe24.com
■ 산하기관 : 한국종교예술방송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법 경
고 문 지선. 월현

원 로 의 장 정인　　원로부의장 정광
종 회 의 장 법륜　　총 무 원 장 법성
문 화 원 장 혜관　　포 교 원 장 보덕
호 법 원 장 도원　　문 화 원 장 해운
비구니원장 진언　　재 무 부 장 성본

한국불교선조계종 종도일동

■ 총무원 : 대구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팩스 053)322-0567

(사) 대한불교現조계종

총무원장 성종스님

호법원장 현무스님　　포교원장 성수스님
종회의장 대경스님　　문화원장 도우스님
재무원장 해원스님　　교육원장 성법스님
사업원장 범장스님　　사회원장 도현스님

제2교구 서울 법정스님　　제3교구 경기도 보덕스님
제4교구 해원스님　　제5교구 부산 법운스님
제6교구 경남 성수스님　　제6교구 경남함양 도찬스님
제7교구 전북 법화스님　　제8교구 마산 경우스님
제9교구 울산 도현스님　　제10교구 경북 법화스님

■ 총본사 용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70-16 / 전화 062)531-3888

대한불교 승가 무량회

회 장 도암 스님 (임실 회문사)
총 무 성군 스님 (경주 보우선원)

정오 스님 (부산 영선사)　성각스 님 (하동 하남사)
심정 스님 (부산 천문정사)　청운 스님 (남해 용천사)
혜정 스님 (충북 성원사)　도안 스님 (울산 대원암)
영각 스님 (부산 법보사)　대붕 스님 (서울 만월사)
도광 스님 (부산 천태암)　석경 스님 (부산 봉림사)
해인 스님 (양산 원통정사)　무학 스님 (경북 나원사)
법산 스님 (제주 대원암)　법륜 스님 (충남 해광사)
법산 스님 (울산 봉암사)　이정 스님 (서울 명심정사)

■ 대한불교승가무량회 총무원 :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19-18



‘충성! 동자승, 평화지킴이로 명 받았습니다!’ 5월 8일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학교에 출가한 동자승들이 JSA를 찾았다. 군장병들과 함께 경례하는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인다.


JSA안보교육관을 둘러보는 동자승들.


발원문을 낭독하는 본연 스님과 성연 스님.


평화의 종을 타종하는 동자승들.

동자승의 평화 나들이 “통일 좋아요”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JSA 방문

파주 JSA=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조계사에서 지내며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저희처럼 노력하여 부처님을 닮아 우리 모두 화합하여 평화롭기를 바라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 남북공동경비구역(JSA)에 낭랑한 동자승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동자승들은 JSA법당 무량수전 앞마당을 뛰어 다니며 천진난만한 웃음꽃을 피워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8일 동자승 단기출가 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다. 이번 동자승들의 JSA법당 방문은 최초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과 기획국장 제환 스님,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 함정희, 송영란 씨 등 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북 대화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공동경비구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귀순병사 관련 남북간에 총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가 이뤄지고 있었던 차였다. 2대의 버스에 나뉘어 탄 동자승들과 신도 대중이 민통선 초소에 도착하자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다. 낯선 모습에 동자승들은 인솔하는 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공동경비구역 내 안보교육관, 정훈장교의 간단한 안내와 함께 안보영상이 흘러나왔다.

한국전쟁부터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생전 처음 접하는 안보영상을 본 동자승들의 눈은 동그랗게 변했다.

교육을 받고 나서는 동자승들 앞에는 JSA의 상징인 장병 마네킹이 서 있었다. 동자승들은 흥미롭게 군복을 입은 마네킹을 만졌다.

“스님,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아저씨들이 입는 옷이에요.”

호기심 어린 질문에 답하는 스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이어 일행은 인근 JSA법당 무량수전으로 향했다. JSA법당은 2017년 3월 31일 낙성된 JSA내 대표적인 군법당이다. 무량수전과 함께 625관의 평화의 종이 있는 종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들의 영가를 비롯해 참전 16개국 전사자 영가를 기리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JSA법당서 순국선열 추모
안보교육 및 전망대 방문
군장병들 선물도 전달해

무량수전 앞 아미타불 앞에서 동자승들은 헌화를 위해 나란히 섰다. 천방지축으로 뛰어 놀던 동자승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지했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선열을 기리는 헌화와 함께 ‘화합과 평화의 발원문’ 봉독이 진행됐다.

“부처님처럼 우리 모두 화합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발원문을 낭독하는 7살인 본연 스님과 6살인 성연 스님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이에 대해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은 “공동경비구역에 오는데도 아주 얌전하게 있었다. 또 다들 군인 아저씨 보면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마음의 평화, 나아가서 사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몸소 우리 동자스님들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전 스님은 “지난해 무량수전 낙성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의 종을 타종했다. 그 염원이 이어져서인지 1년만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동자승들의 이번 JSA방문과 평화기원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자승들은 이날 방문을 위해 직접 그린 ‘화합과 평화의 그림’과 ‘통일 연등’을 JSA법당에 전달했다.

‘군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동굴동굴 동자승’ 등 글과 그림에 선물을 전달받은 JSA법당 주지 여진 군승법사와 군장병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여진 군승법사는 “판문점에서 조계사 신도님들과 어린 동자스님들이 오신 것이 처음일 것”이라며 “희망과 사랑, 평화의 기운을 더 밝게 키우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 동자 스님들과 조계사 대중의 방문에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한걸음 앞당겨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행된 군장병들과의 평화의 종 타종에서 동자승들은 서로 종각으로 향했다. 군장병들과 스님, 동자승들이 힘을 합쳐 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통일이 될 거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좋아요.”

“저는 더 좋아요.”

활짝 웃으며 통일에 대해 동자승들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가 엿보였다. 한편, 이날 동자승들은 북한지역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 참관을 끝으로 JSA 방문을 마무리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도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서울 제 2총무원 개설 예정입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奉祝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말사

관오사·관오불교명상대학

회주 자광
대표이사 지도
주지 지우
선덕 명언

지혜 행복 명상
•입문반 : 화요일 오후 1시 저녁 7시
•심화반 : 월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

명상정진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저녁 6시

집중수행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

간화선 수행
상시 선방 정진
하안거, 동안거 입방

불교사회복지회
어둠이 없는 밝은 사회를 향하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 대구시 남구 이천로 26길 9
www.jabiro.net / 053-471-6640

(재)대한불교관음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덕산 백련사

종무원장 법웅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진밭길 2948-24(백련사)
TEL 053)781-3784
053)781-3111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영재

<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TEL 054)873-2908
FAX 054)874-9137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불 영 사

대구종무원장

주지 효상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신로 1456
TEL 053)292-7842
FAX 053)294-7842
http://bulyoungsa.co.kr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회주 경희
주지 명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정 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장세철

사부대중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철산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 현 사**

주지 능설 심담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FAX 053)255-5629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도 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 14(지묘 236)
TEL 053)983-1816

참선과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안 흥 사**

주지 선 웅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815-4030
FAX 053)814-5142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주지 원 각

사부대중 일동

「옥천사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TEL : 055)672-0100
055)672-6296(템플스테이)
FAX : 055-672-0481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지 능도
신도일동

▷불교입문과정
▷불교학당
▷경전반 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FAX 053-616-8846

대한불교조계종

임 휴 사

주지 보 정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TEL 053)632-4844,641-4844
FAX 053)639-5033

대한불교조계종
청도사암연합회

화악산 적천사

청도사암연합회장 주지 정광

사부대중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 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青春

불교 '하는' 젊은이들

종교의 기본은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종교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종교를 물을 때 "어느 종교를 믿느냐"고 묻곤 한다. 불교 역시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기에 1차적으로 불교는 '믿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누군가 "불교를 한다"고 말하면 불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믿는 것'이 아닌 '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당황스러울 법도 하다. 혹은 '하다'라는 동사를 '불교를 철학-한다'거나 '소비-한다'는 접미사로 받아들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감각의 2030세대는 단순한 믿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풀어낸다. 나아가 불교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세상과 소통한다.

탈종교화 · 종교 사사화 · 불교인구 급감…. 불교는 분명 위기다. 타종교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도 잘 조직돼 있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인프라를 형성한 것도 아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또는 취업활동을 할 때 자신의 종교를 숨겨야 불이익이 없다"는 청년불자들의 외침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청년들에게 메리트 없는 불교'인 셈이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불교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사찰탐방을 코믹하게 편집한 영상이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영상을 제작해 알리고, 불교디자인으로 굿즈(goods)를 만드는 1인 기업을 창업하고, 불교미술과 서양미술을 접목해 독특한 세계관을 갖춘 예술가까지. 청춘의 특권인 도전정신으로 불교를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봤다. **〈편집자 주〉**

"불교 전학생, 문턱 없이 찾아오길"

나투다픽처스 대표

강 산

2017년 3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한 청년의 사찰여행 영상이 게재됐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이기도 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드라마를 패러디하며 시작된 이 영상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모습을 경쾌한 배경음악과 편집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보는 이의 웃음을 유발하는 영상 속 청년의 유쾌한 행동은 덤. 대한민국 사찰여행 프로젝트 '아이고절런(IGO절RUN)'을 기획한 나투다픽처스 강산(29) 대표다. 현재까지 촬영한 영상만 수십 편. 어느덧 프로젝트 2년차에 접어든 그를 만났다.



강산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아이고절런 영상. 기획부터 연출, 촬영까지 모두 그의 몫이다.

사찰여행이 불어온 바람

"사찰여행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 영상으로 그저 불교에 대한 흥미 정도만 이끌어주려고 했죠. 불교가 타종교처럼 신심이나 교리를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템플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게 됐고, 사찰여행이라는 테마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불자도 아니었던 그가 이 일을 시작한 배경은 단순했다. '사찰에 가보니 좋더라. 너도 한번 가보라'는 취지. 처음엔 불교를 알린다기보다는 좋은 사찰을 소개해주는 것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고절런에 이어 사람들을 모아 함께 사찰여행을 하는 '위고절런(WEGO절RUN)'과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불리버리(불교+딜리버리)', 청년들의 고민을 대신 전하고 이에 대한 스님의 조언을 담은 '선문선답'까지 불교적이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됐다. 최근에는 불교계 음악회 · 전시회 등을 다녀오거나



강요 않는 불교, 편안함 매력
좋은 사찰 알리고자 영상 제작
불교계 '온라인 씬' 취약하지만
가벼운 콘텐츠로 관심 독려를


그는 단순히 사찰여행뿐만 아니라 각종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다.

연등회 관련 영상도 제작하는 등 활동범위를 불교문화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사실 1년 전쯤, 그의 영상을 보고 인터뷰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불자가 아니라는 대답에 인터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신심 깊은 불자가 됐고, 누구보다도 앞서 불교를 홍보하고 있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요. 처음에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점으로 보려 했는데 어느새 저도 삼배를 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법명을 받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저를 불자라고 표현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변화된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 대표는 두 달 전 '나투다픽처스'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우를만한 명칭이 필요했던 것. 그 명칭도 '부처님이 나툰다'는 불교용어에서 차용했다. 즉 아이고절런이 영화라면 나투다픽처스는 제작사인 셈이다. 그렇다고 당장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성격의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먼 길을 내다보고 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혼자 해도 즐겁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 있다면 함께하고 싶어요. 혼자여서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아직 영상에 광고가 따라 붙을 만큼 조회수가 높진 않지만 차츰차츰 저만의 길을 개척해나갈 겁니다."

불교서 '긍정적 시선' 갖추길

인터뷰 내내 당찬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강 대표. 이런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더구나 그가 강조하는 '온라인 씬(scene)'이 활성화되지 않은 불교계였기에 대중의 소극적인 관심이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저는 1인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서 기획하지만 대중은 그렇지 않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교계는 피드백이 많지 않아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한 편입니다."

그는 영상을 제작하며 일반인 또는 불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 사람들은 스님의 삭발이나 육식을 금하는 이유 등을 묻곤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그에게 '촬영을 왜 계속하는지' 묻는 것이었다. 그는 이때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돌아봤고, '재밌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렸다. 그 이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나설 수 있었다는 강 대표다.

강 대표는 현재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에 업로드한다. 연출, 각본, 촬영, 출연 모두 그의 몫이다. 이 같은 열정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교를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제법 명료하다.

"지금의 불교도 충분히 좋지만 기존의 것만 고수하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라마다 불교가 조금씩 다르고, 그 나라 안에서도 시대에 맞춰 불교는 변해왔는데 말이에요. 저처럼 '불교에 전학 온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콘텐츠가 늘어난다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친구들에게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강 대표. 대부분의 스케줄이 불교와 관련된 것이고, 사찰을 찾아 마음의 평온을 얻거나 스님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며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 그는 "달라졌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표현이 '변했다'가 아니라 '좋다'는 의미여서 값지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꿈꾸는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시선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나투다픽처스 슬로건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평범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불교라는 종교가 저에겐 그런 이미지거든요. 불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호섭 기자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자공
교육국장 향광 비구니종무국장 덕심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인덕행) 당포사(종철)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도명) 용연사(취암) 보문선원(보문)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미륵사(혜각)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쌍암사(덕산)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은진정사(고경)
쌍암사포교원(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천운사(선봉)

종단승려, 신도일동

■ 입종 상담 및 접수 안내 ■
① 대상 : 승려 또는 승려나 포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
② 문의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55)672-8760 H·P 010-4983-1494

■ 총무원 : 경남 고성군 영회로 527-7 천광정사 (TEL 055-672-8760)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

붓다아티스트 대표 정 기 란

"불교 굿즈, 들어는 봤니?"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의미하는 굿즈(goods).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용어가 됐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오타쿠를 대변하는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우표와 같은 '이니굿즈'를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만든 방한용품 '평창굿즈'까지 사회 문화 전반으로 굿즈가 확산됐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좀처럼 굿즈문화가 퍼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불교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붓다아티스트 정기란(35) 대표는 자신만의 톡톡 튀는 감성으로 굿즈를 제작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청춘불자다. 2011년 스타트업으로 붓다아티스트를 창업, 부처님과 보살을 캐릭터화해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며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국대에서 불교회화를 전공한 정 대표는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자 불교 굿즈 제작을 시작했다.

"학창시절 탱화 그리는 걸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사무용품 문구디자인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공을 살리면서도 조금은 독특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문구회사를 다닐 때 배운 캐릭터화를 중심으로 불교이미지 개발에 힘쓰다보니 창업까지 인연이 이어졌어요. 새로운 불교 캐릭터를 만들어 낸 것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한 건 201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서 '사천왕 페이퍼 토이'로 일반부문 대상을 수상한 때부터다. 당시 이 작품은 불교의 호법신장인 사천왕을 귀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재해석해 사천왕에 대한 무거운 관점을 바꿨다는 호평을 받았다. 사천왕 페이퍼 토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구입해 전국 템플스테이 활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6년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입선, 2017년 천태예술공모대전 특선, 2018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입선 등 꾸준히 공모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①붓다아티스트서 판매하는 캔버스 아트 ②201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서 일반부문 대상을 수상한 '사천왕 페이퍼 토이'를 대형으로 만든 것 ③절하는 겸손한 악착보살 물병

불보살 등 캐릭터 상품 개발
스타트업으로 2011년 창업
톡톡 튀는 젊은 감성 '눈길'
친근한 불교이미지로 젊음을

편견 깬 재미있는 불교 시도

그가 운영하는 붓다아티스트서는 양류관음과 미륵반가사유상, 노사나불 등을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그린 캔버스 액자를 비롯해 불교관련 문양을 담은 종이봉투,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지도가 그려진 손수건, 물병과 전자파차단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를 판매한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사찰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제품이나 포스터 등을 만들기도 한다.

정 대표가 7년간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없을까? 그는 불교굿즈들이 자칫 불교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생각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단다.

"처음에는 불보살님과 부처님을 캐릭터화 하는 것 때문에 어른 스님들의 염려가 많았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성스럽게 마음을 모으는 도구로 탱화를 보고 불상을 봤는데, 제가 만든 굿즈로 사람들이 불교를 가볍게 볼까 염려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캐릭터로 만드는 건 지양하고 있어요. 굿즈를 쓰다가 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듣고 고민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편견을 깨고 즐거운 불교, 재미있는 불교로 친근함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정 대표에 따르면 그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젊은 스님들은 불교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붓다아티스트 같은 기업이나 문화콘텐츠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활동은 한계가 명확해 범불교적인 차원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저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주위에서는 저 같은 스타트업이 불교 분야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격려해주세요. 그렇지만 스님들이 나서서 딱딱한 불교를 벗어나 청춘, 그리고 미래를 위한 다양화를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표는 끝으로 현재 한국불교의 젊음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콘텐츠로 '불교문화 전문기획사' 설립을 꼽았다. 불교를 하나의 문화트렌드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찰 청년회가 40대로 이뤄진 모습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불교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기도 한데요. 저도 제 분야에서 불교의 젊음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모두가 다 같이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문화 전문기획사가 생긴다면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젊은이들의 마음을 여는 한국불교가 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현대미술 작가 정 윤 영

"틀 벗어나 얻은 열린 미술시각"



정윤영, 식물, 혼합 매체, 91×116.8cm, 2017

배채법 · 서양미술기법 접목해
자신의 내면세계 식물로 표현
불교미술 영역확장 모색해야

불교미술의 대표주자를 꼽자면 불화를 빼놓을 수 없다. 불화는 종류에 따라 예배용인 괘불과 교화용인 경변상도, 장엄을 목적으로 한 벽화나 단청 등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불보살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불화를 비롯한 현대 불교미술계는 하향길을 걷고 있다. 불교미술 장인들은 후학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관련 전공자들도 전공 아닌 다른 분야로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교미술을 전공한 일부 젊은이들은 불교를 손에서 놓지 않고, 다양한 미술기법과 접목해 새로운 작품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대 일반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정윤영(32) 작가도 그 중 하나다. 정 작가는 학부시절 동국대서 불교미술을 공부했다. 맥락이 서로 다른 두 장르를 공부한 그는 자신이 젊은 나이에 경험한 병상에서의 아픔을 여러 겹의 비단으로, 식물 형상으로 표현했다. 특히 고려불화 채색기법인 '배채법(背彩法)'과 순수서양회화 방식을 접목해 독특한 화풍을 그려낸다.

"제 작업에는 저의 삶이 켜켜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순환적 자연, 기억의 층위, 경계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데 작업의 출발 역시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됐죠. 때때로 경험한 신체의 식물 같은 느낌은 강렬했고, 식물성과 여성성에 천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식물이미지와 신체이미지를 결합하듯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제 삶의 모습을 한 화면에 겹겹이 포개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너그럽고 편안한 불교의 매력

정 작가가 불교계에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2013년 1월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Pink Buddha)의 첫 번째 전시회 '뱀은 봄에 脫皮를 한다'에서다. 뱀의 해인 계사년을 맞아 열린 이 전시회는 불교서 관자재보살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뱀을 소재로 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정 작가는 이후 2014년 '안에-있음(In-sein)'을 시작으로 2015년 '감각의 산책자', 2017년 '식물 같은 밤' 등의 개인전과 핑크붓다를 비롯한 각종 그룹전에 참여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식물형태의 그림으로 대중에게 알렸다. 눈에 보이는 작품에서 단박에 불교를 느끼긴 쉽지 않지만 정 작가는 작품 이면에 불교서 느끼는 매력을 담아낸다.



"제가 느낀 불교의 매력은 일상의 결에서 같이 호흡해준다는 게 가장 큽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다름에 너그럽고 그만큼 편안해요. 불교가 때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지만 저것이기도 한, 설명하기 힘든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 작가는 불교가 좋아 불교미술을 공부했지만 미술계에서 그와 같은 불교미술 전공자를 바라보는 인식은 지독히도 편협했다. 작품보다는 개인의 전공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이유로 종교색의 기준을 세우는 상업 화랑에서 경험한 좌절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예술가는 매순간 새로워야 하고, 익숙한 것에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에게 불교라는 틀에 갇힌 '뻔한' 작가로 인식되는 게 아쉽습니다. 제 작품보다는 전공이 불교미술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며, 그 사실에만 함몰된 채 기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좌절의 아픔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니어도 제 작품을 알릴 공간은 있다는 신념으로 문을 두드렸거든요."

이런 그가 바라는 불교미술계의 변화는 영역의 확장이다. 불교적 형상만을 불교미술로 여기지 않고, 작품에 담긴 불교적인 이야기를 읽어내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

"표면적인 것보다 이미지 너머에 있는 불교적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미술사의 맥락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과 현대미술사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출발부터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훈수를 둘 정도로 대단한 작가는 아니지만, 불교적 형상이 들어간 작품만 불교미술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미술을 전공한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과감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도 필요하겠죠." 윤호섭 기자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大韓佛教 淨土禪宗



관정 큰스님은 중국 근대 3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인 허운(虛雲) 화상으로부터 조동종 48대 전법제자로 부촉 받았습니다. 정토선은 중국의 관정(寬淨) 큰스님이 문화대혁명 기간 6년 반 동안 관세음보살의 안내로 극락에 가서 배워온 수행법입니다.

정토선종(淨土禪宗)은 정토선 수행법을 실천하는 종단입니다.

정토선은 정토(염불)와 선을 함께 닦는 수행법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증과가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정토선을 다른 수행법에 비해 두 가지 수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염불에서 자성염불 단계, 자성염불에서 일념(一念) 단계, 일념에서 무념(無念) 단계라는 3단계의 로드맵이 뚜렷합니다. 둘째, 다른 수행법은 법력이 높은 스승이 있어 증득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지 않으면 위험한데 반해, 정토선은 3단계가 모두 한마디 염불소리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쉽고 안전합니다.

정토선은 오로지 '나모아미따불(南無阿彌陀佛) 나모아미따불(南無阿彌陀佛)' .....
이렇게 염불을 계속하면, 귀속이나 몸속에서 염불소리가 들리는데 '자성염불(自性念佛)'이라 합니다. 몸속에서 염불소리가 들리면 더 이상 소리 내서 염불하지 않고 몸속에서 나는 염불 소리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한 생각만 남는 일념(一念) 상태에 들어갑니다. 집중된 상태에서 자성염불을 계속 들으면 어느 단계에서 염불소리조차 사라지고 무념(無念)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토선종과 함께하실 대덕스님들을 환영합니다.
오직 불제자의 자세로 함께 정토선을 위해 정진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 西方寺 굉송 등정 합장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 1길 432-39 / 전화 055)673-3719

관정대사 11주기 다례재 및
제8회 보리수 축제



본 서방사에서는 오는 6월 3일 경내에서 열고자 합니다. 향기는 은은하지만 열매는 정열적인 보리수 열매처럼 모든 분들이 풍성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같이 동참하시어 즐겁고 행복한 나날의 원동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8년 6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방사 경내

1부 : 관정대사 열반 제11주기 추모법회 10시
2부 : 노래자랑, 음악 및 중식제공, 보리수 따기 체험

주최 : 대한불교 정토선종

西方寺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1길 432-39 / 전화 055)673-3719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팔공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아헹가 요가

■ 아헹가 요가 서울 상담센터
☎ 02)540-0955
■ 아헹가 요가 대구센터
☎ 053)753-3550
■ 아헹가 요가 대구 달서센터
☎ 053)633-3353
■ 아헹가 요가 부산센터
☎ 051)526-5262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33관음 대불 도량"
"기도 가피가 빠른 도량"

우리절 성관음사

주지 일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37-33
신행상담 : TEL 053)655-3380

부처님오신날

영화 '무문관' 상영 중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밝히기

영험의 도량, 불가사의한 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에 복덕과 지혜,
성취와 건강의 연등 밝히시어 부처님의
가피 받으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예비 수행승(행자) 모집

수계 후 공부 100% 지원,
큰절 또는 감포도량 택일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량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대구불교사원연합회

社團法人 摩訶耶那佛教文化院

신도회장

강정규(진월)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51길 11
불교대구회관(대명2동)
TEL 053)652-9500
FAX 053)629-9600
휴대폰 010-8573-6997
메일 : jellobg@hanmail.net

高靈瓦 Goryeong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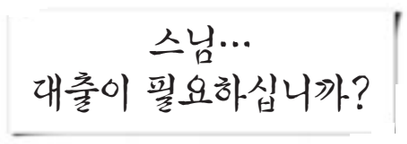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스님들의 고민 !!!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 (구.신암동)
TEL 053)945-0007/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향은 고요한 마음의 벗이
되어 드립니다"

새로운 차 문화의 시작

「감로다반」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www.cwh.co.kr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진규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 사 장 도 진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능인고등학교장 김원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800)
TEL 053-235-4481, 053-232-9102
FAX 053-763-1807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불교에도 이런 곳이? 다함께 가즈아!”

청춘도 반할만 한 불교공간

청년불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때 불교계 역시 청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조금씩 변화해왔다. 카페 · 갤러리 · 상담소 · 공연장까지 과거 불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문화적 요소들이 불교계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가볼까? 불자가 아니어도 젊은이라면 누구나 반할만 한 불교공간 4곳을 소개한다.

윤호섭 · 하성미 · 박진형 기자

격식 없이 편하게 고민 털어놓기

서울 홍제동 비로자나국제선원

서울 홍제동에 자리한 비로자나국제선원은 격식과 전통을 추구하는 일반사찰과는 달리 열린 공간이다.

아이들이 맨발로 절에 오거나 법당에서 뛰어논다고 해서 이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불교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형식보다는 절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깼다. 특히 30~40대 젊은 비구니스님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편히 절을 찾아 스님과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빌라 형태의 건물 한 동으로 이뤄져 있다. 1층에는 불교 색채를 최대한 배제한 갤러리카페 ‘까루나’를 운영해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카페 안에는 별도의 상담공간도 마련돼 있어 원한다면 스님과의 상담도 가능하다. 지하에는 선무도장이 마련돼 있으며, 2층 종무소와 3층 법당이 들어서 있다. 조계사 청년회 법회를 6년간 지도하고,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법회를 돕는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이 불교를 더욱 쉽게 접하고 절에서 하루를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꾸민 것이다.

아직 비로자나국제선원에 청년법회는 없지만 부처님오신날 이후 창립할 예정이다. 선원만의 프로그램인 어린이 영어 담마스쿨을 거쳐 성인이 된 청년들의 신심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청소년법회를 운영 중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열린다.

법회 이후에는 서대문구립요양원에서 어르신 식사보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선원 인근에 조성된 안산 자락길을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홍제천 인공폭포를 감상하고, 메타세콰이어숲을 거닐며 가득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선원장 자우 스님은 “대학생들에게 한 주 동안 뭘 했는지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은 얘기가 대부분이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힐링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낀다”며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사찰로 거듭나도록 노력 중이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02)6012-1731





“걷지 말고 손가락으로 찾아와!”

대불련 뉴미디어 콘텐츠 ‘불나방’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더 각광받는 시대, 불교 공간이 꼭 오프라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난 2월 전국 대학교 불교동아리 모임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는 페이스북 페이지 ‘불나방’을 신설했다. ‘불교를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방’의 줄임말인 ‘불나방’은 기존 대불련 페이스북만으로는 청년불자를 위한 콘텐츠를 담기 부족해 마련한 것이다.

대표적인 코너는 ‘알쓸불상’으로 ‘알면 쓸데 있는 불교상식’이라는 뜻이다. 카드뉴스형식을 빌려 불교용어 · 인물 등을 사진과 그래픽으로 보기 좋게 가공해 전달한다. 특히 4월에는 벚꽃의 계절을 맞아 ‘봄꽃 구경하기 좋은 사찰 사대천왕’을 소개해 대중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불나방TV’를 통해 불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 불교동아리 재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소통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첫 회에는 ‘불교동아리는 연애 금지 아니냐’는 코믹하면서도 톡톡 튀는 질문을 주제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는 연등회보존위원회 협조를 받아 연등회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소하지만 알지 못했던 불교에 대한 지식을 비불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하는 점과 청년불자들이 의기투합해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여타 불교 공간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윤섭 대불련 불나방 기획팀장은 “앞으로 입체적인 콘텐츠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나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활동 소개도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통일 이슈에 맞춰 불교굿즈를 제작해 탈북민을 위한 모금활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불나방은 현재 조금씩 대학생불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 200명을 돌파했으며,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 중이다. 영상이 더 많아지면 유튜브 공식채널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마음충전소는 대한민국 고시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허해진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각종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고시생들을 ‘상담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이 원한다면 30대의 젊은 마음충전소장 등명스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음충전소는 마음 보관 텐트, 레고 불상 만들기, 주먹밥 보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자가 아닌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마음충전소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1인용 텐트들이다. 이 ‘마음충전텐트’에서는 누구나 명상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고시생들은 주로 텐트 속에서 ‘내가 왜 시험을 준비하는가’ ‘지금 왜 힘이 든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다고 한다.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외부와 단절된 곳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텐트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한 불안과 우울은 ‘마음 보관함’에 넣어 버릴 수 있다. ‘나의 불안한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고 간다’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년들의 희망을 충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레고붓다’ 프로그램도 실시해 많은 청년들의 이목을 끌었다. 레고로 작은 불상을 만들어 발원을 써 붙여 간직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아진 청년들이 작은 레고로 부처님을 완성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 레고로 부처님을 만들면서 집중을 하다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완성했을 때 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음충전소와 불교에 폐쇄적이던 학생들도 레고를 만들며 스님과 친해지고, 점차 자신의 얘기를 시작했다.

등명 스님은 “삶이 버거운 친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드는 친구에게는 집중력과 정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즐겁게 마음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중이다. 힘든 청년들은 언제든 마음 충전소를 찾아오라”고 강조했다. (02)3666-0259

#젊은 스님 #1인텐트 #레고붓다

서울 노량진 마음충전소

드넓은 바다 앞 열린 문화공간

부산 송도 쿠무다

부산 송정 바닷가를 마주보는 ‘쿠무다(kumuda)’는 2013년 12월 개원한 북카페다. 범어로 ‘하얀 연꽃’을 의미하는 쿠무다는 부처님의 청정함을 상징하는 연꽃을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불교색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눈에 띄는 점은 종교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 문화공간으로 카페를 활용하는 것이다.

카페 입구에 들어서면 로비 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와 이를 둘러싼 원형탁자가 눈길을 끈다. 카운터에 매달린 펼친 책 모양의 메뉴판도 인상적이다. 카페 안쪽에는 대화를 나누기 좋은 별도의 공간이 있으며, 신발을 벗고 2층에 올라가면 좌식 형태로 카페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다.

현재 매주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정기음악회가 열리고, 북콘서트 · 갤러리 작품 전시 · 청년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수년째 지속되자 송정바다를 찾는 서핑족들을 비롯해 청년들이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북콘서트에는 안도현 · 정호승 · 문태준 시인을 비롯해 혜민 스님, 개그맨 이수근 등 유명 작가와 활동가 등을 초청했으며, 신인작가 및 예술가를 발굴해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한 마카롱 · 타르트 등의 베이킹 클래스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처럼 쿠무다를 문화포교 아이콘으로 만든 것은 바로 주석 스님. 쿠무다 위층에 자리한 대운사 주지다. 스님은 어느 날 백화점에 갔을 때 “스님도 이런 곳에 오나요?”라는 꼬마아이의 질문을 듣고 종교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쿠무다가 남녀노소, 종교인과 비종교인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 때문이다.

주석 스님은 “고답(高踏)스러운 불교문화를 버려야 한다. 한국불교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열린 눈으로 사회적 역할을 고찰, 담당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불교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세련된 문화에 불교를 담았을 때 사람들의 호감도와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051)701-7559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덕오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원명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법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법주

포교원
포교원장 석도일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유심

교구종무원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정보부장 석법주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도일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단연합회회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제 20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대재
귀의삼보하옵고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에서 주관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21,709위의 추모대재를 봉행함에 있어 추모대재에 사찰 및 민간인 단체, 개인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므로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62년 5월 28일 (음력 4월 14일) 월요일 10시
■ 장소 :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문의 : 봉행위원장 총무원장 혜오(010-3562-2462)
증 명 법 사 : 보산당 법광 대장로
집행위원장 : 정산당 청봉 대종사
봉행위원장 : 혜오 총무원장
집 행 위 원 : 홍섭,보행,원정,덕어,원명,수오,설산,법현,월오,법경,법주,법진,지광,도일,유심,지혜,화성,현오,법원,지담,도현,지현,해안,우정 (무순)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희망과 나눔을 함께하는

영천불교연합회

회 장 성상
회원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서문길 69(교촌동 237)
TEL 054)334-3526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해 운 정 사

주지 청명

청명노인복지센터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초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번지(송현2길 35)
053)621-6237 / 010-3191-6237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단법인 대한불교능조계종 총본산

자 인 사

총무원장 구 룡
주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TEL 053)984-1125 / FAX 053)984-1129
H·P 010-7142-1339 buffa2002@naver.com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본사

정 림 사

종 정 보 명
총무원장 혜 법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주길 253-46
054)338-6300 / 팩스 054)338-6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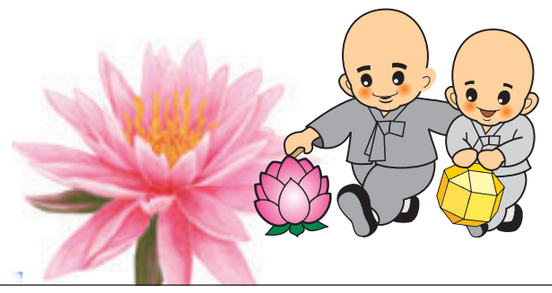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홍기종합건설(주)

대표 황동열

문화재수리업 토목건축공사업

■경남 김해시 칠산로 511-46(풍유동)
TEL 055)329-2597~8 / FAX 055)329-2596
E-mail : munhwajae2597@hanmail.net
웹하드 ID : hk2597 / PW : 3333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 FAX 051)642-8361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 .범패 교육원)

■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스마트시티, 불국토를 이루는 기술

⑩ 스마트시티와 불교



스마트시티가 가져오는 변화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은 아직 조용한 편이지만, 조금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가히 스마트시티의 시대라 할만큼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스마트시티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2012년에는 중국, 2014년에는 인도가 야심찬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고, 현재도 수많은 후발국들이 속속 스마트시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스마트시티에 대해 비교적 조용한 한국이 실은 스마트시티의 원조국이라는 점이다. 2000년대 초부터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만들어진 유시티(u-City)가 현재의 스마트시티에 불을 붙인 시발점이었다.

스마트시티는 한마디로 도시와 지능기술을 융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변화에 익숙해져 있다. 은행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온라인 뱅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정부와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전자정부를 만들기도 했다. 쇼핑도 인터넷과 융합하여 전자상거래로 변한지 오래다. 이런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도시가 각종 지능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다. 이미 도시 곳곳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GPS를 버스에 부착하여 버스의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CCTV를 달아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시티는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각종 지능기술, 예컨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VR/AR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인공지능 하나만으로도 미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47%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2013년 발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절반 정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스마트시티는 이런 지능기술들을 모두 모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변화의 폭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스마트시티가 몰고올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기 보다는 도움을 주는 측면이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능기술은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해서 많은 역기능을 불러오기도 할 것이다. 그중 일자리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스마트시티가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중심 도시 구성의 시발점

그 첫 번째 긍정적 변화는 도시의 창의적 진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기존 도시들이 물리적 대응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스마트시티는 창의적 대응을 위주로 한다. 예컨대 주차문제에 대해 주차장을 늘리는 기존 방법 대신 공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여 차량의 수를 줄인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 기존 도시들은 도시문제와 물리적 대응을 반복하는 성장의 악순환에 빠졌지만, 스마트시티는 도시가 계속 더 좋은 상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창의적 진화를 통해 오늘의 도시보다 내일의 도시가 더 살기 좋아지고,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지속가능성장이 실현되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을 만들어준다. 자동화로 공장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스마트시티는 도시에서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 준다.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이 가능하고, 로봇을 활용하여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혁신적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시티가 많은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고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차드 볼드윈(Richard Baldwin)은 20세기에 공장이 하던 역할을 21세기에는 도시가 수행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마트시티는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각종 공공서비스와 도시운영시스템이 시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신 시민들이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시민들이 도시의 운용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서비스도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 맞춰 제공된다. 예컨대 노선버스가 미리 계획된 스케줄로 운행하는 것은 옛날 일이 될 것이다.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각종 운송수단을 연결하여 개인맞춤형 노선이 생기는 것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본 스마트시티

이런 스마트시티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세 가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스마트시티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인과 연으로 연결되어 생명이든 사물이든 어느 하나에서 일어난 변화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역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연기론은 불교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스마트시티는 마침 이 연기론을 가장 중요한 구성원리로 적용하고 있다. 소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시티의 연결성 원리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정보, 모든 행위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시시각각 변화는 도시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화엄기반 연결성 원리 반영
불교 연기관 구현한 도시
인간, 지능 넘어 지혜 탐구
스마트시티 주축 나서야

스마트시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게 된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듯, 스마트시티는 어느 한 사람, 한 지역의 문제가 도시 전체의 아픔으로 번지는 연기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과거 산업사회사회가 저질렀던 물질중심의 기계적 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곧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 세대를 위한 이기적 행위가 다음 세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기적 세계관의 연장선에서 스마트시티는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一卽多 多卽一'의 사회를 만든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작동원리는 화엄의 사상을 그대로 녹여냈다. 지능기술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이고, 내가 만드는 데이터가 다시 사회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리는 판단과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기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을 하나로 응축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거꾸로 나의 판단과 행위는 사회 전체의 지식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스마트시티에서 개별 시민은 사회 전체를 반영하고, 사회는 개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반영해 간다.

셋째 스마트시티에서 인간은 지능을 넘어 지혜를 추구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스마트시티에서 지능은 더 이상 인간의 독점물이 아니다. 읽고 쓰고 대화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일을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훌륭하게 해 낼 수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일이 단지 지능을 키우는 것이라면 스마트시티에서 인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된다.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상체계가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을 두렵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서구 합리주의에서 인간의 일은 합리성과 지능을 키우는 것으로 집약되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니 인간은 더 이상 할 일도 존재이유도 찾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사상은 지식과 지능의 테두리에 인간을 가두지 않는다. 이를 뛰어넘어 지혜, 즉 般若 혹은 '쁘라기냐'를 찾는 것이 더 큰 의미이자 도전이 된다. 단지 겉으로 들어난 데이터와 지식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찾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합리적 능력을 대체하는 스마트시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겉으로 들어난 지능과 합리성을 찾는 일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하는 새로운 사회가 열린다. 달리 말해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시민은 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한 기능을 그저 누리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그런 편의를 바탕으로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능동적 구도자가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인간의 도전을 돕고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불교공동체의 역할

스마트시티는 불교공동체에게도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속세의 모습이 달라지는 만큼 속세를 이끌어야 할 불교공동체의 역할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만남의 방식이다. VR/AR 같은 가상공간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매개로 만날 수도 있다. 또 속세와 떨어진 산사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연결되어 신도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오고가게 할 수 있다. 사찰에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적용하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대폭 덜어낼 수 있고, 인간은 수행정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교공동체가 스마트시티 안에서 새로운 위상과 위치를 차지하여 양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교공동체가 해야 할 보다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이다. 스마트시티는 사람들이 아무 번뇌와 고통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관계, 활동양식을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만큼 불교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에서 시민이 해야 할 역할이 지혜를 키우는 일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도와줄 곳이 불교공동체이다.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만큼 불교공동체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종성(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불기 2562(2018)년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佛教正法을 수호하며 세계속에 불교의 위상과 정법포교를 위하고
지구촌 그늘진 곳의 인간방생과 중생 구제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한국불교
400여 종단불교 최고의 고승 및 지도자들이 초발심으로 재발심하는 자정의례 대법회



성공적 대성황을 이루도록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머리숙여 감사의 합장 올립니다.
보내주신 성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불교 지도자이신 고승 및 모든 종사, 대종사들게서 평소 가슴에 와 닫는 법구와 대표적 약력과 사진 1매씩 7월말까지 보내주시면 대한불교 고승 및 대종사 어록집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 : 대승정 목탁 합장

● 주관 : 세계불교도들의 정법수호연대. 大韓佛敎 大宗師,宗師 聯合會 ●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사단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대한불교108宗正 연합회 · 국제붓다평화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 팩스 733-5615. 010-3618-6061 / E-mail : moktak1@korea.com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대부중 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오백나한기도도량
등명락가사
주지 청우
신도 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괴방산길 16
TEL 033-644-5337, 5475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 왕 사**
조실 월서
주지 지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7길
TEL 064-748-8811, 8822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법산 경일
이사장 이종현 봉축위원장 안동일
제 6차 전국염불만일회 21차년도
구례 화엄사 염불정진대회(7.27 ~ 7.29)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FAX 732-1207
www.dongsanbud.net

대한불교조계종
태화산 **서 악 사**
주지 도륜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안동시 태화동 서악길 67-14
TEL 054-852-9126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련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길 6 (4층)
TEL 02-701-7488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 석 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 054-633-3464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관음사 신도회
관음사 불교대학(원)
붓다스마일 합창단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 주소 : 광주 동구 충장로 46번길 7
TEL 062-223-7666

대한국불교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TEL 010-8540-8209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각사
주 지 벽 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제로 524-35 (덕현리 산 176)
TEL 063)222-2555~6

"책만드는 사람들"
현 대 북 스
사찰 회보 기획 제작
및 각종 편집디자인
■ TEL 051)244-1251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서 중 호**
수석부회장 **강정구**
부 회 장 **남단아**
부 회 장 **박경석**
부 회 장 **구미숙**
부 회 장 **조현대**
신도회 일동
■ 대구 광역시 남구 중앙대호 51길 11, 불교대구회관(대명 2동)
TEL 053)652-9500 / FAX 053)629-9600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 엄 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大本山 **약 사 사** (지장전추모관운영)
신 도 일 동
재단법인 화 엄 승 가 장 학 재 단
공익법인 대 한 불 교 화 엄 종 장 학 회
이 사 장 **한 상 호 (화응)**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의사소통, 사중화합과 사찰성장 초석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⑨ 승가 발전 방안



지난 겨울 촛불집회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스님의 모습. 소통은 승단을 건강하게 하고 불교를 발전시키는 근본 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인 사회갈등의 기저에는 의사소통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층간소음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세대갈등, 노동자와 기업 간 요구나 욕구의 충돌로 인한 노사갈등 등은 모두 의사의 불통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사찰은 이러한 갈등과는 거리가 먼 평온한 화합의 공간으로 여겨지고는 한다. 사람들은 사찰이라고 하면 우선 산새가 지저귀고 계곡물이 흐르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자연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법담(法談)과 덕담(德談)이 흐르는 정겨운 모습을 연상한다. 하지만 사찰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기에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갈등들이 존재한다. 때로는 승가(僧伽)의 어원이 화합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갈등이 노정되기도 한다.

사찰은 깨침의 길,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길동무(道伴)'의 모임이요, '좋은 벗(善友)'의 무리이며, 불교의 이상인 깨침과 자비의 실현을 위해 모인 자발적인 신행 공동체로서 우유와 물이 한 맛(一味)이 되는 화합을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증지부(增支部)〉는 "세상의 일들을 함께 하고 서로 위로하고 다툼이 없으며 우유와 물이 화합하듯 자비의 눈을 갖고 사는 비구의 모임을 화합된 무리라 하며, 이러한 부처님의 교단은 세상 사람들의 위없는 복밭이니라"라고 승가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승가 화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戒)·견(見)·이(利)·신(身)·구(口)·의(意)의 화합인 이른바 육화경(六和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여섯 가지 화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둘째, 의견을 같이 하라. 셋째, 받은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섯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하라"이다. 그런데 이 육화경의 조목은 모두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고, 의견을 같이 하고, 받은 공양을 똑 같이 수용하고,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고, 항상 자비롭게 말하고, 남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를 실천하기 위한 상호간 소통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사찰의 의사소통은 승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찰은 스님만의 수행과 생활을 위한 전유 공간이 아닌 스님과 신도의 공존과 공유의 공간이다. 사찰의 화합은 승가뿐만 아니라 사중의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찰에는 의사의 불통이 심각하게 대두되고는 한다. 그 중에서도 스님과 신도간 불통은 아예 매너리즘(mannerism)이 되어버린 지경이다. 스님과 신도 사이에 의사소통이 아닌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전달과 의사소통은 다르다. 의사소통이란 하나의 과정으로써 전달의 과정뿐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과정이며 영향력을 주는 형태이다. 즉 의사소통이란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호인격적 작용을 통하여 메시지를 이해하고, 의사를 수용하며, 나아가서 수신자의 변화를 기대하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한다.

스님과 신도간 의사의 불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의사소통과 의사전달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양자간 의사소통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스님이 매양 신도에게 자신의 의사를 지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의 모양새다. 이는 의사전달이지 의사소통이 아니다. 의사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나 의사전달은 일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서로가 공감하여 화합할 수 있으나, 후자는 서로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여 불화가 발생한다.

의사소통은 공감서 시작
불통의 조직 화합 해쳐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해야

그렇다면 사찰에서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무엇일까? 의사소통이란 언어, 문자, 그리고 표시로 전달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의사·정보·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의도하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만으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말을 전달하고 메모나 메시지를 남겨둔 것으로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그것은 의사전달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소통은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찰에서는 스님이 신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이해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스님이 총명(聰明)해져야 하는 것이다. 총명은 귀가 밝고 눈이 예민하다는 의미이지, 말을 잘하거나 말이 많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천(人天)의 스승인 스님은 총명해야 한다. 스님은 신도에게 말하고 지시하기를 앞서 신도의 이야기와 생각을 듣고 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화합뿐만 아니라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성장할 수도 없음을 잘 안다. 사찰에서도 스님과 신도가 의사를 소통해야 화합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합해야 사찰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은 어떻게 사찰성장을 이끄는가? 의사소통은 공감대 형성, 갈등 예방과 갈등 해소, 참여의식 제고 등의 기능을 하기에 사찰성장을 이끌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은 공감대를 형성해준다. 사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도 개개인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통합시켜야 하는데 이때 의사소통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개개인으로서의 신도는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대하는 태도와 대처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공동의 관심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스님은 중요 사안을 전체 신도 앞에 공지하고 그 사안을 설명하고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스님이 중요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한다면 신도는 사찰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사찰은 군대와 같은 강제성이 발휘되는 조직체가 아니다. 사찰은 자발성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는 조직체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스님과 신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해준다. 인간이 모여 만든 조직이면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의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사찰은 상하의 계급적 질서가 있는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질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찰의 특성 때문에 조직 내부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갈등이 야기되면 상처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활발한 의사소통은 사찰내 계급 혹은 계층간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주고나 발생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은 참여의식을 제고시킨다. 사찰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은 신도로 하여금 자신을 사찰 의사의 결정 주체로 인식하게 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임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한다. 의사소통이 상하좌우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찰은 신도의 동기를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동기유발은 신도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찰 일에 참여하게 한다. 즉 사찰의 주체로서 자신을 의식하고 주인이 심혈을 기울여 가정을 돌보듯 사찰을 돌보게 하는 것이다. 사찰은 조직구성의 강압성이나 업무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도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능이다.

최근에 와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불교 역시 사부대중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의사의 불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스님들은 승속(僧俗) 차별의 권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한 권위의식은 스님과 신도간 의사를 소통이 아닌 전달로 만들어 버렸다.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조직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화합하기가 어려우며, 화합이 어렵기에 성장하지 못한다.

한국불교의 의사소통은 교단과 종단 그리고 사찰의 성장과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대는 의사소통이 성장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것이 낙후된 사회나 조직은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한국불교는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스님과 스님, 스님과 신도, 신도와 신도가 원활하게 의사를 소통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청계장애인 주간시설
대궁어린이집

■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청계동)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 일동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음력 초삼일 독성3일기도
음력 16일 산신기도

■ 서울시 강북구 안수봉로 23길 235
TEL 02)988-9300
w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 호

사부대중 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신흥사 불교대학
경전반

회주 성 일

대중일동 ·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삼 선 포 교 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55번지
TEL 02)923-0582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 암 사

회 주 두산 일면
(조계종 원로의원)
주 지 선 도
총 무 법 륜
신도회장 허일심화

불암사 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 일**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TEL 031)527-8345
■ 불암사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031)852-2595

부처님오신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무한참나선원

사부대중 일동

■ 미륵정토사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TEL 041) 855-3566
■ 무한참나선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TEL 02) 912-1050

대한불교조계종

포 교 사 단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포교사 일동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FAX 02)927-5390



인천불교회관(연화사)

주 지 일지

신도회장 여법성(이숙자)

대중일동

■ 인천 남동구 성말로 13번길 56
TEL 031-442-9910 FAX 032-442-9902

대한불교천태종

광 수 사

주 지 무원
총 무 덕련

신도회장 박병호

신도일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63번길 26
TEL 042) 823-0332 ~ 4

잃어버린 아미타불, 대학박물관에 있었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⑨ 하동 쌍계사의 도난 성보

우리나라 불교문화재는 화재와 수해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전쟁 중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몽고 침략, 임진왜란, 한국전쟁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사찰 파괴를 불러일으켰고, 종전 후 새로운 성보물의 제작으로 인해 불교미술사의 시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 그 가운데 한국전쟁 중에 지리산 내에 있는 사찰은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하동 쌍계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동 쌍계사는 1953년 9월 18일에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 끝까지 저항하다 숨진 빗점골과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소실되지 않아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보고라고 생각한다.

이 사찰도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1980년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많은 성보를 도난당했다. 조계종이 2016년 펴낸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총무원이나 문화재청에 신고된 도난문화재는 신중도(1781년 作, 1997.8.4 도난)와 화엄경변상도(1790년 作, 1997.8.4 도난), 문수보살동자상(1705년 作, 2002.12.13 도난), 말사인 국사암 영산회상도와 나한도(1988.3.23. 도난) 등이다. 이 가운데 국사암 불화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신고되어 있지 않다(문화재청 누리집 도난문화재).

쌍계사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리산 남쪽에 있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로, 부속 암자는 4개이고, 관장하는 말사는 43개이다. 이 절은 722년에 의상(義湘)의 제자인 대비(大悲)와 삼법(三法)이 창건했다. 삼법은 당나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육조혜능(六祖慧能)의 정상(頂相)을 모셔다가 삼신산(三神山)의 눈 쌓인 계곡 위 꽃이 피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을 꾸고 육조의 사리를 구해 귀국하였다. 그리고 한라산 · 금강산 등을 두루 다녔으나 눈이 있고 꽃이 피는 땅을 찾지 못하다가, 지리산에 오자 호랑이가 길을 안내하여 지금의 쌍계사 금당(金堂) 자리에 이르렀다. 그곳이 꿈에 알려준 자리임을 깨닫고 혜능의 머리를 평장한 후 옥천사(玉泉寺)라 하였다.

그 뒤 840년에 진감국사(眞鑑國師)가 중국에서 차(茶)의 종자를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대가람을 중창하였다. 정강왕 때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1466년에 선비 스님이 팔상전을 중수하였고, 1506년에는 진주 목사인 한사개(韓士价)가 후원해 불사를 이루었다. 1540년에 주변 환경이 매우 피폐해지자 중섬 스님이 조정에 알려 예조로부터 쌍계사 주변 5리 이내에는 나무를 베거나 불을 놓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3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어서 팔영루의 지붕을 고치고 진공대사대공탑비 앞뒤에 석축을 쌓았으며 연못을 만들었다.

1543년부터 운수승 혜수 스님이 중수를 발원해 몇 년 만에 대웅전을 시작으로 금당과 방장실을 고쳤고, 1549년에 서산대사 휴정 스님이 중수하였다. 그러나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말았다. 이를 1632년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과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 스님이 함께 힘을 모아 화주 덕화 스님과 함께 중창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때의 중창은 예전 터가 너무 좁아 지금의 자리에 옮겨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응진전, 명왕전, 관음전, 화엄전, 팔영루 및 여러 요사들을 건립하고, 마당 한 가운데 진감국사대공탑비를 두었다. 이후 1675년에 인계(印戒) 스님이, 1695년에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 스님이, 1735년에 법훈(法訓) 스님이, 1850년에 쌍운(雙雲) 스님이 각각 중수하였다. 또 1864년 봄에 담월(潭月) 스님과 용담(龍潭) 스님이 육조정상탑전의 칠층석탑(정상탑)을 지었다.

쌍계사에서 유출된 문화재는 상당히 많지만, 도난 신고된 성보물은 3점이고, 국사암에 4점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물은 화엄경변상도와 목조문수동자상이다. 화엄경변상도는 〈화엄경〉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줄인 말로, 주요 내용은 석가모니가 중인도 마가다국의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正覺)을 이룬 뒤 구름처럼 모인 대중들에게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말한 것이다.

경전의 권수에 따라서 40화엄, 60화엄, 80화엄으로 나뉘며 경을 설한 장소(處)와 경을 설하는 모임(會)에 따라 60화엄은 7처8회, 80화엄은 7처9회로 구분된다.

조선 후기 그려진 '화엄경변상도'는 80화엄에 따라 7장소에서 9번 화엄법회를 열었던 모습을 도해하여 '화엄회도' '화엄7처9회도'라고 불린다. 이 소재는 1765년에 만들어진 김룡사 화장암을 비롯하여 1770년에 송광사, 1780년에 선암사, 1790년에 쌍계사에서 그려졌고, 19세기 초반에 그려진 통도사 작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재 18세기 만들어진 네 점의 작품 가운데 김룡사 화엄경변상도는 기록만 남아있고, 선암사, 쌍계사 소장 화엄경변상도는 유출되었고, 송광사 소장본(국보 314호)만 남아있다.

화엄경변상도는 상 · 하단 모두 법회장면이 거의 대칭을 이루고, 여러 모임을 짜임새 있는 구도로 그려놓았다. 황토색 바탕에 적색과 녹색 등을 사용하고, 각 회주인 보살형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여러 성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면 아래에는 보현보살이 대중들에게 비로자나불의 정토인 연화장세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화엄경〉39품 중의 '화장세계품' 내용을 도해한 '연화장세계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도난당한 목조문수동자상은 같이 조성된 보현보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705년에 색난 · 석현 · 행탄 스님 등 17명의 조각승이 제작한 대형불상으로, 현존 보현보살상의 높이가 118.7cm이며, 조선후기 제작된 문수동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3월 23일에 국사암에서 도난당한 불화는 도난 이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화면은 정방형에 가까운 크기의 구성으로 팔대 보살과 여섯 제자를 세열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수미단 위에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아미타여래는 정상계주가 둥근 보주 형태이고, 편삼을 입지 않고 대의만 착용하고,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리고, 왼손을 배 위에 내린 수인을 취하고 있다. 정상 계주에서는 서광이 세 가닥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팔대보살은 백의를 입고 정병을 든 관음보살, 관음 맞은편에 경책을 든 대세지보살과 옆에 석장을 든 지장보살이 서 있다. 관음 옆에 여의를 든 보살은 지장보살과 짝을 이루는 미륵보살로 보이고, 전면의 네 보살상은 연꽃을 든 문수와 보현보살, 합장한 두 보살상은 제장애보살과 금강장보살로 추정된다. 상단의 6명의 나한상이 좌우로 3구씩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영산회상도와 같이 도난당한 나한상은 크기와 구도 및 세부 표현에서 같이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불화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아미타여래도와 동일한 불화가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불화는 서울 모 대학에서 개최한 '내세에의 염원'(2013)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 두 작품은 본존의 자세와 광배 표현, 보살상의 자세와 지물, 나한상의 얼굴과 자세 등이 동일하다. 대학박물관에 소장된 불화는 규격이 세로 145.7 · 가로 134㎝라 일제강점기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세로 4척8촌, 가로 4척4촌인데. 1933년 1월 14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 목록 중 후불탱 8건 14점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쌍계사에서는 본사 차원으로, 말사와 암자에 현존하는 성보물과 이전 작성된 재산대장을 비교해서 유물 문화재의 현황과 사진 등의 수집과 분석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1988년 도난된 하동 쌍계사 국사암 아미타회상도(사진 왼쪽)과 서울의 한 대학 박물관서 전시를 통해 공개한 아미타회상도(사진 오른쪽)의 모습. 둘의 도상과 불보살의 배치가 매우 유사하다.

조선 불교미술의 寶庫, 쌍계사
1980년대부터 많은 성보 도난
화엄변상도 · 목조문수상 등 주요

국사암 아미타도 1988년 도난
2013년 대학博 전시회서 확인
쌍계사, 본사 차원 대책 세워야



1997년 도난된 하동 쌍계사 화엄경변상도.



1997년 도난된 하동 쌍계사 신중도.

ACE+ 잘 가르치는 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 대학
Dongguk University Gyeongju
2017년도 2주기 대학기관평가 5년 인증 획득(2018~2022)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사업) 8년 연속 선정(2011~2018)
교육부 대학특성화(CK) 사업 선정(2016)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2016~2020)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전국 15위(대구경북권 2위) 기록
비수도권 사립대 전국 9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국 18위
인성과 역량 모두 갖춘 '참사람' 인재 양성
•동국엘리트장학 신입생 선발 정규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전액 지원, 매월 학업장려금 지급, 해외연수 파견 등 혜택
web.dongg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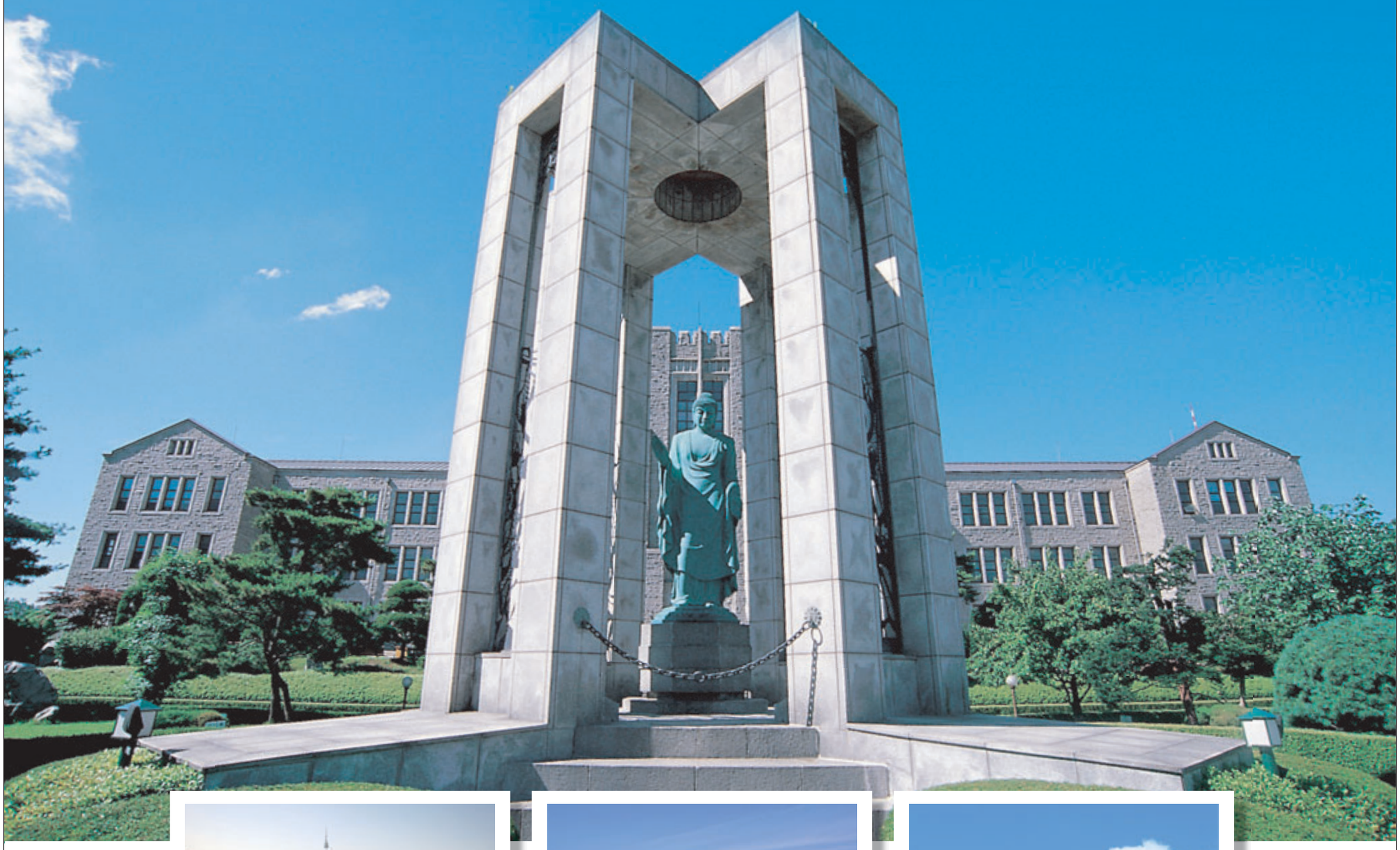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동국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참사람을 키워내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서울캠퍼스 – 인류애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경주캠퍼스 – 파라미타 칼리지를 통한 참사람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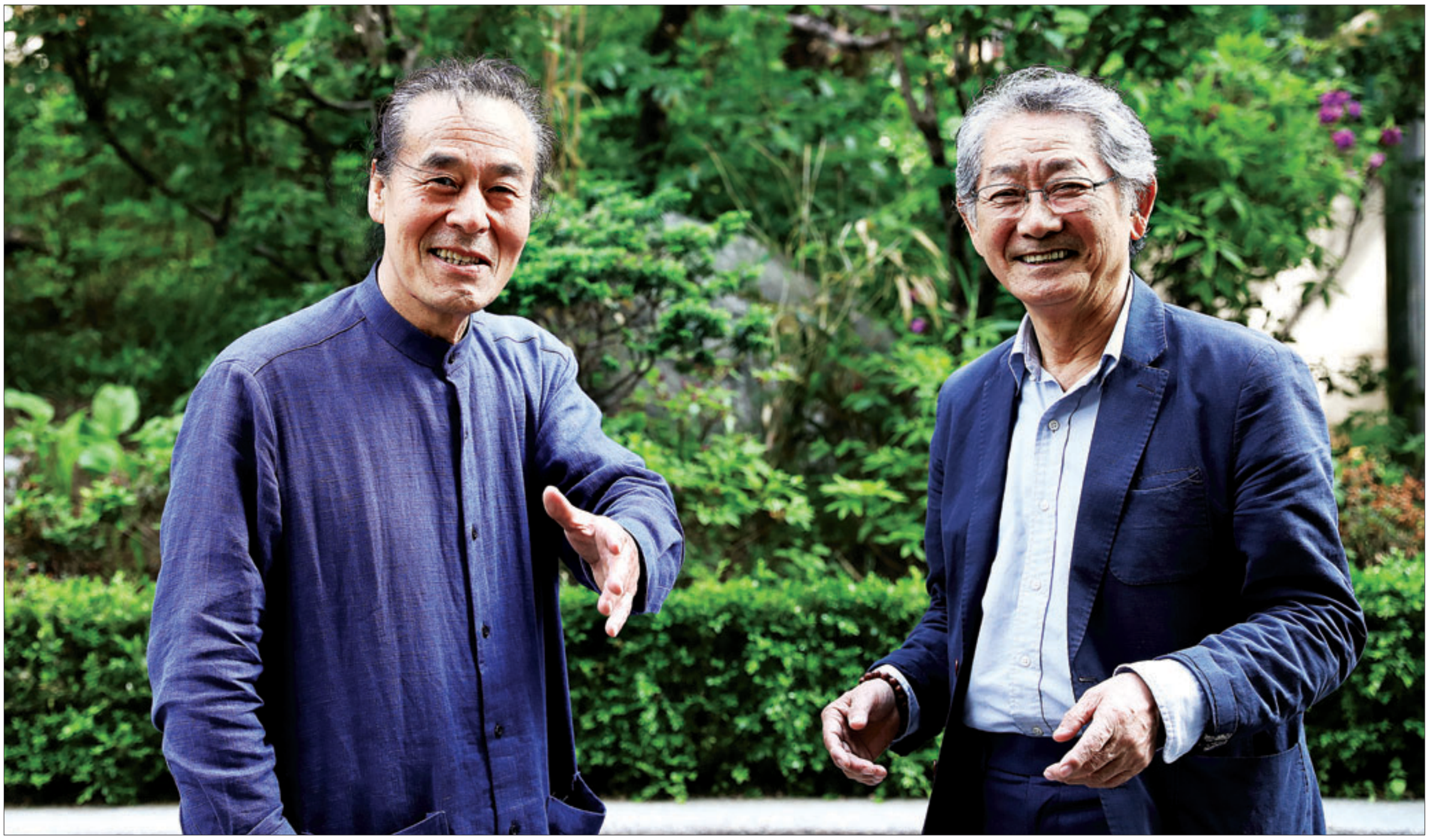
의료원 – 자비인술의 실천을 통한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홍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전산원

우린 '시네마 구법' 하는 선재 도반



서울예술대학 선후배 사이인 배우 전무송(우측) 씨와 영화감독 김행수 씨는 오랜 시간 다른 길을 걸어 2015년에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났다. 제작을 앞둔 불교영화 '공유'의 감독과 주연 배우로 만난 두 사람은 영화의 크랭크인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영화가 불교영화인 만큼 불교계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는 두 사람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만나 서로 안부와 격려를 나눴다. 사진=박재완 기자

道伴의 향기 영화감독 김행수(65)와 배우 전무송(77)

불교로 영화하는 김행수

영화 제작비 마련 위해 시나리오 '공유' 소설로 출간

빈약한 불교영화 제작에 환기 "불교영화 제작비 마련 어려워, 불자와 불교계 관심과 동참을"

1985년 영화 '단'으로 데뷔 평생의 영화테마로 '불교' 선택 다큐 '지장보살 김교각' 제작 새 영화 '공유' 크랭크인 눈앞 "불교 창작물 더 많이 나와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의 법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열반 후의 결집을 시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법불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시절은 아득한 시절이 된지 오래고, 전법의 모습도 시대를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 왔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법의 전범은 무엇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당에 대중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전법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글자만으로 전법을 다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법은 미디어는 물론 예술과 학술, 교육 등 다양한 형식과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법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실천의 문제가 복잡해졌다. 자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치도 필요하게 됐다. 그 실천의 문제로 힘든 길 위에 서있는 도반 둘이 있다. 불교로 영화 만드는 김행수 감독과 영화로 불교에 귀의한 배우 전무송이다.

서랍 속의 시나리오

지난 3월, 불교 소설 한 권이 출간됐다. 영화감독 김행수의 소설 〈공유〉이다. 이 책은 이미 오래 전에 김 감독이 완성한 동명의 시나리오를 소설로 출간한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다. 보통은 소설이 먼저다.

김 감독은 오래 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으나 제작비가 마련되지 않아 시나리오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오랜 동안 서랍 속에 있어야 했다. 김 감독은 영화 제작비 마련을 위한 오랜 모색 끝에 시나리오를 소설로 출간했다.

소설 〈공유〉는 '진공묘유(眞空妙有)'에서 왔다. 소설은 주인공인 노장 묵계 스님의 모습을 통해 불교와 삶을 이야기한다. 묵계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모습과 깨달은 바를 제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의 고뇌와 실천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 감독의 이번 소설과 시나리오는 오랜 동안 창작 불교영화의 제작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

"소설 〈공유〉와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 '공유'는 소설과 영화이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불사입니다. 오래 전, 영화 '만다라(1981년, 감독 · 임권택)'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년, 감독 · 배용균)'이 커다란 전법의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에서 30년이란 세월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긴 세월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빠른 진화가 거듭되고 있지만 불교영화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전의 영화 한 편이 해 낸 일을 오늘의 우리는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절 짓고 법회 한 번 여는 것도 불사이겠지만 좋은 불교영화 한 편 만드는 것 역시 큰 전법이고 포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두 영화는 각각 큰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우리 영화를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는 영화가 불교를 알리는 일이 됐다. 영화는 유럽과 미국 등 불교의 저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몇 년 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협회와 불교국제영화제가 생긴다. 물론 두 영화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김 감독은 두 영화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분명하다고 했다. 김 감독이 불교영화를 하는 이유다.

지장보살 김교각을 찾아서

김 감독은 1985년 김정빈 원작의 영화 '단'으로 데뷔했다. 하지만 흥행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김 감독은 오랜 시간 고단한 길을 걷게 된다. 데뷔작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감독에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힘든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김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테마를 찾을 수 있었다. 그가 찾은 테마는 '불교'였다.

김 감독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엘 다녔다. 김 감독에게 불교는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김 감독의 정서 깊숙이 심어진 불교가 김행수의 영화와 만난 것이다.

"어느 날, 오래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김교각 스님에 대한 기사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여행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곳에 가야만 김행수의 영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지 않을 수 없었죠."

1990년, 김 감독은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모신 중국의 구화산을 찾아간다. 김 감독은 교각 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진 성지를 돌아보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희와 인연법을 만난다. 김 감독은 귀국하여 교각 스님과 지장보살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이듬해 다시 구화산을 찾는다. 그리고 교각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작한다.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이다. 교각 스님에 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였다. 그 때부터 김 감독의 종교는 지장보살이었다.

"불교는 이미 저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밥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고 절대적이지 않은 불교였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 같은 것이었죠.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고, 크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종교가 저를 따라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넓어지고 커지는 만큼 나에게 심어졌던 어린 시절의 불교도 함께 자라고 변화된 것 같아요. 교각 스님과 지장보살을 알게 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지장보살을 닮고 싶어졌어요. 지장보살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참다운 불자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불교영화를 꿈꾸는 이유도, 방법도 거기서 출발하고 싶어요."

C2면에 계속

INSIDE

C7
문화
윤길중 사진전 '큰법당'

C10
봉축특집
세계의 부처님오신날

C13
봉축특집 · 동화
마음으로 밝힌 등불 하나

“잘 만든 영화 한 편 전법이고 포교”

‘영화감독 김행수와 배우 전무송’

C1면에서 계속



배우 전무송이 출연한 영화 ‘만다라’의 장면들. 이 영화에서 배우 전무송은 지산 스님의 역할을 맡아 처음으로 삭발하고 법의를 입었다.





1991년 김행수 감독이 제작한 다큐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의 한 장면.

김 감독은 교각 스님의 다큐멘터리를 비디오테이프로 출시했다. 비디오 판매수익으로 교각 스님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생각처럼 많이 팔리지 않았다. 또 한 번의 좌절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김 감독의 불교영화에 대한 원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더 깊은 공부를 찾아 나섰고 더 단단한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김 감독은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기다렸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불교’를 담은 창작물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전법이고 포교의 전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사의 중요성을 모든 불자들과 불교계가 좀 더 깊이 인식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감독은 불교에서 영화의 테마를 찾고 교각 스님과 지장보살을 마음에 담은 이후로 불교영화에 대한 원력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김 감독의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늘 제작비가 문제였다. 불교계 안팎에서 여러 곳을 두드려왔지만 제작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 감독은 불교계 밖은 내버려두더라도 불교계 안에서의 힘겨움에는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김 감독은 자신이 영화감독으로 사는 한 자신의 테마는 불교라고 했다. 그리고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김 감독은 영화 제작에 대한 시절인연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함께 모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도반을 만난다. 배우 전무송이다.

김 감독은 영화 ‘공유’의 주인공인 묵계 스님 역에 배우 전무송을 캐스팅했다. 37년 전 ‘만다라’에서 지산으로 살았던 전무송이다.

“딱 한 사람, 전무송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2015년, 김 감독이 야심차게 계획했던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가 크랭크인 직전에 무산됐다. 역시 제작비가 문제였다. 그 때 김 감독은 전무송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었다. ‘건반 없는 피아노’의 주인공 이름도 ‘묵계’였다. 아쉽게도 영화의 제작은 끝내 무산되었고, 전무송은 묵계라는 이름으로 출가하지 못했다. 김 감독은 아쉽고 미안했다. 첫 만남이 바로 헤어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37년 전 지산의 이름으로 불교에 귀의한 전무송에게 김행수의 불교가 묻어있는 ‘묵계’의 이름을 주고 싶었다. 지산을 시작으로 거듭된 전무송의 깊어진 불교가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지산이 묵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다라’의 지산, 노장 묵계를 만나다

“정말 하고 싶었던, 기다렸던 배역이었어요. 영화 ‘만다라’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만났고, 그 이후로 ‘원효’ 등 많은 불교영화에서 불교적 삶을 살았어요. 영화를 한 편 한 편 끝낼 때마다 영화는 제게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언제부턴가 불교에 가까이 가있는 전무송이 보이기 시작했죠. 영화로 불교를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하나가 끝날 때마다 또 다른 작품이 기다려졌어요. 깨달은 법을 제자에게 전하는 묵계 스님의 역할은 저의 가슴을 또 한 번 뛰게 했죠.”

2015년 영화 ‘만다라’ 속의 지산 스님이었던 배우 전무송은 김행수의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를 통해 김행수와 만났다. 그리고 올해 봄 그의 작품 ‘공유’와 다시 만났다. ‘공유’의 시나리오를 읽고 난 전무송의 마음은 또 한 번 출가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

김행수 감독이 영화 ‘공유’의 주인공인 묵계 스님 역으로 떠올린 배우는 딱 한 사람, 전무송뿐이었다고 했다. 전무송 씨 역시 김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고 ‘공유’ 속의 묵계 스님은 해보고 싶은 역할이며, 가보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배우 전무송, 영화에서 불교를 만나다

연극배우로 이름을 쌓아가고 있었던 전무송은 1981년, 영화 ‘만다라’의 지산 스님 역할로 영화에 발을 디딘다. 그리고 지산을 연기하면서 불교를 만난다. 배우 전무송은 처음으로 삭발을 하고, 법의를 입는다.

영화로 불교 배운 전무송

임권택의 ‘만다라’로 영화 데뷔
대종상영화제 남우조연상 신인상
원효 등 불교적 인물 다수 연기
“영화하면서 불교 알게 되고,
불교공부하면서 연기도 깊어져”

영화 ‘공유’의 묵계 역 캐스팅
연극, 드라마, 영화 수십 편 출연
“37년 전 지산 역으로 삭발염의
노장 묵계 역으로 회향하고 싶어”

영화 ‘만다라’에 캐스팅되기 전까지 전무송은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전무송은 막막했다. 더구나 영화 속의 지산은 진리와 무명 사이에서 번뇌하는 중생 중의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전무송에게 ‘지산’은 배역이라기보다 가야 할 길이었으며, 넘어야 할 산이었다.

“영화 ‘만다라’의 원작인 소설 ‘만다라(김성동 저)’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나의 배역인 ‘지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죠. 지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불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지산을 연기하면서 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동안 ‘나’가 없는 연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연기, 연출가의 지시에 의한 연기만을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지산’은 전무송에게 쉽지 않았다.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었으나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전무송 안에는 향 한 자루 없었다. 전무송은 지산의 번뇌를 알 수 없었다. 번뇌하는 지산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번뇌해야 했다.

어느 날, 그 막연하고 답이 없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랜 세월 연극배우로서 자신을 찾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산 위에 올려본다. 같은 모습이었다. 전무송의 지산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촬영이 거듭되면서 지산에 가까워졌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영화 ‘만다라’는 그해 대종상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7개 부분의 상을 수상했다. 전무송은 남우조연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한 영화는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며 한국의 영화와 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무송 씨는 그 후로 드라마 ‘원효대사’를 비롯해 영화 ‘아제아제바라아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성철’, ‘동승’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했다. 전무송 씨는 지금까지 불교영화를 비롯해 ‘햄릿’, ‘기쁜 우리 젊은 날’ 등 수십 편의 연극과 영화에 출연했다.

이제는 같은 길에 선 도반

전무송은 여러 불교영화의 배역을 거치면서 불자가 되었다. 마치 출가자가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쌓아가듯 배역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답안과 의문들이 이어졌다. 하나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공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연기는 이제 ‘공부’가 되었다. 놓을 수 없는 공부가 되었다. 그래서 영화 ‘공유’의 묵계는 지금까지의 전무송을 또 한 번 점검하는 영화이며,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연기를 하면서 얻은 ‘불교’와 일상적인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묵계 스님을 한 번 살아보고 싶어요. 영화 ‘공유’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배우 전무송 역시 묵계라는 법명을 받은 이후로 ‘공유’의 크랭크인을 위해 김행수 감독과 함께 간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우 전무송과 감독 김행수, 두 사람의 인연은 그보다 한참 더 오래 전인 2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감독과 배우로서 만난 것은 2015년이지만 두 사람은 서울예대 동문 선후배사이로 이미 동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김행수는 영화였고, 전무송은 연극이었다. 김행수가 구화산을 찾아 교각 스님을 만나면서 ‘김행수’의 불교를 꿈꿨고, 배우 전무송은 지산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불교에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커다란 회향 앞에 함께 서게 되었다. 다른 길을 걸어와 이제는 같은 길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배우 전무송은 “김행수 감독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며 “김행수 감독은 불교계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고 했다. 또한 김행수 감독은 “영화 ‘공유’의 묵계 역은 불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 배우는 할 수 없는 역할이다”며 배우 전무송이 왜 불교영화 캐스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배우인지 설명했다. 영화 ‘공유’의 크랭크인과 스크린에서 전무송이 또 한 번 출가하는 날을 기다린다.



영화감독 김행수는…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영화 ‘단’으로 데뷔했다. 1991년 교각 스님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제작했으며, 2018년 3월 소설 ‘공유’를 출간하는 등 불교적인 영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국영화감독협회 부이사장,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 춘사대상영화제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소년 세상충돌공모전 조직위원장, 밀짚모자영화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배우 전무송은…

1941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했으며, 1964년 연극 춘향전으로 데뷔했다. 50여 년 동안 ‘만다라’, ‘아제아제바라아제’ 등 60여 편의 영화와 ‘햄릿’, ‘아버지’ 등 20여 편의 연극, ‘빙정’ 등 2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와 경기도 도립극단 예술감독,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제20회 대종상영화제 남우조연상과 신인상, 제2회 영화평론가상 남자연기상, 제22회 한국백상예술대상 연기상, 제15회 이해랑 연극상 등을 수상했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숙 국 사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 02-356-2001 Fax 02-359-6297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삼 각 산

흥 천 사

사부대중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불자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흥천사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구 룡 사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전화 032)732-4800 / 템플 033)731-0503 / 팩스 033)732-1211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드리며 어둠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세상이 되기를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신도회장 대법성

사부대중일동

일요가족법회(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참선법회(수선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청년회		토요일	오후 4시	철야정진(선우회)		토요일	오후 9시~새벽 3시
나한대학생법회		일요일	오후 1시	일요영어참선법회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학생회		일요일	오전 11시	열린시민선방		월~금요일	오전 5시~오후 9시
어린이회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 02)902-2663 전송 02)990-1885 www.hwagyesa.org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연 운 사

주 지 원 명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5번길 48-11 전화 031)986-7117 팩스 031)983-8120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네팔 룸비니동산
'평화의 불'채화 (2013년 4월 18일)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53 기도도량



선묵혜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는
108평화순례단

• 매월 첫째주 일 요 일 : 군 법 당 순례
• 매월 둘째주 금·토요일 : 53기도도량 순례
• 매월 넷째주 토 요 일 : 108산사 2기 순례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308 (상계동) ☎02)900-0193~4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장도량

미 륵 사

주지 혜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빛고을난농원

대표 배소현

전국 꽃 배달 서비스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벽진길9 (마륵동)
전화 062)385-1511
팩스 062)385-1512
이메일 wbfflwbffl@hanmail.net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지 월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한국불교태고종

율 곡 사

주지 혜령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율곡범음대학 의식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69-4번지
TEL 062)263-4575

한국불교태고종

세 심 정 사

회주 지암

주지 보응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7-15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주지 신원

신도일동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매곡길 49-15
TEL 061)381-4242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포교당
금 당 선 원

주 지 진표

신도 및 활짝회 일동

■ 광주 남구 독립로53번길
24-1
TEL 062)653-8108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 각

운영위원장 정법심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TEL 062)652-4920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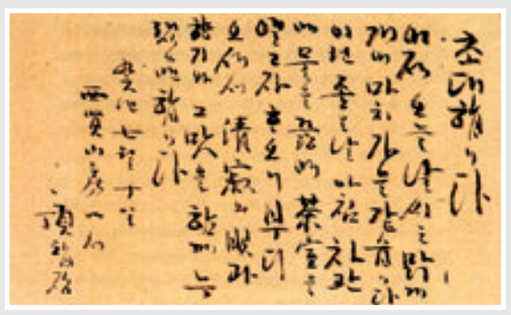
연 화 사

주 지 명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유치원 227-0173

법정 스님의 선물… "분별치 말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것이다"



법정 스님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모음
스님의 임종게와 산중 일기 최초 공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공부해라"
깊은 울림 전한 투명한 사유와 순수한 언어

법정 스님의 숨겨진 일화가 남긴 가르침
저자, 스님 저서 담당 편집자로 재가 제자
"스님 마지막 가는 길은 수행자의 참모습"
불교언론, 중앙일간지 등 연재 칼럼 엮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님, 임종게를 남기시지요"

"분별하지 말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것이니라. 간다, 봐라"

이 책은 처음 공개되는 법정 스님의 임종게와 사유노트, 스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미발표 원고부터 지인들의 일화와 편지 등을 한데 모은 것이다. "생의 모든 순간을 환영하라,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

법정 스님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강원도 산골 시절, 그때까지 지니던 노트와 메모, 편지, 그림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수류산방(水流山房)'이라 이름 붙인 마지막 거처에서도 세상을 향해 남긴 글과 그림들,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가르침을 준 스님 작품들의 토대가 된 육필 메모와 노트들이 여덟 가지 주제로 엮였다. 산중 수행자의 생활을 진솔하게 담은 산거일기를 비롯해 자연과 생명, 홀로 있음, 침묵과 말, 명상, 무소유, 차(茶), 사랑과 섬김이라는 주제별로 다시 모인 법정 스님의 노트 속 글과 메모들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원고인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오늘에 되살아났다.

스님이 아껴둔 미발표 시와 에세이, 퇴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육필 원고, 다양한 책에서 가장 귀한 구절만을 뽑아서 정리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스님의 치열한 공부와 빛나는 감성이 덧붙여지면서 어느 장을 읽어도 여운이 깊은 색다른 잠언집이 탄생하였다.

"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개울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물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존재의 목소리이며 영원히 현존하는 만물의 목소리다" "어째서 그대 안의 살아 있는 근원에게 묻지 않는가" "사랑이란 당신의 마음, 가슴, 당신의 전존재를 완전히 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을 받으려고 빈 그릇을 갖다 대지 않는 것" 등등. 언제 들어도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되는 주옥같은 글들이다.

특히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며 옥중 고초를 겪던 무렵에 쓴 세 편의 저항시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임종게'는 대중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라 의미가 더욱 깊다. 김수환 추기경, 장익 주교, 함석헌 선생, 향봉 스님, 구산 스님 등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지인들이 간직한 스님과의 주요한 일화들도 모아 부록으로 엮었다. 산중의 냉철한 수행자이면서도 세상과의 뜨거운 대화를 놓치지 않았고, 누구보다 철저했지만 늘 따뜻한 유머를 간직한 법정 스님의 새로운 면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스님이 마지막까지 보관하던 육필 원고들과 편지, 물품들을 컬러 사진으로 실어 생생함을 더한다.

이 뭉텅이를 드리면 공부에 더 깊이 들어가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수류산방 아궁이에 무얼 태우시는 모습을 보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아궁이에 또 무얼 그렇게 태우십니까?" "방편을 태울 뿐입니다" "아궁이가 방편을 먹으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는 부지깽이로 아궁이 문을 탁 치시며 "보살님, 이 뭉텅이를 드리면 공부에 더 깊이 들어가보시겠습니까?" 저자는 합장으로 예를 올렸다.

그날 이후 무시로 스님의 사물 상자들이 아궁이 대신 저자에게 왔다. 특히 2008년 초봄에 법정 스님이 버린 상자 속 원고 뭉치가 이 책 내용의 주를 이룬다.

이 책은 2010년 입적한 법정 스님의 숨겨진 일화들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법정 스님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산문집이다. 저자인 정찬주 작가는 과거에 법정 스님 저서 담당 편집자로서, 아울러 각별한 재가제자로서 스님과 맺어온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은 평소 법문과 일치한 법정 스님의 실제 삶이야말로 우리가 간직할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적으로 남겨진 법정 스님의 모습은 동일했다.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스님의 장례식 모습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고승들이 꽃으로 장식한 운구차에 실려갔지만, 스님은 당신 유언에 따라 그러지 않았다. 누운 스님을 가사 한 장으로 덮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스님의 그 모습은 송광사를 찾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때 저자는 법정 스님의 그 뒷모습이 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사람이 살아서 가는데만 사람이 죽어서 따라간다"는 조주 선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나는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어찌 나뿐일까? 스님의 마지막 길을 보려고 온 사람들 모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 책은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일화들을 되새기는 가운데 위대한 수행자 한 분이 어떻게 우리곁에 살다 갔는지를 이야기하는 산문집이다. 정윤경 작가의 그림과 유동영 작가의 사진 40여 컷 또한 이 책의 주옥같은 일화들을 더욱 빛내주고 있다.

1부에는 법정 스님이 대통령의 청와대 초대를 거절할 정도로 권력자를 멀리한 이야기, 정찬주 작가가 불일암에서 스님에게서 법명과 계첩을 받고 제자가 된 이야기, 스님에게서 낙관없는 현판 글씨를 받은 이야기, 스님이 대원각 땅을 시주받아 길상사를 창건한 이야기, 저자가 과거 편집자로서 스님의 저서들을 만든 이야기, 스님이 입적하신 뒤 누에고치처럼 자신을 가두어 〈소설 무소유〉를 완성한 이야기 등이 나온다. 주로 불교계 언론에 연재한 칼럼들을 실었다. 또한 2부에는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저자가 하루하루 일궈가는 산중생활의 사계절 풍경들이 소개돼 있다. 주로 중앙일간지의 청탁 칼럼 들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법정 스님을 추모하는 글이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한다. 모 정간지의 법정 스님 추모특집 기획기사에 게재된 글들이다.

"스님은 수행자이지 수필가가 아니었다. 하루에 글 쓰는 시간은 얼마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예불하고, 채마밭을 가꾸고, 좌선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만행하는 등 보통 스님의 일상을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던 스님은, 죽음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도 병상에서 홀로 조석예불을 거르지 않았다.

한 수행자의 한평생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책 〈스님의 마지막 뒷모습〉은 오늘날 우리곁에 참 수행자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며, 우리를 그토록 감동시킨 무소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여실히 증명해 보인다.

한편 저자인 정찬주 작가는 "이 책은 법정 스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과도 같다. 스님이 내게 주신 자비와 가르침이 가득한 글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산문집은 나에게 법정 스님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책이 될 것이라 더욱 정성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간다, 봐라
법정 스님 지음
리경 엮음
김영사 펴냄
1만 4500원



올해 법정 스님의 8주기를 맞아 유발 재자들이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과 어록, 일화 등을 담은 에세이와 산문집 등을 잇달아 발간해 화제가 돼고 있다. 특히 법정 스님의 저작물들이 스님의 평소 유언에 따라 절판 돼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간된 법정 스님 관련 저서들은 유달리 주목을 끈다. 법정 스님의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등을 한데 모은 〈간다, 봐라〉와 법정 스님과 사제의 인연을 맺은 정찬주 작가가 평소 드러나지 않은 법정 스님과의 일화를 한데 묶은 〈법정 스님의 뒷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서술하는 소재와 관점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유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가꾸라는 법정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은 일맥상통하다. 언제 어느때 다시 읽고 들어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발원한 대로 몸소 실천한 행원에 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어록들이 거룩한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큰 이유다.

법정 스님의 뒷모습
정찬주 지음
한결미디어 펴냄
1만 5천원



책 속에 나타난 법정 스님 가르침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다. 우리 모두가 이 우주가 벌이고 있는 생명의 잔치에 함께하고 있다. 하나의 나뭇잎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진동 같은 것이다.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언제나 혼자였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늘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갔다.

▲홀로 있음으로 해서 얻는 희열은 외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희열은 번잡한 도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희열은 홀로 떨어져 있는 곳이나 번잡한 도심에서 구할 대상이 아니고 바로 '자아' 속에서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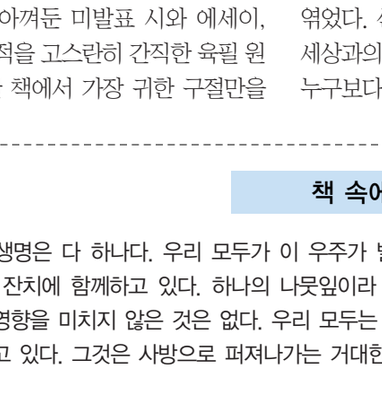
▲내가 없어야 한다. 자아중심적인 행동이 되어가는 것이 없어야 한다. 크나큰 침묵과 하나가 돼야 한다. 침묵은 모든 것의 텅 비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이기주의적이고, 한정된 에너지가 아닌 무한정한 에너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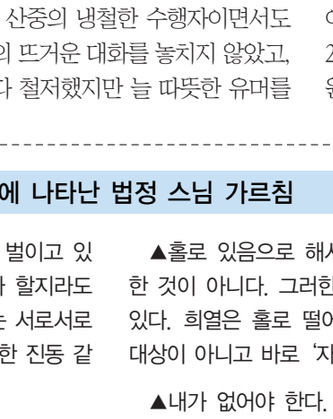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 긋기

▲"법정스님 역시 상좌 받기를 꺼려했다. 불일암에 가서 왜 상좌를 두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면 부처님도 55세 이전에는 시자를 두지 않았다며 화제를 돌렸다. 그러면서 '내 손발이 상좌'라고 하셨다. 법정스님은 1983년부터 덕(德) 자 돌림의 상좌를 받기 시작했다. 내가 "왜 덕 자 돌림으로 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망설임 없이 바로 답하셨다.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오. 제자들만큼은 덕으로 둘레를 맑히며 살라고 덕 자를 붙여주었어요"

▲"불가에서는 행운을 부르는 행동을 두고 발복(發福)한다고 한다. 행운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뜻이다. 반대로 복을 까먹는 행동을 두고 복감(福減)한다고 한다. 복을 더는 행동이니 불행을 자초하는 셈이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발복과 복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입을 닫고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허튼 생각 하나만 해도 그것은 복감이다. 그러니 인생이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NAVER 신화마젤 검색
www.tuxedo.co.kr
연주복 전문 · 맞춤정장 · 한복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0길 8 TEL 02)711-2263
대표 하용수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납품업체
(전국 거사 합창단)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국불교태고종

용 화 사

주 지 상종

용화사 관음회, 지장회,
거사회, 환희지합창단

제4회 산사노을문화제
(4대 종교 주최)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103
TEL 061)724-3777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 각

주지 지 장

■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TEL 062)227-3516

무등산 두암동

꽃 피 움 절

선각불교문화원

회주 자 공

주지 목 언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2동 7번지
TEL 062)263-0108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 지 도 성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주 지 원 묵

평화의 빛으로 부처님 오신날
선덕사 새로운 한지등에
한 해 동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연등의 공덕을
함께 나누시길 서원합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TEL 062)263-4660

대한불교조계종

용 흥 사
몽성선원

주 지 덕 유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TEL 061)382-0574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불교전문출판 부다기획 하는일
불교현수막, 법요집, 사보, 도서출판,
사찰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명함, 스티커, 수료증,
상장, 상패, 수첩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4-1
TEL 062-225-8825
H.P 010-3616-8825
E-mail: buddhacom@hanmail.com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사

주 지 해 중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무등로 1514-35
TEL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효 진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5
TEL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공

신도일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TEL 061)554-2634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TEL 062)265-0801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주

주 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TEL 062)261-1529

법당을 초상화로 본다

윤길중 사진전 '큰법당'
5월 8일~27일 갤러리 류가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찰 당우의 초상(肖像)을 기록한 작품이 전시된다. 사진전 '석인' 으로 기록사진과 예술사진의 경계를 아우르며 작업과정의 치열한 밀도를 보여준 바 있는 있는 사진가 윤길중이 5월 27일(화)까지 류가헌에서 사진전 '큰법당' 을 개최한다.

사람들은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기 위해 서로의 모습을 '초상' 으로 남겨두었다. 사진이 없었던 시절엔 그림으로 남겼고, 오늘날에는 사진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들의 진영도 같은 맥락이다. 윤 작가는 사찰의 전각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지금은 눈앞에 있지만 언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변해간다고 생각했다.

전국 천여 곳의 전통사찰에는 각기 다른 전각들이 있다. 그 전각들은 대부분 목조양식의 건물들이다. 그래서 서양의 석조양식에 비해 보존이 어렵고,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의 위험성이 높고, 세월의 풍파로 인한 변형을 감수해야 한다. 윤 작가가 사찰 전각들의 초상을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윤 작가가 4년여에 걸쳐 제작한 큰법당의 초상 108점이 전시된다. 사진은 사진집 〈큰법당〉으로 묶여 나왔다.

윤 작가의 큰법당 초상은 기존의 사진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기록이다. 단순히 촬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 촬영된 사진에서 하늘과 구름을 지우고, 멀리 고찰을 감싸고 있는 산등성이들과 가까운 나무들도 지웠다. 심지어 주변의 그림자까지 지웠다. 그러자 날렵한 용머리와 천년 풍상을 흐트러짐 없이 견뎌온 전각의 선들이 드러난다. 섬세하게 양각된 단청들의 형태와 색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덤벙주초 위의 배흘림기둥, 기둥에 걸린 주련들, 그 사이 낱낱의 문창살마다에서 거북, 두루미, 개구리가 튀고 연꽃과 모란이 핀다. 처마 밑에는 이름을 새긴 현판이 부처 이마의 영안처럼 정 가운데에 또렷이 찍혀있다. 이 땅 절집들이 가장 큰 부처인 본존불을 모시는 곳, '큰법당' 의 모습이다.


〈의성 대곡사〉

윤 작가는 인물의 초상을 만들 때처럼 전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모든 불필요한 배경과 부속물들을 보정 작업을 통해 모두 지웠다.

원리 자체는 단순하지만 배경을 지우고 형태 그대로 윤곽선을 오려내는 과정은 기술 너머의 일이다. 처마 끝 풍경에 매달린 작은 물고기 하나의 윤곽선도 왜곡이 없어야 했으니, 법당 앞에 백일홍 나무가 서 있는 위봉사 큰 법당은 윤곽을 오리는 데만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그처럼 지난한 여정을 거쳐, 기존의 절집 사진들과는 완연히 다른 윤길중만의 '큰법당' 이 지어졌다. 사진가 윤길중이 사진이라는 매체로, 즉 오로지 그 자신의 심미안과 사진기술의 공법으로 축조한 우리 땅의 '큰 법당' 들이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물리적 시간만 4년여가 걸렸다. 다닌 사찰 수가 강화도에서 저 아래 제주까지 260여개를 넘는다. 인적이 없어야 하므로 인파가 몰리는 때를 피해서 추운 겨울이나 궂은 날, 처마 밑에 그림자가 지지 않는 특정한 시간대만을 골라서 가야 했다. 그렇게 피해서 가도 현수막이나 연등이 장해가 되어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으니, 오고간 횟수는 기록한 사찰의 수를 훨씬 상회한다.

경기불교문화원

'붓다로 살자' 展 5.14~23
수원문화재단 갤러리

(사)경기불교문화원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제1회 붓다 사진전 '붓다로 살자' 展을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수원문화재단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수원시 불교연합회와 수원시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한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불법(佛法)의 전파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대중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수원지역 사암연합회 회원들과 전문 사진가들의 사진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문의/ 경기불교문화원 031-251-1083.

박재완 기자


수산 스님 作, 희망의 빛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불화 특별전

'붓 끝으로 펼쳐진 부처님 세계' 展
5월 4일~7월 31일 기획전시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불화 특별전 '붓 끝으로 펼쳐진 부처님 세계' 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월정사를 비롯한 강원도 중남부 사찰에서 전해 내려온 다양한 조선후기 불화들이 전시된다.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담은 월정사 아미타후불도와 신흥사 아미타후불도, 불법을 수호하는 각양각색의 신들이 표현된 신중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나한의 일탈 장면이 그려진 보현사 십육나한도,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영원사 감로도, 지하세계에서 중생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을 담은 백운사 현왕도 등 불전을 장엄하는 다양한 불화들을 선보인다. 또한 〈묘법연화경〉, 〈화엄경〉 등 불교경전에 그려진 변상도 4점도 전시된다.

여러 주제의 불화들은 저마다 선조들의 정성과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다양한 모습의 불화들은 여러 존재들을 포용하는 불교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 세계를 음미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월정사 아미타후불도(1861).

대담 · 다큐… 봉축 TV프로그램 '눈길'

BTN, 부처님오신날 특집프로그램 다채

부처님오신 것을 찬탄하는 부처님오신날. 재적 사찰에서 봉축법요에 참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TV를 통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해 보는 것은 어떨까.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선지식 대담부터 다큐멘터리 등 볼거리 풍성한 봉축 특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종정 스님과의 대담인 '진제 스님 할!,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이다. 5월 22일 오전 7시 30분 · 23일 오후 3시 · 26일 오후 9시에 방영되는 대담은 진제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특별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부처님 상을 조성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은 봉축 다큐멘터리 '불상, 자비광명의 몸을 나투시다' 는 5월 22일 오후 3시 · 23일 오후 11시 ·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철두철미한 수행 정신으로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한암 대종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영된다. 방영 시간은 5월 21일 오전 7시 30분 · 22일 오후 11시 · 27일 오전 12시 30분.

장애인불자들의 동남아 불교 성지순례기 '장애인불자, 동남아 성지를 누비다' 는 5월 22일 오후 5시 · 25일 오후 2시 · 26일 오전 7시 30분에 방영되며, 한국 비구니 스님 최초로 미얀마 대통령에게 작위를 받은 백련암 혜송 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밍글라바! 담마 마마까 백련암 혜송 스님' 은 5월 22일 오전12시 30분 · 24일 오후 5시 · 25일 오후 11시에 찾아간다. 이밖에도 '법안 스님과 떠나는 미얀마 구도이야기' (5월 22일 오전 8시 30분 · 23일 오후 1시 30분 · 26일 오후 3시) · '〈봉축음악회〉 스님이 부르는 부처의 노래(5월 21일 오전 11시 30분 · 24일 오후 3시)' 등도 방영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영담 스님 '한지 특별전'

전통한지문화를 연구하고 재현해온 영담 스님은 6월 15일까지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마드리드 한국문화원 갤러리 한울에서 '한지 특별전' 을 갖는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 개관 5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한지 특별전' 에는 영담 스님이 직접 만든 종이류 백 가지와 창작품 32점이 전시되며 콜레보레이션 작가로 현여리 스님의 서양화기법의 약사여래불 창작품 6점이 선보인다. 영담 스님은 5월 9일 마드리드 국립장식미술관에서 스페인종이작가들을 위한 한지특강과 10일 마드리드 국립대 어학부에서 한지 특강을 열었다. 영담 스님은 세계 종이문화속에 빛나는 한국의 전통종이를 소개하며 특히 한국의 종이 발달사의 불교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강의에서 영담 스님은 1986년 정부에서 영담 스님의 종이로 간행한 〈월인천강지곡〉과 〈직지〉를 선보이고 한지로 공책을 엮는 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사부대중일동



■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TEL 063) 432-0880

군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연

관음사 도천 동국사 종걸 상주사 도연 성흥사 송월 은적사 석초
보천사 의종 삼보사 법송 수도암 무진 염불사 행담 대명사 법인
정안사 정안 혜원사 혜등 흥천사 법희 (무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TEL 063-453-7800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남 고 사

조실 태공월주

주 지 원 혜
신도회장 김해관

사부대중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TEL 063)284-9640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연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TEL 062)226-0108 FAX 062)222-5997
www.jeungsimsa.org



성각사(聖覺寺)

주 지 광운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2-3
TEL 062-574-4348 FAX 062-573-4348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주 지 도 계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TEL 062)279-3332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 지 만당

사부대중일동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TEL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 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14
TEL 02)919-0211 FAX 02)919-0216
www.bongguksa.com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학교법인 광동학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광동중학교)

이 사 장 황일면
교 장 이천기
교 장 양승순
교 장 김석희
법인사무국장 정용수
수석교법사 서동선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부처님오신날이다. 불자들은 저마다의 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또다시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불자들에게 다른 의미로 부처님오신날은 감동이다. 매년 찾아오는 부처님오신날, 출 · 재가자들의 가슴 속에 남은 최고의 부처님오신날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부처님 오심은 중생에 감동이다



내겐 부처님 '오시는' 날

변택주 작가

인생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부처님오신날은 바로 스승인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였습니다. 2003년 부처님오신날, 법정 스님은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오신날이 오늘 하루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일잔치를 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오시도록 마음에 새겨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만 부처님이 오신다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스승은 이듬해에도, 2005년 · 2006년 부처님오신날에도 우리가 바로 부처로 피어나야 한다고 드잡이하셨습니다.

스승 법정 스님의 가르침
日新又日新 밑거름 작용해

"부처님오신날이 과거완료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신 날'이라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뜻입니다. …… '오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신 날'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시는 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신앙 대상이 아닙니다. 길을 가리키는 스승입니다. 그 가르침을 거쳐서 내 안의 불성을 일깨우고 꽃피워야 합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저마다 이 시대 부처 분신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부처 화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날마다 '오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처님이 오시는 날을 만들게 하려고 스승이 잘 쓰는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시길 빕니다." 날마다 거듭 부처님으로 나투라는 인사죠.

몇 해 전 겨울 몹시 추운 날 광주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 용산역, KTX에서 내려 경의중앙선을 갈아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다 오른 다음 용산역에서 대기 시간 7분을 남겨놓은 채 문을 몇 개만 열어놓고 나머지 문이 닫혔어요. 웬일일까 싶었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으나 곧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추울까봐 마음이 쓰인 기관사가 계단 앞에 있는 문만 열어놓고 나머지 문은 닫아버린 것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때 스승께서 "슬기로움과 자비로 가득하여 세상에 빛으로 거듭나면 날마다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 될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이 칼바람이 부는 날 전철에 오신 부처님을 뵌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은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삶이 어땠을까를 떠올리면 아찔하다 못해 끔찍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스승이 이토록 간절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를 곱씹으면서 허리를 곧추 세웁니다. 타성에 젖으면서도 '맑고 향기롭게'와 '붓다로 살자'에 몸담고 있는 것도 서툰 걸음이지만 '영세중립코리아' 깃발을 들고 누리 곳곳에 '꼬마평화도서관'을 열려는 까닭도 다 부처님 오시는 날을 빚으려는 데 있답니다.

정리=윤호섭 기자



평등, 그리고 또 평등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부처님오신날에는 연등공양이 중요합니다. 글자를 풀면 '태울 연, 등잔 등'으로 '등불을 밝힌다'는 뜻인데 〈현우경(賢愚經)〉 빈녀난타품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는 초파일마다 주요 법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오신날 우리 주변에는 보시를 하려해도 가진 게 없으니 미안한 마음으로 절을 찾아오는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던 결혼이주여성이 특히 기억납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딩티응앗 씨는 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뒤 유산 문제로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5살과 4살 형제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딩티응앗 씨는 돈은 필요 없으니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의 내쫓기는 형편이었습니다.

베트남서 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서 벗어나기까지

2014년 빈 몸으로 구미 마하이주민센터를 찾아 온 그는 눈물범벅으로 담아두었던 섭섭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겁에 질린 듯 동그란 눈망울을 빛내던 두 아이의 모습은 4년이 지났어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딩티응앗 씨가 당했던 일은 가정폭력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쉼터에서 머무르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결혼 6년이 지났지만 베트남 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의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세상을 떠난 남편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때문인 걸 이때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이름으로 돼있지 않으니 본인이 가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은 없어도 배우자로 주민등록 서류에 기록되었으니 딩티응앗 씨가 1순위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족을 내쫓진 않았는데 어떻게 베트남 사람이라고 어린 손자까지 함께 내팽개 칠 수 있습니까? 6개월 뒤 엄마는 한국 국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며 차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그 모자가족은 마하붓다사 절에서 육법공양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전통옷 '아오자이'를 입은 그녀는 부처님께 향 공양을 올렸고 큰아이는 꽃을 바쳤습니다.

그 인연으로 마하붓다사에서는 매월 1회씩 베트남 불자회 법회가 열립니다. 부처님의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활동에 주춧돌이 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인보다 더욱 간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빈자일등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법화경〉 방편품의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다름없이 평등하다(如我等無異)'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전국 사찰에 퍼져 봉축의 빛이 차별 없이 온 누리에 퍼지길 저도 또한 발원해 봅니다.

정리=박진형 기자



세상 가장 밝은 貧者一燈

안성이 부산 보현회 회장

내 인생 최고의 봉축은 40여년 전 보현회 법당에 처음으로 연등을 달 때입니다. 하나둘 아이들을 위한 불이 켜질 때마다 밝아지는 부처님의 세상을 꿈꿀 수 있었고, 그 원동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인연이 된 건 보현회를 시작한 1980년대 즈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동네에서 만난 작은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친아빠가 다리를 잡고 비틀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그 때 7살이었어요. 알콜중독인 아버지가 술을 가져오라며 아이를 폭행했고, 어머니는 집을 가출한 상태였지요.

두 달 가까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다니며 관세음보살을 찾아보자며 권했었는데 병원치료를 마친 후, 아이의 엄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적 같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가족들과 지인을 모아 자비나눔 봉사단체인 보현회를 창립했지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 후원 동참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보현회를 창립하고 열심히 봉사를 시작한 1980년대, 그때는 정말 가난한 시기였어요. 지금도 보현회 회원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빈자가 올린 정성스러운 등 하나가 가장 밝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 의미로 보면 보현회 등이 세상에서 가장 밝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보현회 연등이 하나 둘 모여 또 다른 빈자를 돕고 있어 가장 밝다고 저는 자부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연등은 아이들의 장학금과 생활비 그리고 마산에 있는 결핵 환자 지원, 장애인 후원까지 그들의 삶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만난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산 철마에서 만난 한 가정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중풍으로 몸이 불편했었고, 아이들은 6살, 5살로 한참 부모의 정이 그리운 시기였지만 엄마는 가출, 아빠는 덤프트럭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교도소에 있었죠. 집은 돈이 없어 경매에 넘어가기 일보직전이었던….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후원하고 공부를 도왔는데 벌써 어른이 돼 대기업에 다니고 지금도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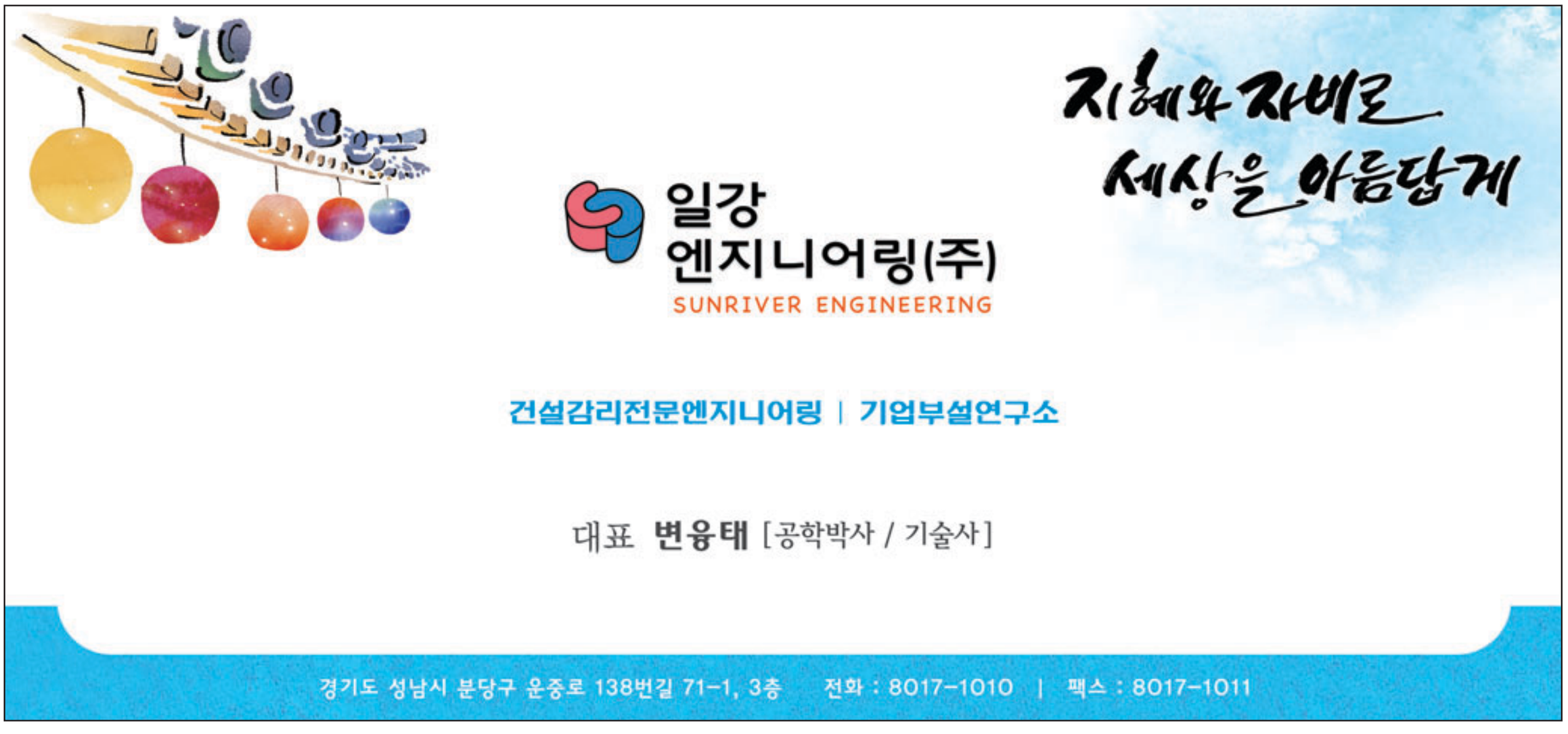
가덕도에 있던 어린 자매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들어갔던 기억도 납니다. 가난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빈자들이 모은 갖가지 정성
위기 처한 아이들 성장시켜

것을 막고 그날 후로 아이들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현회 회원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었지요. 아이들이 그 때 당시 7살, 9살이었고 지금은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네요. 이 아이들은 참 공부도 잘했어요. 한 명은 호주로 유학도 가고 둘 다 간호학을 전공해 지금 큰 병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아이들이 70여명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등을 달기 위해 올해도 전화가 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밝히는 연등을 부처님께 올리며 두 손 모읍니다. "어둠 속에 갇힌 아이들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어 주기를…."

정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문화 달라도 진리 향한 마음 같구나!”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부르며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인 이날은 불자건 아니건 민속명절을 함께 즐긴다. 한국서는 부처님오신날에 연등행사(燃燈行事)와 관등(觀燈)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갖가지 행사가 벌어진다. 북적거리는 사찰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연등은 매년 느낄 수 있는 한국 부처님오신날만의 정취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보낼까? 날짜도, 풍습도 다른 세계의 부처님오신날에 대해 알아봤다. 박진형 기자 · 박영빈 객원기자



일 본 아기 부처님과 함께 하는 꽃축제

양력 4월 8일

일본의 부처님오신날은 양력 4월 8일이다. 원래는 한국 · 중국과 같이 음력으로 쇠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모든 국가 명절을 양력으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양력으로 바뀌었다. 봉축분위기는 양력 4월 8일부터 음력 4월 8일까지 유지한다.

부처님오신날보다는 꽃축제(花祭り)로 더 많이 불린다. 이는 꽃이 피는 계절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또는 관불회, 탄생회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욕식과 치고행렬 행사를 진행한다. 치고행렬은 아이들이 천인(天人)들의 옷을 본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아기부처님을 모신 가마를 끌며 마을을 한 바퀴 도는 행사다.

절의 마당이나 본당의 마루에 아기부처님을 모셔 관욕대를 설치한다. 아기부처님을 씻기는 물은 감차(甘茶)라고 하는 달콤한 차를 달여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부처님을 씻긴 물을 받아 마시면 한 해에 병이 없고 장수한다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어 절에서 관욕을 마친 이들에게 한 잔씩 보시한다. 또 이 관욕수를 주전자나 물병에 받아가기도 한다.

종종 떡 던지기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작은 찹쌀떡을 만들어 절의 지붕에서 던지면 아래에서 참여하는 신도들이 줍는 행사다. 이 떡 안에 경품권 등이 들어 있다 보니 절의 신도가 아니라도 동네사람 모두가 와서 함께 하는 나눔의 행사다.

당일 오전에는 절에서 법회가 진행되는데 별도로 대중법문은 진행되지는 않는다. 대신 간략한 인사말로 대체한다.



중국 · 대만 등불아래서 지혜롭고 건강해지자!

음력 4월 8일

중국의 부처님오신날은 한국과 날짜가 같은 음력 4월 8일. 올해는 양력 5월 22일이다. 부처님오신날에 관욕식을 하기에 욕불절(浴佛節)이라고도 한다.

한국과 달리 문중이나 종단이란 개념이 희박해서 각 사찰별로 행사가 상이하다. 한국과 같이 등을 켜고 등표를 다는 곳도 있는데 재가자들보다 스님들이 등을 더 많이 켜려고 한다. 초파일날 등불은 보조광명(普照光明)의 등이라 하여, 등불아래에서 빛을 쬐면 지혜가 늘어나고 건강해진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산문(山門) 밖에서 향과 인경(引磬)을 앞세워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스님이 아기부처님을 법당으로 모셔오는 의식을 진행한다. 법당 관욕대에 아기부처님을 모시면 대중이 3배를 올리고 관욕식을 진행한다.

일본처럼 아기부처님을 씻긴 물을 차로 마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한다. 관욕을 할 때에는 한국과 같이 3번 물을 부어 씻기는데 이때 탐진치(貪瞋癡)의 삼독이 씻겨 내려간다는 내용의 게송을 외운다. 관욕을 하고 나서는 대중이 함께 〈욕불공덕경〉이라는 경전을 합송한다.

이날 불자들은 채식을 하고, 팔관재계등을 받아 지키며 집안의 불단 등에도 장엄을 하고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한다.

특히 **대만**에서는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같이 기념하기도 한다. 시기적으로 비슷한 데다가 부처님 탄생에도 어버이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티베트 4월 내내 선업 지으려 노력

음력 4월 8일

티베트의 부처님오신날은 티베트 달력으로 4월 보름에 지내는데 올해는 양력 5월 29일이다. 티베트에서는 이 날에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의 중요한 세 사건이 모두 일어났다고 전하는데 이는 남방의 웨삭(Vesak) 전승과 동일하다.

티베트에서는 4월을 싸가다와(Saga Dawa)라고 하며 이 달은 성스러운 달이기 때문에 이 달에 지은 선업과 악업 모두 1억 배의 과보를 받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최대한 선업을 짓기 위해 노력한다.

4월의 첫날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까운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하거나, 오체투지, 등 공양 등의 신행활동을 하며 4월의 시작부터 길상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신심이 깊은 이들은 초하루, 초여드레, 보름, 삼칠일(21일), 그믐날에 팔관재계를 행하고, 한 달 동안 육식을 피하고 오후불식을 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날인 4월 보름은 큰 축제일로 절에는 괘불을 걸고 하루 종일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보통 법당에서 스님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절의 마당에서는 가면극을 봉행한다.

한국, 중국, 일본과 달리 티베트는 부처님오신날뿐만 아니라 평소 기도에도 관욕의식이 있기에 따로 관욕대가 설치되지는 않는다. 단 관욕한 물을 몸에 뿌리거나 마시면 질병과 여러 수행의 마장이 사라진다고 해 앞 다투어 물을 받아간다.

또 이날 보시를 하면 그 과보가 어마어마하다는 속설에 따라 걸인들에게 후하게 보시하고, 절의 공양간에도 보시한다.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 남방부 함께 ‘웨삭 데이’ 기념

4월 보름

상좌부 불교전통이 남아있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은 웨삭(Vesak)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한다. 이날은 남방의 달력으로 4월 보름인데, 상좌부에서는 이날 부처님의 탄생 · 성도 · 열반이 모두 이뤄졌다고 믿는다.

보통 웨삭이 든 주를 웨삭 주간으로 하여 곳곳에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 도시나 마을에서 불상을 모신 트럭을 장엄하여 행진하거나, 부처님의 전생담을 주제로 연극 등이 상연된다. 웨삭 당일엔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예불을 올린다. 신심이 깊은 이들은 팔관재계를 받아 지닌다. **스리랑카**에서는 판달(pandal)혹은 토라나(thorana)라는 거대한 장엄등을 만들어 절 앞이나 거리에 두고, 집집마다 종이등을 만들어 단다.

미얀마에서는 이날 특별히 보리수에 물을 붓는 행사를 진행한다. 미얀마의 절들은 보통 마당에 보리수를 한, 두 그루씩 심어둔다. 웨삭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기도 하기에 이를 상징하는 보리수에 깨끗한 물과 꽃을 공양하며 소원을 빈다.

태국은 웨삭 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이른 아침 불자들이 사원에 모인다. 일출과 동시에 삼보를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 또 하루 종일 여러 사찰들을 돌며 다양한 공양을 올린다. 스님들은 찾아온 불자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설명하고 선업을 지을 것을 가르친다.



미국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보낼까?

미국에서는 불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명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 불자를 추산하기 힘들다. 20세기 초 일본계 스님들이 미국 대중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초반에는 일본 불교의 전통 위주로 전파됐지만, 이후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남방 불교도 퍼져 현재는 여러 불교 종파들이 섞여있다.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은 각자 따르는 종파의 전통을 따른다. 일본 불교를 따르는 사찰서는 양력 4월 8일에, 한국이나 중국 불교를 따르는 사찰서는 음력 4월 8일에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조계종 미동부 해외 특별교구에서는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을 한다.





커피향에 흠뻑, 불교에 흠뻑

日절카페 인기…포교에 효과적

박영빈 객원기자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을까? 일본에 새롭고 효과적인 포교방식의 하나로 '절카페'가 자리 잡아 화제다.

일본 인터넷 매체 '토노엘'은 4월 27일 도쿄 시부야에 소재한 '절카페 다이칸야마(寺カフェ代官山)'를 소개했다. 도쿄 교외의 사찰 신교지(信行寺)에서 운영하는 이 카페는 지난 2003년 개업 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카페 내부에는 불교기의 오색 차양이 쳐져있고, 카페 가운데엔 아미타불을 모신 불단이 있다. 또한 인테리어도 불화나 연꽃으로 꾸며진 불교색이 강한 카페다.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늘 상주하는 스님이 언제나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20~40대의 여성들이 찾아 상담한다고 한다. 미리 신청을 하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사경과 합장주 만들기는 물론 각 절기와 불교명절에 따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절카페의 실내 모습.


절카페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스님.


불단이 모셔져 있는 카페 내부.


불교의 오색기가 걸려있는 카페 외관.


절카페서 먹을 수 있는 비건 샐러드.

중앙엔 불단에 아미타불 모셔
인테리어는 불화나 연꽃으로
스님이 손님 고민 상담해주고
사경·합장주 만들기 이벤트도

카페의 메뉴 역시 사찰음식에서 따온 메뉴들이다. 디저트는 일본요리에서 사용되는 전통 감미료를 사용해 만들었다. 점심에는 예약제로 비구니스님이 만든 비건(vegan) 채식을 맛볼 수도 있다.

신교지의 대중 스님들은 '새로운 형태의 포교활동'이라는 목표로 의기투합해 이 절카페를 만들 수 있었다. 신교지의 주지 스님인 아사노 코키(淺野弘毅) 스님은 "처음엔 법회나 제사 이외에 사람들이 절에 자연스럽게 오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이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절이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카페를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사노 스님은 "현대 불교가 계속 절 집 사이에만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사찰경영의 입장에서 포교보다 법회나 제사를 중심에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시대와 환경에 맞춰 불교도 새롭게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절카페의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스님과의 상담이다. 미리 신청을 하고 시간을 맞추면 1시간 가량 카페에 나와 있는 스님과 차를 마시며 상담을 할 수 있다. 지명도가 높은 스님은 심리 카운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야마구치 스님과 교도소 교정위원을 지낸 미우라 스님. 상담 경험에 우러나오는 답변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모습에 반해 카페의 단골이 된 손님들도 다수라고 한다.

미우라 스님은 "옛날 일본에는 '뛰어드는 절'이란게 있었다. 남편이나 시가의 학대에 시달리던 여인들이 도망쳐 오면 이들을 보호해주고 문제를 중재해 주던 절이다. 이 카페는 현대의 뛰어드는 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상담의 90프로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라며 "답변을 하기 전에 모든 이야기를 듣는다. 종종 이야기를 하던 중에 스스로 답을 찾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미우라 스님은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데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기 상담사인 야마구치 스님도 "스님이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점을 봐준다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도 많다. 일단 모든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준다. 모두 고민을 가지고 오는 이웃 아니겠는가"라고 웃으며 "종종 진지하게 불교에 관심을 두고 오는 분들이 있다. 서로가 가진 불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데에서 수행이 된다"며 절카페의 포교활동도 함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여행시 잠시 쉬다가세요"

불교 웰빙센터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각광

뉴욕 북부에 새로 지어져
$1700만 2만 2천ft² 규모
숙소·식사 제공해 주고
명상과 부처님 법 수업도

뉴욕의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불교 웰빙센터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언스 로어'는 5월 7일 뉴욕에 뉴욕 북부에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웰빙센터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1700만 달러(약 189억 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된 이 센터는 2만 2천 ft²(약 620평)의 규모로 지어져 수많은 휴양거리를 제공한다.

이 센터를 만든 퉁람 걀와 린포체는 티베트 불교의 카르마 카규 종단 안에서 다르마카야(Dharmakaya)와 퉁람 법맥의 수장이다. 퉁람 걀와 린포체는 이 장소를 방문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속세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교웰빙센터의 조감도.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센터는 큰 규모만큼 많은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 센터의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명상실이 있다. 거대한 불상도 마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영빈관,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는 32개의 개인 침실과 식당, 부엌 등이 있다. 음식은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하며 재료는 현지에서 유기적으로 조달한다. 최대한 환경 친화적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 외에 신체 건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육체의 건강 없이는 정신도 건강할 수 없다는 생각서 기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센터에는 항상 요가 수업이 있다. 센터서 자원봉사를 하는 트레바니아 헨델슨은 "매번 명상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한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20분간 유산소운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퉁람 걀와 린포체는 2004년에 하버드 대학서 인도-티베트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법(法)을 나누고 싶었는데 하버드서 공부를 하면서 뉴욕이 이런 법을 나누기에 좋은 장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이 센터는 많은 사람들과 부처님의 법에 대해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실에서 린포체와 명상을 하는 관광객들.

걀와 린포체는 '타임스 헤럴드 레코드'와의 인터뷰서 이 센터는 불교 '교리'보다는 '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낮춰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연민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180개 복장물 품은 문수보살상

일본 나라 박물관 CT서 발견

불상에 부처님 법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조성시기와 당시 문화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인 복장물이 가득한 문수보살상이 일본에서 발견돼 화제다.

일본 '나라신문'은 5월 8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CT촬영 중 많은 복장물의 불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사진〉 복장물이 발견된 불상은 나라시의 홋케지(法華寺)에 모셔져 있던 문수보살 상이다. 높이 73cm의 목불로 가마쿠라 시대(1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립 나라박물관은 2012년 문화재 점검을 위해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이때 불상의 내부에 복장물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해 박물관에서 문화재용 CT와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고, 불상안에 수많은 복장물들이 들어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복장물은 크게 머리와 몸의 두 부분에 나뉘어져 머리에 약 30점, 몸에 약 150점의 유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몸에는 대부분 경전으로 추정되는 두루마리와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주목하는 것은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다. 이는 여의주 모양으로 만든 '화염보주형사리용기'라고 불리는 작례로 판명됐으며 수정과 금동으로 추정된다.



박물관 측은 "일본서는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보시금을 모아 불상을 제작했다. 그 결과 각자의 발원문이나 사경 등의 복장물이 불상에 대량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불상처럼 사리기가 들어간 것은 매우 드문 예"라고 밝혔다.

홋케지의 주지 히구치 쿄코 스님은 "작은 불상 안에 이렇게 많은 복장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놀랐다. 앞으로도 문수보살님을 소중히 모시고 예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상을 개봉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문수보살상은 당분관 나라 박물관에서 특별전시 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종무원

– 승 정 원 –
승 정 금 용

– 중앙원로회의 –
부 의 장 금 용
의 원 지 허
의 원 남 파

– 중앙종회 –
수석부의장 시 각
법사분과위원장 법 진
재경분과위원 승 범
법사분과위원 보 각

– 지방원로회의 –
의 장 지 암
부 의 장 금 용
의 원 원 명
의 원 도 수
의 원 금 명
의 원 성 천
의 원 지 허
의 원 설 봉
의 원 남 파
의 원 현 공
의 원 수 진
의 원 혜 림

– 종 무 원 –
종무원장 월 인
부 원 장 여 허
총무국장 보 산
교무국장 진 명
재무국장 명 휴
문사국장 봉 정
규정국장 도 허
사 무 장 조아라

– 지 방 종 회 –
의 장 원 일
수석부의장 현 법 응진
차석부의장 승 시 범각
의 원 성 보 법현원
의 원 자 지 명문
의 원 원 고 성일
의 원 지 보 공각
의 원 도 풍 안암
의 원 승 휘 전법사

■ 주 소 :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 전 화 :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전면광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대중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송동기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동양최대 마애반가 지장기도도량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지장법륜회
신도회 일동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길 37-19
TEL 063)653-1525

한국불교태고종

구미산 일광사

주지 승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정읍시 성황산길 50
TEL 063-535-3380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 063) 857-6533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TEL 063) 841-1355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선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행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태고종

군산 성흥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월

주지 보위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TEL 063)453-0050

대한불교천태종

용마산 삼룡사

주지 춘광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 나길 41
TEL 02)496-3839 FAX 02)435-1381
이메일 sys3839@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문수선원.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바라밀 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극락원
(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번길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예천 용문사에는 국내 유일한 보물 대장전의 윤장대와 목조삼존불이 있으며 대장전안에는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염하는 유일한 중요문화재이며 회전식 장경각이다.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0

부모한테받은 나의체질은 무엇일까. 궁금하시면 무료

100세 시대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미리 예방해서 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인체에 대하여 공부한 바로 나의 체질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고, 나한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서 병을 방지하는법. 이미 병을 앓고 계시다면 몸에 맞는 체질 한약으로 병을 치료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전화주시고 방문.

전화문의 010-9373-3778
H·P 010-3522-2429

마음 다해 만든 연등, 세상을 밝히네

마음으로 밝힌 등불 하나

주름지 끝부분에 풀칠을 하고, 가지런히 모아서 두 번을 꼬아. 그러면 평평하고 네모난 종이 한 장에 둥그스름하게 부피가 생기면서 예쁜 꽃잎이 돼. 아이들은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손끝에 자꾸만 풀이 묻는다고 투덜거려. 하지만 난 꽃잎 만드는 게 신기해. 생명이 없는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법회가 끝나고 연등을 만들고 있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만든 연등을 대웅전 앞에 걸어놓을 거래.

예쁜 연등을 만들려면 꽃잎 한 장 한 장이 예뻐야 한다고, 단단히 여미지 않으면 풀어진다고, 진영 스님은 아이들이 만든 꽃잎을 일일이 살펴보고 계셔. 내가 만든 꽃잎은 솔직히 예쁘지는 않아. 나는 손재주가 별로 없으니까. 진영 스님이 꽃잎 몇 장을 다시 만져주셨지. 스님의 손끝이 몇 번 스쳤을 뿐인데, 못생긴 꽃잎이 예쁘게 살아났어.

언니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언니는 뭐든 잘 만들었으니까. 병실에는 언니가 접어놓은 신기한 종이접기들이 가득했지.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좋아요.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여 만드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한 정사에 머무실 때였어요. 국왕을 비롯해 나라 안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수많은 등을 밝히고, 성대하게 음식을 공양했어요.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공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어요."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 진영 스님은 걸어 다니는 도서관 같아. 언제 어디서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지. 난타는 부처님께 등불 하나를 공양하고 싶었어. 하루 종일 구걸해서 번 돈으로 기름집에 가서 한 푼어치의 기름을 달라고 했지. 기름집 주인은 한 푼어치의 기름은 팔 수 없다고 했지만, 난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마음을 예쁘게 여겨 두 배의 기름을 주었대. 난타는 그 기름으로 등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했지.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이 모두 꺼진 후에도 난타가 바친 등은 꺼지지 않고 홀로 빛났어. 등불이 모두 꺼지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잠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제자 아난다는 그 여인의 등불을 입으로 불어 끄려고 했지만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이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꽃잎을 종이컵에 붙여. 한 단에 다섯 장씩. 아랫단으로 갈수록 간격을 넓히며 꽃잎이 겹치지 않게 사이사이에 엇갈려 붙여나가지. 마지막엔 초록색 이파리를 붙이고, 연꽃 한 송이를 완성해. 예쁘지는 않지만 나는 정성껏 꽃잎을 붙이고 있어. 가난한 여인 난타처럼. 한 장 한 장을 붙일 때마다 마음으로 소원을 간절하게 빌어.

와! 하고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 나와. 투덜거리던 아이들은 완성된 연등을 보며 꽃보다 더 환하게 웃음을 터트리지. 연꽃 속에 소원지를 써넣고,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연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대웅전으로 가. 진영 스님은 대웅전 앞에 걸린 줄 위에 아이들이 만든 연등을 걸어주고 계셔. 나는 스님께 말해서 연등을 가져가기로 했어.

이 연등은 솔비에게 줄 거야. 기억나, 언니? 백혈병 환우회에서 만났던 나와 동갑내기인 친구 솔비. 솔비는 이번에 기증자를 만나서 이식을 받게 됐어. 며칠 후에 무균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전에 문병을 가기로 했어. 엄마와 나는 지금도 가끔 환우회에 나가. 거길 뭐 하러 가느냐고 할머니가 싫은 소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 그 애들의 기쁘고 슬픈 일들을 모른 체할 수 없게 되었지. 환우회에 가면 언니 생각이 나. 언니와 나 사이에는 기억할 추억이 별로 없어. 언니는 거의 병원에 있었고, 그때 나는 너무 어렸으니까. 엄마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

깜박 잠이 들었나봐. 현관문 여는 소리에 깨어났더니 어느새 거실이 어둠에 잠겨 있어. 엄마는 불을 켜고, 거실을 둘러보고, 어리둥절해져서 눈을 깜박이는 나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어. 거실이 엉망이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잠들었거든.

엄마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집을 어질러놓아서 화가 난 걸까. 말없이 돌아서 있는 엄마의 등이 견고하게 서 있는 벽처럼 느껴져.

"어째서 할머니 집에 가지 않는 거니?"

엄마는 등을 돌린 채로 차갑게 말해. 나는 슬금슬금 엄마 눈치를 보며 거실을 치우고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참으려고 하는데도 스케치북 위로 후두둑 눈물이 떨어져.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할머니 집에서 살았어. 엄마는 언니를 보살펴야 했으니까. 언니가 떠난 후에 엄마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 학교를 마치면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왔어. 주말에는 아예 거기에서 자기도 했고. 엄마는 할머니가 아파트 앞 동에 사셔서 정말 든든하다고 말하곤 했지. 그런데 나는 얼마 전부터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아. 엄마도 할머니도 왜 그러느냐고 묻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 집도 우리집도 내가 있어야할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불편해.



삽화 · 김홍인

> 침대 머리에 내가 만든
> 작은 연등을 걸어놓았어.
> 연등을 보는 솔비의 눈이
>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 연등의 불빛은 작고 희미하지만,
>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처럼
> 오래오래 빛날 거야.

"네가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는 일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불안해."

"죄송해요, 엄마. 내가 쓸모없는 아이라서."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엄마가 쌀을 씻다말고 달려왔어.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보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쓸모없는 아이라니?"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할머니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 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어렴풋이 '저 애가 그 애야?' 하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눈을 감고 계속 잠든 체하고 있었지. 엄마가 계획에도 없던 나를 낳은 것은 언니 때문이었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 엄마는 언니의 동생을 낳기로 결심했어. 동생이 언니와 유전자가 일치할 경우는 넷 중에 하나. 그건 엄청난 확률이지. 다른 사람들 중 일치할 확률은 2만 명 중에 하나니까. 엄마는 임신 중에 신장이 안 좋아져서 거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았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나였어. 안타깝게도 나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셋 중의 하나였지.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동생은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이별을 해야 했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억이 났어. 엄마가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있었던 적이 있었어.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서 엄마에게 가져다주었는데, 엄마는 국을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 그리고 얼마 후에 언니가 떠났지.

내 유전자가 일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친구의 언니들처럼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고, 내 머리를 빗겨주고, 나와 함께 놀아주었을 텐데. 그리고 언니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어. 우리는 부둥켜안고 소리 내어 울었어.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가 말했어. 언니를 위해서 나를 낳은 것은 맞다고. 하지만 언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존재만으로도 모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도 알 수 있었지. 엄마의 품속이 무척이나 따뜻하다는 것과 엄마가 언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작고 까만 돌멩이가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았어.

제대혈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태어날 때 탯줄에 있던 혈액을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혈액을 더 보관할 건지 기증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유전자가 일치했다면 언니에게 주었을 그 혈액 말이야. 기증한 혈액은 다른 환자에게 이식되거나 실험에 쓰일 수 있다고 해. 나는 엄마에게 기증하겠다고 말했어. 내 혈액이 언니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우리 연희 다 컸구나.'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

솔비도 솔비 엄마도 계속 웃고 있어.

솔비는 내일 '공포의 무균실'에 들어간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환자의 세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들은 수없이 토하고, 입안이 헐고, 기진해서 쓰러지지.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거'라고 솔비 엄마는 웃으면서 이야기해. 이식받은 세포가 몸에 잘 정착할 때까지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솔비와 솔비 엄마는 멀리 보지 않기로 했대. 지금의 이 희망을 감사하게 받겠다고. 순간순간 솔비에게 다가온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병실 공기 속에 솜사탕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것 같아. 따뜻하고 달콤한 이 분위기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 나는 한껏 들떠서 솔비를 위해서 위문공연을 했어.

'헤이 유~ 에브리데이 위드 유~'

노래를 부르고, 뽀뽀를 날리고, 윙크를 하고,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춤을 췄지. 솔비는 배를 움켜쥐며 큰소리로 웃었어. 오래 전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침대 머리에 내가 만든 작은 연등을 걸어놓았어. 연등을 보는 솔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솔비가 무균실에 들어가면 연등은 홀로 병실을 밝힐 거야. 연등의 불빛은 작고 희미하지만,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처럼 오래오래 빛날 거야. 솔비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만든 등이니까.



우승미 작가는
197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되었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국불교 태고종
전 북 종 무 원

원 장 청파 진성
부 원 장 송월법원
원로의장 수산수종
자문위원장 정민도광
교육원장 법륜혜정
사정원장 벽담도홍
감사원장 환공혜경
포교원장 승천대주
종회의장 고송법전
종회부의장 혜일

사부대중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 063) 285-9700
Fax 063) 282-1536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18 호
영산작법보존회

회 장 혜정
부회장 혜안
총 무 정수
교 무 법전
재 무 지오
교육원장 지산

사부대중일동



제4회
다꿈어울림 문화축제 한마당

일시 | 2018년 5월 22일(화) 오전 11시 ~ 오후 3시
장소 | 참좋은우리절 앞마당 (전주시 삼천동 소재)

행사내용

제11회 천년전주한지 전통 등 만들기 대회
- 일시 : 2018년 5월 22일(화) 오전 11시 ~ 오후 3시
- 참가부문 : 학생부(초,중등), 다문화가족부, 장애인부, 일반부(2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
- 주제 : 자유선정 ('공동체'에 관한 주제 선정 시 가산점 부과)
- 참가비 : 무료
- 시상내역 : 전라북도지사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시장상, 라훌라의 착한벗들상
- 심사결과 : 대회 당일 현장발표

※ 참가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참좋은우리절신행연합회 라훌라의 착한벗들
- 후원 :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제4회 다꿈나눔 장기자랑 대회
- 일시 : 2018년 5월 22일(화) 오후 1시 ~ 3시
- 참가부문 : 노래, 무용, 악기연주
- 참가자격 : 장기를 자랑하고픈 모든 이 (총 8개팀)
  ※ 단체참가팀에게는 가산점 부과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 부상내역 : 최우수상(1팀) : 30만원, 우수상(2팀) : 10만원, 장려상(2팀) : 5만원

※ 참가팀에게는 별도의 경품 증정

- 신청방법 : 소정양식 1부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참좋은우리절신행연합회 라훌라의 착한벗들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 Chamjoen Urijeol 사단법인 착한벗들
문의 및 참고 | 063) 236-6633, cafe.daum.net/urijel

법인 허가번호 제 2014-4호 / 법인설립 허가일 2010.4.30

특허청 특허출원번호 42-0005848 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 354개 종단이 가입한 최고의 법인단체)

회 장 월 하 성 철 / 전국중앙신도회장 윤 을 암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붕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원사불교조계종 종정 도호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지역발전혁신연구문화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국제불교범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등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원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조계종약사포교원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정인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승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지성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혜봉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대한명리사협회 회장 지공
대한불교전국호국무예봉사단총연합회 회장 박주석
사회복지법인대체의학자연치유국제문화교류복지재단 이사장 혜승
불교조계종대선불교대학 학장 현묵
한국불교마야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수암조계종 대표 수암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안개 지공
천상의전상조극락정토원 대표 정관법사
한국불교천지조계종 총무원장 성진
범종단환경보호연합회 이사장 혜봉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회장 정관 일해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현도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단 단장 법성 성주
대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종정 동연당 도우
향토불교승가연합회 대표 조향
대한불교태선조계종 은산 덕호
대한불교천안종 회령
대한불교금강조계종 금봉
대한불교천기종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법천 청운
대한불교약불조계종 오영 법사
국제불교인력컨설팅공사문화재단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대한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운묵 도진
대한불교불은조계종 총무원장 법주
대한불교한불조계종 총무원장 청명
재단법인세계통불교 이사장 일붕 성해
대한불교자비조계종 총무원장 해천 불성
연화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창원 진봉
정통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성암
전국장애인직업재활협의회 회장 법경
한국불교동방조계종 회장 법성
세계불교법연종 총무원장 법연
한국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원경
연화복지원경기북부지부 이건식
대한불교불회사 총무원장 원광
사단법인한국불교종단연합회중앙신도회 중앙신도회장 법운
사단법인동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산당선빈
구궁태극성명학회
소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웅
재단법인세계통불교 이사장 일붕 성해
대한불교자비조계종 총무원장 해천 불성
연화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창원 진봉
정통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성암
한국불교무불조계종 총무원장 송월
행복한뚜벅이 대표 혜명
사회복지국제불교승가복지재단 단장 동봉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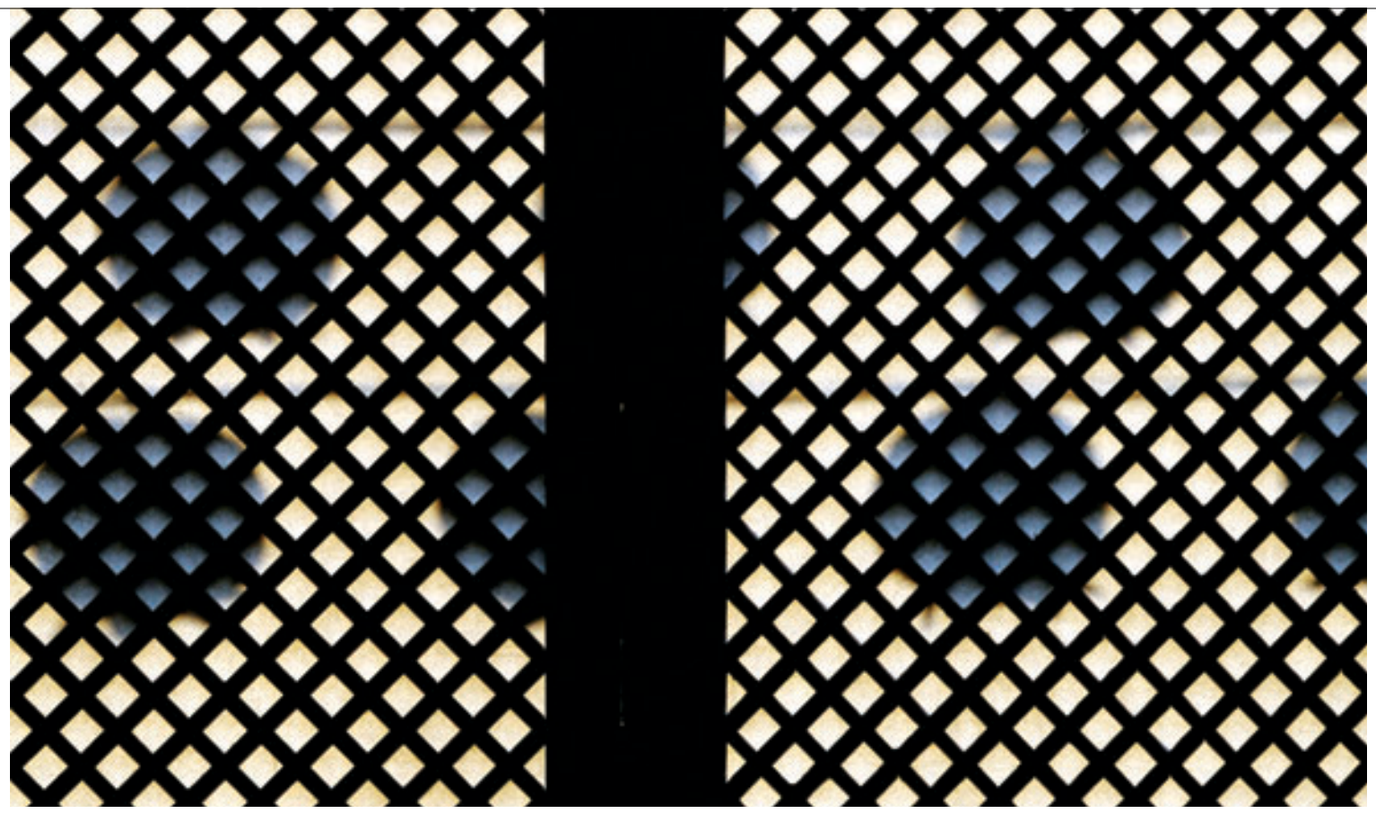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한 국 불 교 종 단 연 합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 (두산위브파빌리온 수송동)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박재완의 PhotoEssay



마음

누군가 건네는 차 한 잔에
말라붙은 마음 다시 숨을 쉬고
초면의 얼굴이 주고 간 다정함에
젖었던 마음 다시 펄럭여본다
때로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없고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와 나의 바깥에 있었다
어쩌다 찾은 산사의 적막
적막 너머에서 들려오는 풍경(諷經)소리
이름 모를 이들이 쌓아 놓은 적석탑
문 밖에 걸린 연등의 그림자

문 밖에 걸린 것이 연등뿐일까
매일매일 문 밖에 마음 걸어놓고 산다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②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 (상)

규칙적 생활과 운동양생법 실천이 면역력 높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균과 바이러스가 등장함에 따라 면역과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며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국내에서도 많은 수험생들의 수능을 망치게 했던 '신종 플루(신종 인플루엔자 A)',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2015년에 국내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등이 한창이었을 때 그리고 금년 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감염이 잘 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염병(染病)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있었다. 염병은 역병(疫病), 돌림병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의 급성전염병이다. 염병이 극심한 지역으로 귀양을 갔지만 걸리지 않았던 중봉 조헌(1544~1592) 선생의 비결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조헌 선생은 어떤 분인가?

절의와 도학을 겸비하여 평생을 강의(剛毅)와 직언(直言)으로 일관한 분으로서 율곡의 문하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로 손꼽힌다. 24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했지만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명예와 사리를 추구하지 않은 참선비로서 늘 직언을 했던 탓에 벼슬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물러나기를 밥 먹듯이 했고 수시로 귀양을 가기도 했다. 선조 임금의 골머리를 아프게 했고 서인의 돌격대장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관리 임용, 토지제도, 군제 등 각종 제도에 대하여 시대를 앞선 개혁을 주창한 선각자이기도 했으니 조선 후기의 실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바로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을 수복하였고, 전라도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에서 불과 700명의 의병으로 대규모의 왜병과 싸우다 모두 전사하여 칠백의총이 되었다. 만약 그 때 49세의 나이로 전사하지 않았다면 80세 넘게 장수했을 정도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했던 분이다.

조헌 선생의 면역력이 강했던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46세 때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길주로 유배를 갔다. 옥천에서 길주까지 2천여리의 길을 걸어가느라 발이 부르트고 피가 흘렀으나 조금도 의기가 꺾이지 않았다고 한다. 유배지에 이르렀을 때 근처에는 염병이 크게 번져서 10명 중 7, 8명이 죽었을 정도였고, 귀양지에 따라온 선생의 아들은 염병에 걸렸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였지만 선생의 아우는 죽고 말았다. 선생은 아우의 병간호에서부터 염습까지를 모두 직접 하고 아침저녁으로 널을 어루만지며 지극히 애통해 하였지만 자신은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강한 '정기(正氣)' 앞에는 요사스러운 '사기(邪氣)'가 침범하지 못한다고들 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폐 · 비 · 신 허약해지면
면역 기능 떨어져 감염 우려

전염병이 창궐해도 걸리지 않는 면역력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사기라고 하는데, 요즘의 병균, 바이러스에 해당된다. 몸에 사기가 들어오면 맞서 싸우는 것이 '위기(衛氣)'로서 바로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기도 정기 중의 하나이다. 그러니 사기가 침범하는 곳은 반드시 정기가 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기만으로 발병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 원인에 의해 정기가 허약해지게 되면 밖으로부터 사기가 쉽게 침입할 수 있고 또한 몸속에서 습(濕), 담(痰), 열(熱), 어혈(瘀血) 등의 사기가 생겨나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 정기가 충실하면 어떤 사기라도 방지할 수 있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으므로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

정기가 강하다는 것은 면역기능이나 항병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아울러 더위와 추위에 견디는 힘도 강해진다. 한의학에서 면역기능과 관계있는 장기는 폐, 비, 신으로써 만약 허약해지면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천의 근본인 신장이 중심이다. 물론 노화의 가장 큰 원인도 신장의 정기 허약이니, 신장이 허약해지면 노화가 촉진되다.

조헌 선생의 정기가 매우 강했던 이유는?

첫째, 선천적으로 강한 정기를 타고났다. 증조부가 정삼품의 무관직인 어모장군을 지냈을 정도로 집안 자체가 무인 기품을 지녔으니 강골을 물려받았던 것이다. 초상화를 보면 수염이 매우 덥수룩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염은 신장의 정기를 반영하는 곳이다. 수염이 왕성하다는 것은 신장의 정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장의 정기는 우리 몸의 정기의 근본으로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건강, 장수의 체질을 타고났다는 것으로써, 요즘의 유전자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둘째, 양생법을 잘 지켰다. 양생법이란 무병장수를 위한 생활건강법인데, 범위가 매우 넓다. 크게 나누어보면 음식, 운동, 정신, 방사(성생활), 기거(수면, 휴식, 노동), 환경, 계절, 기공 양생법 등이 있다.

모범적인 선비였기에 규칙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운동양생법을 아주 잘 실천했다. 집이 가난했던 탓에 손수 농사를 지었는데, 논밭에 나가 일할 때는 밭두둑에 책 걸이를 만들어 책을 얹어 놓고 틈나는 대로 글을 읽었다고 한다. 보통 선비들은 주야장창 공부를 했지만, 선생은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농기구가 없이 손으로 농사를 지었기에 엄청난 운동이 되었다. 게다가 농한기에는 멀리 떨어진 글방에 공부하러 다녔다.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해져 추위에 떨면서도 눈보라를 무릅쓰고 30리 길을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저절로 운동이 되어 체력 단련이 되고 다리가 튼튼해져 정기가 길러졌던 것이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주 혜명스님
주지 진성스님

총무 정해스님 홍보 진송스님
교무 보문스님 기획 정원스님

▶봉 사◀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대구분원 혜인정사 색소폰 봉사밴드
대구분원 혜인정사 연 꽃 봉 사 단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증명 태공 월주 대종사
전북봉축위원회 위원장 성우(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수석부위원장 진성(태고종전북종무원장)
부위원장 지섭(보문종 정혜사 주지)
용성(용화종 원각사 주지)
지정(총지종 흥국사 주지)
집행위원장 회일(조계종 참좋은우리절 주지)
이근재(전북불교신도회장)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5
T.063-224-4441 F.063-224-4460

불기 2562년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부처님 오신날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으니, 평등공법으로 모든 생명 건지는
한마음 밝은 등불을 밝힙시다

- 대행선사법어 -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